



5

1982

문학예술출판사

#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기관지

1982. 5호

(루게 415)



◆◆◆◆◆◆◆◆◆◆

## 차 례

◆◆◆◆◆◆◆◆◆◆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수령 <b>김일성</b> 동지께 드리는 축하문 .....	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인민위원회 정령 .....	8
보천보의 화불이여 .....	11
조선에 솟아오른 향도의 별 .....	12
값높은 생에 부치는 노래 .....	13
해방된 평양에서(1) .....	14
맥전나루 .....	18
바라노라 .....	19
충성으로 빛나는 삶은 영원하다 .....	20
불굴의 투지, 혁명적동지애 .....	23
항일의 불길속에서 꽃핀 군민일치 .....	25
태양의 품속에서 다시 찾은 삶의 길 .....	27
어린 두 형제여 .....	29
보통강반의 달밤 .....	30
그들의 모습 .....	32
당의 사랑을 받을 때 .....	40
평양역을 나서며 .....	41
파도우에 넘치는 랑만의 노래 .....	42
언제나 그날에 .....	45
꽃다발 .....	56

간석지에 노을이 타네 .....	62
위대한 태양을 받들어 힘차게 전진하여온 우리의 주체문학 .....	63
한끝에서 한끝을 생각하는 마음 .....	68
청춘이여! .....	69
언제건설장에서 .....	70
넓어지는 고향벌 .....	76
사랑의 지평선 외1편 .....	78
미루고원 .....	78
나는 왔노라, 고향을 지나.....	79
서정시 《어머니》를 읽고.....	80

#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수령

## 김일성동지께 드리는 축하문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의 탄생 70돐에 즈음하여

오늘 우리의 전체 당원들과 인민들은 다함없는 민족적공지와 끝없는 감격에 넘쳐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탄생 70돐을 가장 뜻깊게 맞이하고있습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인민위원회와 정무원은 이 경사스러운 날에 즈음하여 위대한 수령이신 경애하는 **김일성** 동지께 전체 당원들과 인민들의 한결같은 의사와 념원을 담아 최대의 영광과 가장 열렬한 축하를 드립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탄생은 우리 민족의 운명과 우리 인민의 력사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가져오게 한 사변이었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를 모시게 됨으로써 우리 인민은 오랜 수난의 력사를 끝장내고 민족 재생과 번영의 새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으며 세기에 빛나는 영웅적투쟁과 위훈의 력사를 창조할수 있었습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대대로 애국적이며 혁명적인 가정에서 탄생하시어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신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반세기가 넘는 기나긴 세월 오로지 로동계급과 근로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하여, 조국의 자주독립과 통성번영을 위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심으로써 력사에 길이 빛날 위대한 업적을 쌓아올리시였습니다.

락후한 식민지로부터 오늘의 대번영을 이룩한 우리 조국의 현대사를 장식한 모든 위대한 사변들과 빛나는 성과들은 그 어느것이나 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의 존엄과 직접 잇닿아있습니다.

경애하는 **김일성** 동지는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식민지민족해방의 새로운 길을 개척하시어 우리 민족을 생사존망의 위기에서 구원하신 민족의 구성이십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일찌기 맑스-레닌주의를 창조적으로 적용하시어 주체적인 조선혁명로선을 밝히시고 타도제국주의동맹을 비롯한 여러 혁명조직들을 무으시어 조선공산주의운동의 참다운 시원을 열어놓으시였으며 세세대 공산주의자들을 핵심으로 혁명적무장력을 창건하시고 영웅적인 항일무장투쟁을 조직령도하심으로써 조선인민의 반일민족해방투쟁을 새로운 높은 단계로 발전시키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몸소 수천수만리 혈로를 헤치시면서 간고한 15성상의 항일대전을 진두에서 이끄시어 마침내 조국광복의 력사적위업을 성취하시였으며 우리 당과 혁명의 만년초석인 빛나는 혁명전통을 이룩하여 놓으시였습니다.

일제식민지통치의 그 암담하던 시기에 **김일성** 동지의 존함은 조선인민의 희망의 등대였고 민족의 독립과 존엄의 상징이었으며 우리 인민이 온갖 시련을 이겨내고 불굴의 투쟁을 벌려 온 힘의 원천이었습니다.

경애하는 **김일성** 동지는 우리 당과 공화국의 창건자이시며 위대한 령도자이십니다.

경애하는 **김일성** 동지께서는 항일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마련하신 혁명적당창건의 조직사상적기초와 당건설의 풍부한 경험에 의거하여 제때에 주체형의 혁명적당을 창건하시고 종파주의와 사대주의, 교조주의, 수정주의를 비롯한 온갖 이색적인 사상조류를 반대하는 비타협적인 투쟁을 통하여 우리 당을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철석같이 통일단결되고 인민대중과 혈연적으로 련결된 불패의 혁명적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시였습니다.

《E. C》의 기치밑에 수십명의 대오로 시작하여 온갖 시련과 풍파를 뚫고 수백만의 강철의 대부대로 자라난 강위력한 당,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여 찬란한 업적과 풍부한 경험을 쌓은 가장 권위있고 세련된

당, 백전백승의 조선로동당을 건설하여 놓으신것은 **김일성**동지께서 우리 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위한 확고한 담보를 마련하신 위대한 공적입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항일무장투쟁시기에 내놓으신 주체적인 인민혁명정부로선을 구현하시여 조선인민의 진정한 조국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하시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강력한 무기로, 인민대중의 자유와 권리의 철저한 옹호자로 강화발전시키시였으며 우리 나라를 정치에서 자주적이고 경제에서 자립적이며 국방에서 자위적인 존엄있고 권위있는 사회주의강국으로 전변시키시였습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의 불길속에서 태어난 우리 혁명무력을 불패의 현대적인 정규무력으로 강화발전시키심으로써 원수들의 침해로부터 혁명의 전취물과 조국의 안전을 믿음직하게 보위할수 있게 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청소한 우리 공화국을 요람기에 압살하려고 덤벼든 미제와 그 주구들의 무력침공을 반대하는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시기 전선과 후방, 당과 국가, 군사 사업의 모든 중하를 한몸에 지니시고 우리 인민군대와 인민을 빛나는 승리로 이끄심으로써 미제침략자들에게 력사상 처음으로 되는 참패를 안기고 민족의 독립과 존엄을 영예롭게 고수하시였으며 미제가 내리막길에 들어서는데 시초를 열어놓고 세계혁명적인민들의 반제반미투쟁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오게 하시였습니다.

항일대전을 승리로 이끄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세계 《최강》을 자랑하는 제국주의 괴수 미제의 무력침공을 격파하심으로써 한 세대에 가장 강대하고 포악한 두 제국주의인 일제와 미제침략자들을 타승하는 군사적기적을 이룩하신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으로, 위대한 군사전략가로 온 누리에 이름떨치시였으며 그 행정에서 주체적인 군사사상과 탁월한 전략전술, 령활한 령군술과 기묘한 전법을 창조하시여 로동계급의 군사과학과 혁명군대의 전략전술발전에 불멸의 공헌을 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세기적으로 뒤떨어진 이 땅위에 거창한 사회적변혁과 방대한 건설사업을 수행하신 창조와 건설의 영재이십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확고한 주체적립장에서 독창적인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강령과 사회주의혁명로선을 내놓으시고 어렵고 복잡한 두 단계의 사회혁명을 짧은 기간에 철저히 수행하도록 이끄심으로써 공화국북반부에 착취와 압박이 없고 모든것을 근로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게 하는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제도를 세워놓으시였습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적인 사회주의경제건설의 기본로선과 사회주의공업화로선, 사회주의농촌건설강령을 내놓으시고 그 관철으로 전당, 전국, 전민을 불러일으키심으로써 공업화의 력사적과업을 불과 14년동안에 끝내고 사회주의경제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끊임없는 양양을 이룩하도록 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전후 재더미위에 수많은 현대적인 중공업공장들과 경공업공장들을 일떠세우고 농업을 현대화, 공업화하여 위력한 자립적공업과 발전된 농촌경리를 건설하게 하시였으며 현대적인 도시와 문화적인 농촌, 대기념비적건설물들을 일떠세워 나라의 면모를 근본적으로 일신시키도록 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적인 교육강령과 문화건설 로선을 제시하시고 빛나게 구현하시여 지난날 현대기술문명에서 멀리 뒤떨어지고 문맹이 지배하던 우리 나라를 가장 선진적인 교육제도와 발전된 민족간부양성체제를 가지고 전민이 학습하는 문명한 나라로, 100만의 기술자, 전문가들의 대부대를 가진 나라로 전변시키시였으며 사회주의민족문화를 찬란히 개화발전시켜 우리 인민을 세계선진문화의 상상봉에 올려세워주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제도를 세운 다음에도 혁명을 계속할데 대한 탁월한 방침과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할데 대한 혁명적강령을 내놓으시여 사회주의의 전면적인 개화기를 열어놓으시였으며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기치밑에 온 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 인테리화하며 인민경제를 주

체화, 현대화, 과학화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가도록 현명하게 이끄심으로써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다그치고 공산주의의 사상적요새와 물질적요새를 성과적으로 점령해나갈수 있게 하고계십니다.

우리 혁명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70평생 불면불휴의 로고를 바쳐오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오늘도 왕성한 정력으로 당과 국가, 군사 사업전반을 진두에서 지휘하시며 전당, 전국, 전민을 영웅적 위훈으로 불러일으키고계십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정력적인 활동과 현명한 령도는 정치와 경제, 사상과 문화, 군사의 모든 분야에서 위대한 전변과 끊임없는 양양을 일으키는 원천으로 되고있습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국통일을 민족지상의 과업으로 내세우시고 자주, 평화통일, 민족 대단결의 3대원칙밑에 조국을 통일하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끌고계시며 70만 재일동포들을 비롯한 모든 해외동포들을 육친의 정으로 보살펴주고계십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활동의 전기간 반제자주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 혁명의 민족적임무와 함께 국제적임무에 끝없이 충실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인류력사발전의 새시대, 자주성의 시대를 개척하여 자주성에 기초한 국제관계발전의 새로운 길을 열어놓고 세계 이르는곳마다에서 자주화의 거세찬 조류를 일으키는데 불멸의 공헌을 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세계반제자주위업과 국제관계발전에서 제기되는 제반 원칙적문제들에 가장 정확한 해답을 주시고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인민들을 비롯한 세계혁명적인민들의 반제반미투쟁과 자주, 독립, 사회진보를 위한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하심으로써 국제공산주의운동과 세계혁명운동, 빨럭불가담운동 발전에 거대한 기여를 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국과 인민, 시대와 혁명 앞에 쌓아올린 불멸의 위대한 공적으로 하여 우리 인민뿐아니라 세계 진보적인민들속에서 높은 권위를 지니고계시며 그들의 다함없는 존경과 신뢰를 받고계십니다.

주체조선의 년대기에 찬란히 아로새겨진 모든 위대한 승리와 업적은 주체사상의 빛나는 승리이며 경애하는 **김일성**동지의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의 고귀한 결실입니다.

위대한 사상리론가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항일혁명투쟁의 첫 시기에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여 우리 혁명의 앞길을 휘황히 밝혀주시였으며 주체위업의 새 력사를 펼쳐주시였습니다.

우리 당과 인민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을 유일한 지도적지침으로 삼고 그 기치따라 확고히 전진함으로써 어렵고 복잡한 조선혁명의 앞길을 승리적으로 개척할수 있었으며 혁명과 건설에서 위대한 성과를 이룩할수 있었습니다.

위대한 령도에술가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적인 혁명로선과 전략전술적방침을 제시하시고 모든 문제를 자주적립장과 창조적립장에서 풀어오시였으며 불굴의 혁명정신과 견결한 혁명적원칙성, 명철한 통찰력과 비범한 혁명적전개력을 지니시고 혁명과 건설을 오직 승리의 한길로 이끄시였습니다.

혁명의 진두에 서시여 준엄한 시련과 난관을 뚫고나가시며 승리의 돌파구를 열어놓으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세련된 령도가 있음으로 하여 우리 인민은 혁명과 건설에서 언제나 필승의 신념을 가지고 무비의 헌신성과 대중적영웅주의를 발휘하여 그 어떤 어려운 혁명과업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었습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과 건설에서 인민대중의 무궁무진한 창조적힘을 굳게 믿으시고 탁월한 령도에술로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는 거창한 투쟁에 우리 인민을 힘있게 불러일으키심으로써 세 사람들을 경탄시키는 빛나는 승리를 가져오게 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끊임없는 현지지도의 길을 이으시며 늘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인민대

중속에 들어가시어 인민의 지혜와 힘을 조직동원하시고 그들을 당정책관철을 위한 투쟁으로 옳바로 이끌어주시으로써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련이어 혁신이 일어나게 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숭고한 인민적품모와 공산주의적덕성을 지니시고 언제나 인민들속에 계시면서 인민들과 고탁을 같이하시고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모든것을 바쳐오시였으며 인민들에게 뜨거운 사랑과 배려를 베풀어주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근로자들에게 가장 고귀한 정치적생명을 안겨주시고 그들모두를 주체형의 혁명가로 키워주고계시며 전체 인민들에게 의식주와 자녀교육, 병치료에 대하여 근심걱정을 모르고 끝없이 행복하게 사는 사회주의락원을 마련하여주시고 훌륭한 공산주의적시책들을 펼쳐주고계십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크나큰 은덕으로 하여 더없이 행복하고 보람찬 삶을 누리고있는 우리 당원들과 전체 인민들은 심장으로부터 우러나오는 뜨거운 충성심을 안고 당과 수령의 두리에 철석같이 뭉쳐 혁명승리를 위하여 몸바쳐투쟁하고있으며 온 사회는 오직 하나의 숨결로 숨쉬고 약동하는 혁명적대가정으로 굳건히 단합되어있습니다.

참으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반세기가 넘는 영광스러운 혁명활동의 력사는 위대한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빛나게 구현하시어 조선혁명과 세계혁명앞에 영생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신 위대한 사상리론가, 걸출한 혁명의 령도자의 빛나는 력사이며 인민들속에서 나오시어 한평생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하여 모든것을 바치고계시는 인민의 위대한 수령의 거룩한 력사입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혁명업적은 주체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위한 확고한 담보를 마련하고 주체의 기치따라 공산주의에로 나가는 력사발전의 새로운 진로를 열어놓은것으로 하여 더욱 빛나고있습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선혁명과 인류의 공동위업을 위하여 쌓아올리신 위대한 업적과 공헌은 인민들의 가슴속깊이 간직되어 천만년 길이 전해질것이며 해가 가고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더 빛날것입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를 수령으로 모시고있는것은 우리 당과 인민의 최대의 영광이며 행복입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계시어 우리 당과 우리 혁명의 영광에 찬 과거와 오늘이 있으며 휘황찬 앞날이 있습니다.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를 높이 받들어나가는 여기에 조국의 통일과 민족의 무궁한 번영, 조선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위한 결정적담보가 있다는것을 심장으로 깊이 간직하고있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높이 우러러모시고 주체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가려는것은 전체 당원들과 우리 인민의 철석같은 신념이며 의지입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주체사상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들고 나아가는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혁명위업은 필승불패입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인민위원회와 정무원은 전체 당원들과 인민들의 절절한 념원과 뜨거운 마음을 담아 조국의 통일과 주체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위하여, 나라의 무궁한 번영과 후손만대의 행복을 위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부디 만수무강하시기를 삼가 축원합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인민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무원**  
1982년 4월 15일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인민위원회 정령

##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웅칭호를 수여함에 대하여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는 간고한 조선혁명을 승리의 한길로 이끄시여 우리 민족을 생사존망의 위기에서 구원하시고 나라의 통성과 번영을 이룩하시였으며 조국청사에 길이 빛날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신 민족적영웅이시며 혁명의 위대한 령도자입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조선혁명을 령도하여오신 50여성상의 력사는 조국의 광복과 부강발전을 위하여,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하여 모든것을 바쳐오신 영광스러운 투쟁의 력사이며 주체의 기치밑에 민족해방, 계급해방,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수행에 불멸의 공헌을 하신 위대한 혁명력사이다.

경애하는 **김일성**동지께서는 빛나는 예지로 새시대를 지향하는 혁명의 요구를 명철하게 통찰하시고 위대한 주체사상을 창시하시여 자주성에 기초하여 전진하는 조선혁명의 새로운 길을 개척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타도제국주의의 혁명적기치밑에 온 민족을 반일혁명투쟁으로 힘있게 불러일으키시였으며 조선인민의 혁명적무장력인 항일유격대를 창건하시고 영웅적항일무장투쟁을 조직령도하심으로써 포악한 일제식민지통치를 종식시키고 조국광복의 력사적위업을 이룩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해방후 치열한 계급투쟁이 벌어지는 복잡하고 어려운 조건에서도 항일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이룩하신 고귀한 업적과 경험에 토대하여 체때에 주체형의 혁명적당인 조선로동당을 창건하시고 위력한 혁명의 전위부대로 강화발전시키시였으며 우리 인민의 진정한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하시고 우리의 혁명무력을 현대적인 정규군으로 발전시키심으로써 우리 인민에게 혁명과 건설의 필승불패의 무기를 안겨주시고 우리 나라를 존엄있는 자주독립국가로 전변시키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미제에 의하여 국토가 둘로 갈라진 복잡한 정세에 대처하여 탁월한 민주기지창설로선을 제시하시고 지체없이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을 철저히 수행하도록 이끄심으로써 공화국복반부를 조선혁명의 강력한 기지로 전변시키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민족의 운명을 판가리하는 준엄한 조국해방전쟁시기 전선과 후방의 모든 중하를 한몸에 지니시고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로 우리 인민군대와 인민들을 승리로 이끄시여 우리 인민에게 또다시 식민지노예의 운명을 들쭉우려던 세계 제국주의의 괴수 미제침략자들을 타승하



고 조국의 독립과 민족의 자주권을 굳건히 수호하시였으며 미제가 내리막길에 들어서시는 시초를 열어놓으시고 반제반미투쟁을 새로운 양상으로 고무추동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전후 사회주의혁명의 독창적인 로선을 제시하시고 낡은 생산관계를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하는 역사적과업을 빛나게 수행하여 이 땅위에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제도를 세우시였으며 탁월한 사회주의경제건설강령을 제시하시고 복구와 개건, 사회주의공업화와 농업의 현대화를 위한 거창한 건설투쟁을 힘있게 밀고나가심으로써 모든것이 파괴된 재더미속에서 짧은 기간에 위력한 자립적 중공업과 경공업, 발전된 농촌경리를 가진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우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적인 교육문화강령을 제시하시고 교육과 과학, 보건, 문화예술을 획기적으로 발전시켜 지난날 현대문명에서 멀리 뒤떨어졌던 우리 나라가 자체의 민족간부의 대부대를 가지고 사회주의 민족문화의 일대 개화기를 맞이할수 있게 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제도수립후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한 혁명로선과 투쟁방침을 전면적으로 밝히시고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 수행으로 전당과 전체 인민을 불러일으키시여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을 힘있게 밀고나가고계신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3대혁명로선이 철저히 관철됨으로써 당과 인민의 반석같은 정치사상적통일이 이룩되고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가 더욱 굳건히 다져졌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성과적으로 완성해나갈수 있게 되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숭고한 인민적품성을 지니시고 인민의 리익과 념원을 실현하기 위한 성스러운 위업에 불면불휴의 로고를 바치시여 우리 나라를 누구나 다 아무런 근심걱정을 모르고 행복하게 사는 인민의 락원으로, 전체 인민이 한마음한뜻으로 굳게 뭉친 혁명적대가정으로 전변시키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갈라진 조국을 통일하는것을 민족지상의 과업으로 내세우시고 분열된 민족의 비운을 가시며 통일조선의 밝은 미래를 마련하시기 위하여 온갖 심혈과 로고를 다 바쳐오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활동의 전기간 국제로동계급과 피압박민족들의 해방위업에 커다란 관심을 돌리시고 제국주의를 반대하며 자주적인 새 세계를 건설하기 위한 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하시였으며 반제자주위업과 전반적국제혁명운동발전에 불멸의 공헌을 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인민의 장구한 혁명투쟁을 령도하여오시는 행정에 로동계급의

혁명사상을 새롭게 발전풍부화시키시고 혁명투쟁의 여러 단계와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 걸쳐 비상히 풍부하고 다방면적인 투쟁업적과 경험을 쌓으심으로써 우리 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위한 확고한 담보를 마련하시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진두에서 우리 혁명을 이끌어주심으로 하여 지난날 세계지도에서 빛을 잃었던 우리 나라는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에서 일찌기 없었던 민족적통성과 번영의 최성기를 맞이하게 되고 우리 인민의 앞길에는 더욱 휘황한 전망과 찬란한 미래가 담보되어있다.

우리 나라에서 이룩된 세기적 변혁과 진보, 우리 인민이 누리고있는 끝없는 행복과 영광은 전적으로 비범한 예지와 탁월한 령도력, 고매한 덕성을 지니시고 온갖 시련과 고난을 헤치시며 우리 혁명을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오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불면불휴의 정력적투쟁의 고귀한 결실이다.

참으로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는 자주의 진로와 혁명승리의 앞길을 휘황히 밝혀주고계시는 위대한 사상리론가이시며 한세대에 두 제국주의를 타승하시여 식민지민족해방혁명과 반제반미투쟁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놓으신 탁월한 군사전략가이시며 자주, 독립,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위한 우리 인민의 모든 혁명투쟁을 빛나는 승리로 이끄신 혁명과 건설의 영재이시며 민족의 념원과 근로인민의 리상을 가장 훌륭히 실현하여주시는 인민의 위대한 수령이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장구한 혁명투쟁로정에서 쌓아올리신 위대한 업적으로 하여 온 민족의 절대적인 신뢰와 끝없는 흠모를 받고계시며 세계진보적인민들의 다함없는 존경을 받고계신다.

심오한 사상리론활동과 위대한 혁명실천으로 현대력사를 새롭게 개척하시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과 반제자주위업을 승리와 영광의 한길로 이끄시는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를 수령으로 모시고있는것은 우리 인민의 최대의 행복이며 최고의 영예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인민위원회는 50여성상의 장구한 기간 우리 혁명을 진두에서 이끄시여 조국과 민족앞에 불멸의 영웅적업적을 쌓아올리시였으며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에 거대한 공헌을 하신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그이의 탄생 70돐에 즈음하여 전체 조선인민의 한결 같은 의사와 념원에 따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웅칭호와 함께 금별메달 및 국기훈장 제1급을 수여할것을 결정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인민위원회

1982년 4월 15일 평양시

# 보천보의 해불이여

리광제

가림천 맑은 물 노래하며 흐르고  
곤장덕 푸른 숲도 끝없이 설레이는  
력사의 땅  
보천보!

이 나라 강토우에  
수난의 서러운 그림자 비끼었던  
45년전 그날에  
조국해방의 장엄한 해돋이를 부르며  
불멸의 해불이 타고르고있었다  
어둡던 밤하늘에...

오, 1937년 6월 4일!  
민족의 운명이  
생사의 갈림길에 놓여있을 때  
위대한 우리 수령님  
짓밟힌 강산에  
광복의 해불높이 올리신  
력사의 날이여

빛없는 생활의 막바지에서  
얼마나 기다리던 이날이었던가  
살아 숨쉴곳 없고  
죽어 몸둘곳 없어도  
오직 장군님만 믿고 따르며  
곳곳이 살아온  
이 나라 겨레들

얼마나 맞고싶던 영광의 시각이

그날에 이 땅우에 펼쳐졌던가  
백두산이야기로 잠못들던 가슴들  
눈물에 젖어  
감격에 넘쳐  
민족의 태양 **김일성** 장군님 우러러  
목이 터져라 만세를 웨치던 밤이여  
쫓구치는 화광,  
터져오르는 환성...  
광술불 추켜든 로인의 주름진 얼굴에  
뜨거운것이 쏟아져내리고  
혈벗은 류벌공,  
애기를 업은 마을녀인들  
조용히 감격을 안고 흐느끼고...

불길이 타고르고있었다  
짓밟혀 멎들었던 강산에  
한숨으로 뜨는 해를 맞고  
눈물로 지는 달을 보내던  
설움 많은 가슴가슴에...

그렇다, 력사의 그 시각  
조선은 철쇄를 마스며  
강토에 쌓이고쌓인  
피맺힌 원한을 씻으며  
분노의 활화산을 안았나니

아, 상처입은 조국을  
뜨겁게 안으시며

그날 그 밤에  
수령님 높이 올리신  
조국광복의 위대한 선언이어  
  
-조선은 죽지 않고 살아있다!  
불을 지르라, 원쑤의 머리에...  
  
오, 이는 식민지 죄사슬을 끊어버리고  
삼천리강토우에  
꽃피는 조선의 새봄을 부르는  
민족의 의지  
겨레의 눈물진 역사를 끝장낼  
조선의 신념  
  
이는 수난당한 민족의 이름으로  
혁명의 이름으로  
강도 일제의 멸망을 선고한  
승리의 선언!  
반제전선에 도도히 굽이쳐간

주체혁명의 장엄한 불흐름!  
  
어둡던 강산에  
광휘로운 빛발이 차넘치고있었다.  
겨레의 가슴마다  
혁명의 불길 세차게 타번지고  
하늘 땅 가득  
민족재생의 숨결 높뛰고있었다  
그날 그 밤에...  
  
오, 보천보, 보천보  
밤하늘에 떠오르던  
불멸의 화불이어  
가림천 맑은 물 흘러 천만년  
곤장덕 푸른 숲 설레며 영원히  
노래불러 노래불러 전하리  
수령님의 혁명위업과 더불어  
길이길이 빛나리  
주체혁명의 화불이어!

## 조선에 솟아오른 향도의 별

나이야 미요시

주체의 나라 조선에  
향도의 별 찬란히 솟았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  
그이는 조선의 영광, 조선의 행복!

**김일성**원수님 높이 모시고  
천리마조선을 비약으로 이끄시네  
영명하신 지도자 **김정일**동지  
그이는 위대한 수령님의 유일한 후계자!

인민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시고  
원쑤에겐 공포와 죽음을 주시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  
그이는 만민의 아버지, 주체의 전략가!

아, 조선에 높이 솟아 빛나는 별  
우리의 머나먼 배길도 비쳐주네  
영명하신 지도자 **김정일**동지  
그이는 온 누리를 밝혀주는 향도의 별!

(필자는 일본선박 《제1긴쇼마루》 기관장)

# 값높은 생에 부치는 노래

-예술영화 《조선의 별》을 보며-

리종섭

기쁘게 웃자고 피어난 꽃들마저  
풀숲에 얼굴묻고 흐느끼는 들판에서  
김혁이는 어대 가구 수첩만이 돌아왔는가...  
장군님께서 통절히 물으시는 순간  
아, 나도 흐르는 눈물에 흰수건을 적시노라

절통하구나  
장군님께서 목메여 부르시는데  
사랑하는 전사는 다시 오지 못하는가  
어깨결고 함께 싸우던 동지들의 곁을  
정녕 그대는 떠나갔단말인가

못잊어라 그대 걸어온 수난의 길  
제나라 땅에 움터 자란 생이건만  
독버섯밑에 난 고달픈 싹처럼  
해빛없는 검은 구름밑에서  
눈물에 절며 시들어가던 몸이여!

다감한 심장을 지닌 시인이었던만  
너무도 참혹히 쓰러진 조국을 불안고  
조선아, 조선아! 가슴치며 흘린 눈물만  
그대로 시가 되어 두볼에 얼룩질 때  
나도 안타까와 몸부림쳤노라

아, 제 한가정도 건지기 어려운 시절  
이천만을 구원하자 큰마음 품고 떠난 길  
이끌어줄 수령을 찾아 헤매일 때  
내 그대의 앞길을 축복했건만  
갈길 못찾아 떠돌던 몸  
회오리바람에 휘말려 군 가랑이이던가

세상천지를 정처없이 방황하던 나날  
먹물같은 어둠속을 빠져나와  
동트는 려명을 마중가는듯  
위대한 장군님품으로 달려가던 초원길  
춤추는 마차에 그대 앉아갈 때  
하늘은 정말 푸르더라, 구름도 희더라

조선의 운명이 그 품에 있고  
안아주는 그 품이 하도 따사로와  
장군님 우러러 더운 눈물 흘리며  
그대 티없는 충성을 구절구절에 피여  
《조선의 별》을 온 누리에 노래했나니

어지러운 세상은 지지리도 캄캄해  
반디불조차 보이지 않던 그 시절에  
눈이 부시도록 빛나는 별로  
우러러보온 장군님을  
조선의 향도성으로 높이 모신 투사여!

그대는 반만년력사에서 처음으로  
위대한 수령님을 노래한 혁명시인  
조선혁명의 축인 장군님 두리에  
이천만 겨레를 부른 첫 선창자가 아닌가

《시내가의 작은 배》에 마음을 싣고  
눈물 없는 그 나라를 꿈꾸며 가던 그대  
위대한 장군님께서 키를 잡으신  
혁명의 전투함을 바꿔라고  
파도치는 투쟁의 바다를 헤쳐나갈 때  
내 열광의 박수를 보내고 또 보냈더니

아, 원쑤와 맞다든 최후의 순간  
장군님 찾아주신 생이 하도 소중해  
더 오래 살며 싸우고싶었던만  
혁명에 다진 맹세 변치 말자...  
장군님을 태양으로 높이높이 반들어올리며  
제 한몸을 절벽에서 돌처럼 떨어지듯  
서슴없이 목숨바친 투사여!

꽃지는 계절에도 꽃을 안고 사는 나이  
겨우 한생의 반나절을 그대는 살았어도  
장군님 사랑속에 잃지 않는 생을 안고  
그리도 어려운 나날에 장군님을 떠받든 전사로  
오늘도 우리 혁명대오의 선두에 서있어라

1920년대 혁명이 동트던 그 길에서  
그대 부른 그 노래의 선창을 따라  
락원의 이 땅에 합창이 터지노라  
태양을 모신 길에 티가 없는 그대처럼  
우리 당중앙을 깨끗한 심장으로 받들려니

아, 혁명투사이며 시인인 김혁동지여!  
대를 이어 혁명에 나선 이 마음  
수령님과 당중앙을 위함이라면  
그대처럼 최후의 순간, 그 짧은 순간에도  
수령님과 당중앙의 존함을 높이 부르며  
천길 낭떠러지에도 이 한몸 폭포처럼 쏟아지리라

## 해방된 평양에서(1)

최봉무

노래소리 울려 퍼진다.  
저 하늘높이 붉은 노을이 펼쳐지고 메아리는  
끝없이 끝없이 흘러가누나.

.....

개선문에 자유종을 높이 울리고  
삼천리에 붉은기 펄펄 날릴제  
수십년을 짓밟히던 삼천리강산  
우리 조선 락원으로 어서 만들자

아,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께서 아드님과 함께  
부르시던 그 노래소리 오늘도 평양의 하늘가에  
울리는것인가.

### 쌍무지개

들메나무에서 까치가 운다. 여기 만경대의 키  
높은 들메나무에서...

해방의 첫소식을 전해주던 그날의 기쁜소식인  
가. 김정숙어머님께서 아드님을 앞세우시고 증조  
할아버님과 증조할머님께서 계시는 만경대고향집  
을 찾으시던 그 기쁜 소식을 알려주던 그날의 웃  
음소리인가.

까치가 운다. 오늘은 또 우리들이 찾아온다고  
...

끝없이 흘러드는 꽃물결속에 나도 한송이의  
꽃!

아, 뜻깊은 들메나무앞에 걸음 멈추니 이 가슴  
에 추억도 많아라.

《오신다!》

《우리 집 장손머느리가 손자를 데리고 들어오  
누나. 오늘이 이 집의 명절이로다.》

내 귀에 들려오는것은 증조할아버님 김보현선  
생님의 다심하신 목소리구나.

해방의 감격속에 기다리고기다리던분들이 고향  
집에 들어서신다고 목메여 그 소식 전하던 저  
《소식새》의 고운 청도 오늘의 감회속에서는 눈  
시울을 적신다.

바로 그날의 이야기이다.

밖에 나오신 어리신 아드님께서 동네아이들  
과 함께 유쾌히 뛰놀며 들메나무계로 달려가시었  
다.

다정한 만경대애들은 아드님을 둘러싼 크나큰

기쁨속에 마음껏 행복한 시간을 보내었다.

백두산 귀틀집에서 미래의 해돋이로 떠오르시  
여 장백의 험한 길을 걸어오신 아드님께서 아버  
님의 어린시절의 자옥이 찍힌 땅을 밟는 감정인  
들 어찌 깊으시지 않으랴.

자유의 푸른 하늘에 풍만한 잎새 설레이며 높  
이 서있는 들메나무, 들메나무앞에 이르신 아드  
님께서는 애들을 둘러보시며

《애들아, 이 나무가 들메나무지... 우리 아버지  
가 나만할 때 이 나무에 올라가서 무지개잡이를  
하셨단다.》라고 말씀하시였다.

애들도 그 이야기를 저희들의 할아버지, 할머  
니에게서 들었다고 환성을 올렸다.

애들은 숨씨있게 들메나무에 오르시는 아드님  
을 황홀히 바라보았다.

아무리 올라봐도 무지개가 없으시였다. 더 높  
이 오르시여도 역시 무지개는 보이지 않으시였다.  
무지개는 어데 갔을까?...

이때 지나가던 로인이 걸음을 멈추고 들메나무  
를 유심히 바라보는것이였다.

어린시절 장군님께서 자라나시던 모습을 늘 보  
아온 로인이였다.

(재가 산당집 증손이 분명하구나.)

아드님의 뛰어나신 성품을 한동안 바라보던 로  
인은 《늙어서 룡이 난다더니...》하며 연신 고개  
를 끄덕이였다.

얼마후 아드님께서는 나무에서 내려오시였다.  
아이들은 무슨 이야기를 해주시려나 해서 모여섰  
다.

아드님께서는 비오는 날에 다시 오자고 하시면  
서 그래야 무지개가 된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러  
자 애들은 그 뜻을 알았다는듯 손뼉을 치며 그러  
자고 하였다. ...

애들은 그후 비온 어느날 들메나무에 아름다운  
쌍무지개가 피어난것을 보았다....

아, 무지개!!-

나는 다시금 유서깊은 들메나무를 바라보며 생  
각에 잠긴다. 한끝은 백두산천지에 뿌리내리고  
한 끝은 만경대 샘가에 뿌리를 내린 조선의 쌍무  
지개를 그려본다.

김보현할아버님께서 그것을 그려보시며 증손

자와 함께 덩실덩실 춤을 추시었구나.

...

고운 새들이 날아든다  
온갖 짐승들이 모여든다

...

《우리 증손이도 과시 장군감이로구나!》

그 모습, 그 기쁨, 그 영광 받아안으라고 오들도 들메나무우에서 까치가 온다. 우리들을 불러 수만사람들을 불러불러...

## 보통강개수공사장에서

나는 보통강개수공사기념탑을 에돌아 유보도길의 포석을 밟는다.

자욱자욱 옮길 때마다 가슴에 마쳐오는 생각- 그것은 눈물의 강, 원한의 강의 피어린 력사뿐만이 아니다.

대자연개조사업의 첫삽을 뜨신 위대한 수령님의 그 영광과 더불어 우렁치며 떠오르는 불멸의 영상이 있다.

사람들이여, 이 기슭에서 그 모습을 더듬어보자. 아, 눈앞에 안겨오는 력사의 화폭이여.

이 강기슭이었지. 감탕이 오금을 치던 강바닥, 저 강변의 야장간자리!...

공사장엔 사람들이 바다를 이루고 가설건물로 된 자그마한 강변의 야장간에서도 대장로인들이 구슬땀을 흘리고있었다.

풀무소리... 버름질소리...

야장간에 한 어린이가 나타나 할아버지들의 일손을 돕고있었다. 어린이는 자기 조국, 자기 인민을 위하여 흥에 겨워 땀흘리는 로인들을 바라보며 미소를 짓곤하였다.

《작은 못.》

대장로인이 한마디 하면 어린이는 얼른 작은 못을 집어주었다.

《째기감.》

대장로인이 또 한마디 하면 어린이는 기다린듯 째기감을 집어주었다.

대장로인은 어린이의 행동이 너무도 기특하여 일손을 멈추고 《너 누구하고 여기 나왔느냐?》하고 물었다.

어린이는 당돌하게 《어머님과 함께 나왔지요.》하고 대답하였다.

로인이 저쪽으로 고개를 돌리었다. 거기에서 웬 젊으신 녀인이 삽으로 감탕을 떠내고있었다. 옷에는 온통 감탕이 게발리었다.

어린이는 모진 고생으로 허리굽은 로인의 모습을 유심히 훑어보았다.

《할아버진 옛날부터 토성랑에서 살았나요?》

《그렇지, 내야 토성랑태생이지.》

로인은 류달리 영특한 어린이에 대하여 알고싶었다.

《토성랑의 어느 집 자손이냐?》

《.....》

어린이는 그저 눈웃음을 지어보일뿐이었다.

《아버님이 누구시냐?》

로인이 재차 묻자 어린이는 잠시 동안을 두었다가 넋지시 로인을 바라보았다.

《아버님이 김일성장군님이시지요.》

《!!》

대장로인은 깜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는 휘둥그레진 눈으로 어린이와 이쪽으로 오시는 녀인을 번갈아보았다.

김정숙어머님이시였다. 하지만 로인은 김정숙어머님을 모르고있었다.

《보아하니 평백성이 분명한데 장군님의 아드님이시라니 그렇다면 녀사께서는...》

전설속에 그려오던 항일의 녀성영웅! 아, 저분들이 김정숙녀사와 아드님이시란말인가!

로인은 정중히 큰절을 올리었다.

...그 시각부터 야장간에서 메질소리가 더 높이 울리었다. 강반에서 노래소리가 더 높이 울리었다.

에서 대자연개조의 첫 닦이 올랐거니 보통강이여 락원의 강이여! 나는 어머님 계시지 않는 오늘 눈굽을 적시며 네 기슭을 바라본다.

## 13 층짜리 《집》

마음속에 기쁨을 안고 가슴속에 노래를 안고 찾아가는 해방산기슭 도산리유치원 길-

걸음에 나래돌쳐 달려가는 그 길이건만 나는 창광거리 웅장화려한 고층집앞에서 잠시 발걸음을 멈춘다.

아슬한 락원의 창가에서 손자녀석을 추켜안고 웃음짓는 할머님의 얼굴, 붉은넥타이 날리며 바이울린 활을 굶는 소년의 눈빛... 창가의 저 모습은 그날의 아드님의 구상이 저렇듯 그림처럼 솟아난것이다.

그래서 나는 걸음을 못옮긴다. 력사의 증견자가 된듯 영원한 화강석표식비처럼...

해방의 환희속에 그날도 유치원마당가에서는 아이들이 행복에 겨워 뛰놀고있었다.

구슬같은 모래알을 밟으시며 아드님께서는 동무들과 같이 집짓기놀이에서 여념이 없으시였다. 새조국건설의 벽찬 현실은 아이들의 놀음에도 비

끼엿던것이다.

어떤 아이들은 한층짜리 《집》을 지어놓고 만족해하였다. 또 어떤 아이들은 2~3층짜리 《집》을 쌓아올리고 기뻐서 손벽을 치며 환성을 올리였다.

하지만 아드님께서는 다른 아이들이 지은 《집》과는 전혀 다른 13층짜리 《집》을 세워놓으시고 동무들이 지은 《집》을 둘러보시였다.

동무들은 모래산기슭에 우뚝 솟은 13층짜리 《집》을 황홀히 바라보며 어리둥절해하였다.

아드님께서는 한동안 깊은 사색에 잠기시였다가 동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우리 아버지가 그러시는데 이담에 우리가 크면 모두 이런 높은 집에서 살게 된답니다.

그러면 참 좋겠지요!》

아이들은 그 말이 옳다고 아드님을 둘러싸고 짱충짱충 토기뿔을 뛰면서 환성을 올리고 만세를 불렀다.

유치원마당은 떠들썩하였다.

어리신 아드님의 뇌리에는 벌써 그날에 먼 미래가 내려쬄던것이다.

13층짜리 《집》.

이 얼마나 대범한 성품과 숨씨가 깃든 집이며 이 얼마나 넓은 궁냥과 크나큰 포부가 담겨진 집인가.

아버지장군님께서 구상하시는 혁명의 장래와 조국의 앞날에 대한 비범한 탐구력과 예지로 빛나는 사색을 우리 어찌 다 헤아릴수 있었으랴.

나는 고개를 들고 황홀한 창광거리를 바라본다.

나의 눈앞에는 13층짜리 《집》들이 준비하게 서있다. 천리마거리, 비과거리, 락원거리, 문수거리... 영광스러운 우리 당이 세워준 사랑의 집이다. 그속에 인민의 행복전부가 있는 사랑의 탑이다.

정녕 행복의 탑이여라.

하기에 내 이 자리에 력사의 증견자로 영원히 서있고싶다. 화강석표식비처럼...

## 《지》자에 깃든 이야기

여기는 해방산마루, 저기가 유서깊은 그곳이구나.

정갈한 유치원마당가에 들어선듯 오늘도 글소리 랑랑히 들려온다.

나는 경건히 옷깃을 여미고 심장의 박동을 진정하며 조용히 귀 기울인다,

해빛은 하늘에 따듯이 무늬를 짜고 번거로운 수도의 거리는 이 순간을 위해 다정히 침묵을 지

켜주는듯싶다.

...유치원 말만들기시간이었다.

《자, 이제부터 《오》자와 《지》자를 가지고 말만들기를 하겠습니다.》

교양원은 흑판에 이 두 글자를 써놓고 아이들을 살펴보았다.

아이들은 앞을 다투어 자리에서 일어났다.

《오빠.》

《오이.》

다음은 《지》자를 가지고 말만들기 차례였다.

아이들은 서로 얼굴만 쳐다볼뿐 입을 열지 못했다.

《생각한 어린이들은 손을 드십시오.》

교양원의 말이 떨어지자 오직 손을 높이 드는 어린이는 아드님혼자이시였다.

그이는 자리에서 일어서시어 《지구》, 《지도》, 《지주》라고 거침없이 대답하시였다.

유년기의 동심과는 멀리 앞선 그 단어는 다른 애들에게는 너무도 놀라와 모두들 아드님의 얼굴만 쳐다보았다.

교양원이 재차 그 단어의 뜻을 묻자 아드님께서 지구란 우리가 살고있는 땅덩어리이고 지도라는것은 우리가 살고있는 땅덩어리를 종이우에 그린것이며 지주란것은 땅을 혼자서 독차지하고 농민들의 피땀을 짜내어 혼자만 잘먹고 잘사는놈이라고 알기 쉽게 설명하시였다.

진정 어리신 나이에 하나의 단어를 만들어도 좁은 생활의 울타리에서가 아니라 사회정치적, 계급적문제로 폭을 넓히시고 세계적인 범위에서 사물현상을 호상 련관시켜 뜻을 펼쳐가시는 영특한 예지와 창조적인 사색!

반생을나마 산 어른의 생각으로 나는 유년기에는 누구도 도달할수 없었던 그 높은 경지를 우리른다.

그것은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께서 품안아키우신 아드님의 예지와 사색이다.

나의 눈앞에는 아침에 신문을 보시고 나와 유치원마당에 《김일성장군 만세!》 《민주조선 내 나라》라고 큼직큼직하게 쓰셨던 그 글발이 찬란히 안겨온다.

나는 생각한다.

글이란 인간의 행복을 위해 세상에 태어난것이라고.

그러므로 아드님께서는 지주도 착취도 없는 민주조선 내 나라, 그것을 마련해주시는 김일성장군님께 대하여 단어를 만드신것이다.



나는 오래도록 유서깊은 그곳에서 눈길을 못 떼다. 너무도 많은 사연 어려와 뜨거운 경모의 정 안고 불멸의 사적이 깃든 곳곳을 더듬어갈뿐이다.

## 《경위대원》

한그루 나무에도 한알의 조약돌에도 거룩한 자욱이 어리었구나.

나지막한 유치원언덕길, 어머님과 동생의 손목을 잡고 들어서시면 선생님이 반기며 달려나와 맞던 그 길!-

나는 걷는다.

나는 그날의 로투사와 함께 끝없이 사연을 속삭이며 사색의 심연속을 걷고 또 걷는다.

감격은 복받치고 생각은 바닥을 모르누나. 친위전사의 본분을 따르는 마음 영원히 그렇게 살나의 마음아.

로투사의 이야기는 계속된다.

《...어느날 증조할아버님이 계시는 만경대로 가실 차비를 하시던 아드님께서서는 어머님께 문득 자신의 고향이 어딘가고 물으셨습니다.

어린 동심에서 오는 우연하고 례사로운 물음이 아니었습니다.

아드님을 잠시 바라보시던 어머님께서서는 인자하신 음성으로 이렇게 대답하시었습니다.

<네 고향이야 백두산이지 어디겠니. 너의 고향은 조선에서 제일 높은 백두산이란단다. 백두산은 천지가 있고 나무도 많고 또 아버님께서 왜놈들을 때려눕힌곳이란단다.

너도 크거들랑 백두산에 가보아라.>

이 말씀에 이어 어머님께서서는 아버님의 고향은 만경대이고 어머니의 고향은 회령이고 너의 고향은 빼앗긴 나라를 찾기 위해 아버님을 모시고 어머니도 함께 싸운 백두산이라고 재삼 감명깊게 말씀해주시었습니다.

하루는 전우들이 어머님께서 고향을 방문하실 것을 권고하자 장군님께서 건국사업에 바쁘시고 더우기 반동들이 날뛰고있는 복잡한 조건에서 어떻게 장군님결을 떠나겠는가하고 하시면서 자신에게는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장군님을 보위할 하나의 임무만이 있을뿐이라고 말씀하시었습니다.

옆에서 이 광경을 목격하신 아드님께서서는 자신께서도 어머님처럼 아버님의 영원한 친위전사가 될것을 굳게 결심하시었습니다.

바람이 세차게 불던 어느날 밤이었습니다.

문소리에 깨어나신 아드님께서서는 밖에서 들어

오시는 어머님의 언손을 자신의 작은 손으로 감싸잡으시며 어디에 갔다가 오시는가고 물으시었습니다. 어머님께서서는 웃으시며 바람이 몹시 불기때문에 밖에 좀 나가보았다고 하시었습니다.

이런 밤이 거듭되었습니다.

어머님께서서는 의문을 가지고 자주 물으시는 아드님앞에 더는 같은 대답을 하실수 없으시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버님을 보위하는 경위대원이란단다.>라고 하시며 아드님의 머리를 쓰다듬어주시었습니다.

그 다음날이었습니다.

어머님께서서는 정문결 보초소에 나가셨다가 뜻밖에 어리신 아드님께서 나무총을 들고 똑바른 자세로 서있는것을 보시었습니다.

매우 놀라신 어머님께서서는 왜 그렇게 서있느냐고 물으시었습니다.

<나도 아버님을 보위하는 경위대원이예요.>

아드님께서서는 이렇게 담찬 목소리로 대답하시었습니다. 어머님께서서는 아드님의 행동이 너무 기특하시여 기쁨을 감추지 못하시었습니다.

아드님의 소행은 김정숙어머님의 마음이 그대로 옮겨진것이었습니다....》

어느덧 로투사의 눈곱이 아늑히 풀리며 조용히 이슬에 젖는다.

로투사는 말이 없고...나도 살아온 지난날이 떠올라 입을 열지 못한다.

눈오는 겨울날이면 장군님께서 타신 자동차가 미끄러지거나 들출가봐 정문의 언덕길에 금모래를 정히 퍼군하시던 아드님!

혈기에 넘치여 뛰어다니시다가도 아버님의 방 앞에서는 조심히 발끝걸음으로 지나군하시던 아드님!

로투사의 추억은 나의 가슴에 불보다 더 뜨거움을 안겨준다. 그것은, 그것은 변함없는 친위전사의 본분이어라.

《나도 변함없는 경위대원이다!》

나는 속으로 이렇게 웨친다.

지금 나의 앞에는 머리에 흰서리가 내리도록 위대한 수령님의 친위전사로 늙어온 로투사가 걷는다.

그의 뒤를 내가 걷고 나의 뒤에 붉은넥타이를 맨 소년단원들이 따른다. ...

(다음호에 계속)

# 맥전나루

전병구

따뜻한 봄별은 버들가지 실눈을 한창 트이고 있었다.

봄의 계절을 맞은 대동강 물결도 유난히 푸른 빛을 드러내이며 맥전나루를 굽이돌고있었다.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의 탁월한 지도자이신 김형직선생님께서 조선국민회를 창건하신 날을 며칠 앞둔 어느날 나는 봉화리를 찾아갔다.

답사일행을 태운 자동차행렬들이 어느때없이 길을 메우고있었지만 이날도 역시 봉화리로 가는 길은 꽃물결로 흐르는듯싶었다.

차창너머로 흘러드는 푸른 물줄기를 바라보며 맥전나루를 가까이 하는 내 마음은 그 무슨 뜨거운것이 솟구쳐올라 걸잡을수가 없었다. 나와 함께 배스를 타고 오던 학생들도 차창가에 얼굴을 마주 대고 《맥전나루다!》 환성을 울리고있었다.

맥전나루! 그 얼마나 우리의 가슴속에 뜨겁게 깃들어있는 이름인가.

마치도 노래처럼 우리 인민의 심장속에 자리잡고있는 력사의 나루, 맥전나루, 우리 인민뿐만아니라 수없이 찾아오는 외국의 벗들에게도 투쟁의 불씨를 안겨주는듯 그 언제나 거세찬 흐름으로 기슭을 치는 이 나루, 가던 차를 멈추고 기슭에선 나는 숭엄한 생각을 안고 오래도록 걸음을 뻗 수 없었다.

1917년 봄 김형직선생님의 부르심을 받고 만경대에서 봉화리로 일가분들이 타고오시던 그날의 돛배 한척이 눈에 삼삼히 안겨온다

마중나온 내동부락사람들의 인사를 받으시며 이사짐을 내리시던 강반석어머님이며 어리신 수령님의 거룩한 자욱이 오늘도 빛을 뿌리고있는듯싶다.

일찌기 조국광복의 원대한 뜻을 품으시고 력사의 새벽길을 헤치시며 순화학교에서 교편을 잡으시던 김형직선생님께서 투쟁무대를 넓혀나가시기 위하여 내동부락으로 오신지도 어느덧 1년후, 가족이 오신다는 그 소식이 얼마나 반가우셨으련

만 이날도 바쁘신 일로 하여 나오시지 못하지 않으셨던가.

생각을 더듬을수록 가슴은 뜨거움에 가득차고 여울져흐르는 물결을 바라볼수록 마음은 그지없는 감격으로 설레이고있었다.

이날도 선생님께서는 우리 나라 반일혁명조직을 내오시기 위한 준비사업에 모든 지혜와 정력을 다 바치시고계시었다.

얼마후이면 평양에서 조선국민회를 결성하는 력사적인 회의를 소집하실 그날을 앞두고 하루에도 몇번씩 찾아오고 또 찾아오는 동지들을 만나시면서도 가족이 오신다는 소식은 뒤로 미루시고 명신학교의 교단우에 서계시었다. 것처럼 하나의 가정보다 나라를 잃고 통탄하는 이 나라 인민의 슬픔을 안으시고 광복의 려명을 불러오시며 새벽길을 헤쳐가시던 선생님의 거룩한 모습은 오늘도 이 나루에 어려있는것이다.

그토록 정력적으로 벌리어오신 준비사업에 기초하시어 1917년 3월 23일 평양에서 조선국민회 창건을 선포하시던 그 음성, 국내외의 여러곳에서 온 혁명동지들의 가슴가슴에 혁명의 불씨를 심어주시며 조선국민회의 목적과 투쟁강령을 밝히주시던 그 말씀은 오늘도 우리의 심장을 얼마나 뜨겁게 울려주고있는가!

《조선국민회의 목적은 전체 조선민족이 일치단결하여 조선사람자체의 힘으로 나라의 독립을 이룩하며 참다운 문명국가를 세우는데 있습니다.》

나라의 독립과 민족해방을 위하여서는 조선사람자체의 힘에 의거하여야 승리할수 있다는 투쟁의 그 선언은 일제의 사술에 묶이워 도란속에 파묻힌 이 나라가 나아갈 길을 밝혀주던 혁명의 라침판이었으며 이 라침판을 방향타로 혁명의 배가 닿을 올린 력사의 맥전나루가 아니겠는가.

그렇다,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의 길을 넓힌 력사의 나루, 투쟁의 나루이다.

하기에 갈길 잃고 헤매던 독립운동자들과 우국지사들도 선생님을 만나뵈오려 이 나루를 거쳐

찾아왔고 이 나루를 건너 삼천리 강토우에 조선  
국민회의 강령이 해살처럼 펼쳐가지 않았던가.  
한척의 돛배우에 몸을 싣고 인민의 단합된 힘이  
격랑처럼 설레일 혁명의 그 바다를 찾아 조선국  
민회원들은 떠나지 않았던가. 그 바다의 모래알  
들을 모아 폭풍에도 흔들리지 않는 조선의 억센  
바위를 다듬어 세우시려 선생님께서 또한 이 나  
루를 건느신 때는 그 얼마이랴!

때로는 황해도의 은률지구며 평안북도, 평안남  
도의 여러 지방에 나가시여 국민회원들과 독립운  
동자들에게 새로운 투쟁의 진로를 밝혀주신 선생  
님.

밤에도 편히 쉬실사이 없이 긴장한 나날을 보  
내고계시던 선생님의 일신상에 일시적이거나 위  
험이 닥쳐온 그 순간에도 발을 동동 구르며 옷소  
매를 붙잡고 울음을 터뜨리는 학생들과 마을사람  
들에게 웃음까지 지어보이며 걸음걸음 옮겨가신  
선생님, 그날 선생님께서 따라나선 한 국민회원  
에게 맥전나루에서 남기신 비밀쪽지는 단순한 비  
밀편지가 아니라 그것은 생사의 운명길에 가로놓  
인 조선민족을 구원하시려는 선생님의 불굴의 의  
지였으며 죽어도 조직의 비밀을 지켜내야 한다는

철석같은 혁명가의 절개를 안겨주신것이다. 강물  
도 순탄하게 바다로 흘러가지 않듯이 혁명의 그  
길은 곡절도 많았거니 투쟁의 닳을 올린 이 나루  
를 거쳐 선생님께서 넘고넘으신 혁명의 나루는  
그 몇몇이나 되었던가.

3천리 강토를 어두운 감옥으로 만들고 이 나라  
인민들을 노예의 쇠사슬로 묶어놓은 원썩들의 가  
슴팍에 민족의 준엄한 선고를 내리시며 평양감옥  
을 나오신 그날부터 눈보라 만리, 폭풍 만리 동  
터오는 압록의 푸른 장강 중강진나루를 건너 그  
얼마... 한평생 혁명의 나루들을 건느시며 새벽을  
맞으시였고 드디어는 밝아올 광복의 붉은 노을을  
불러오시였거니

아, 맥전나루, 맥전나루  
슬기론 민족의 넋을 안고  
어제도 오늘도  
혁명의 대하로 이 나라 인민들을 이끌어가는  
력사의 나루여 길이 전하라  
인민의 마음속에 영원한 노래로 가득차 흐르며  
...

## 바라노라

조성관

머리에 희뿌영게  
서리내렸다고 가을이던가  
끓는 피 높뛰는 젊음은  
혁명의 나날속에 되돌아오는것을

오늘은 어제와 같지 말고저  
래일은 오늘과도 같지 말고저  
심장의 고동이 높뛰는동안은  
당원중에 몸온기 서리는동안은

미리 말하지 말라  
투쟁의 한생이 끝나기에 앞서

돌이켜보아 지나온 길우에  
뉘우쳐 부끄러울 얼룩 사뭇 없다고...

계절이 가을이라고  
꽃마다 다 질손가  
찬서리속에 오히려  
피여 청초한 꽃도 있는것을

바라노라  
당원의 한생 마지막 총화는  
일가친척들 둘러앉은 침상아닌  
그 어느 전구 투쟁의 초소에서 맞기만...



《혁명적인 소설책들은 금보다 훨씬 값있습니다.》

김일성

위대한 수령님께서 높이 평가해주신 총서 《불멸의 력사》중의 장편소설들이 거둔 사상예술적성과들에 대한 지상토론을 이번호부터 진행한다.(편집부)

## 충성으로 빛나는 삶은 영원하다

장효홍

삶에 대한 이야기는 수없이 많다. 오랜 인류력사와 더불어 그것은 이리저리한 기록을 남겼고 많은 문학예술작품들에 옮겨져 못사람들의 공감을 자아내기도 했다. 하지만 태양의 빛을 받아 쉬임없이 반짝이는 저 하늘의 별들처럼 그렇듯 빛나고 그렇듯 영원한 삶, 이 세상 가장 고귀하고 아름다운 삶에 대한 이야기는 어디서나 들을 수 있는것이 아니다.

위대한 수령님을 모심으로 하여 조선의 공산주의자들과 인민들만이 누릴수 있는 영광찬 삶, 그것은 또한 당의 빛발아래 대전성기를 맞이한 우리의 주체적문학에서 가장 완벽한 예술적형상을 보게 되었다.

특히 총서 《불멸의 력사》중에서 장편소설 《준엄한 전구》는 조선혁명앞에 일대 준엄한 시련이 닥쳐왔던 간고한 시기 오직 위대한 수령님을 위하여 한목숨 바쳐싸운 오중훈을 비롯한 조선인민혁명군대원들의 형상을 통하여 수령님의 혁명전사는 어떻게 살며 싸워야 하는가 하는 혁명적인생관문제에 올바른 예술적해답을 주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일제침략자들을 반대하는 간고한 항일무장투쟁의 불길속에서 참다운 공산주의적혁명가들이 수많은 자라났습니다. 항일혁명선렬들의 견결한 혁명정신과 영웅적투쟁은 오늘 우리의 근로자들 특히 새세대들이 어떻게 살며 싸워야 하는가를 가르쳐주는 본보기로 되고있습니다.》**

총서 《불멸의 력사》중에서 장편소설 《준엄한 전구》에서 7련대장 오중훈은 영광스러운 항일혁명투쟁시기 위대한 수령님의 품속에서 주체형의 혁명가로 자라나 위대한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하였던 항일혁명투사 오중훈동지를 원형으로 하고있다.

보기 좋은 중키에 탐탁하고 역세계 생긴 체구, 그와는 대조적으로 등실하고 무뎌해보이는 얼굴에 너저처럼 쌍가풀진 어질고 맑은 빛이 흐르는

눈, 이것이 작품의 첫부분에서 독자들이 만나보게 되는 오중훈의 모습이다. 어딘가모르게 소박한 인정미가 느껴져 허물없이 마주앉아 이야기라도 나누고싶은 친근감을 준다. 그 어디에도 비범하다거나 《특이한》데를 찾아볼수 없는 온화한 모습이다. 하다면 과연 무엇이 그로 하여금 만사람이 따라배울 삶의 명마루에 올라서게 했고 물과 불 속에도 서슴없이 한몸을 내대며 지칠줄 모르는 투쟁의 한길을 걸어나갈수 있게 하였는가.

소설은 여기에 형상의 초점을 두고 오중훈의 성격을 다면적으로 깊이있게 그림으로써 오직 위대한 수령님을 위하여서만 뜨겁게 고동친 심장의 기록, 또 하나의 격조높은 충성의 서사시를 펼치고있다.

소설에서는 무엇보다도 혁명적수령관을 신념과 의리로 간직하고 위대한 수령님을 진심으로 높이 받들어모시며 충성다해 따르는 오중훈의 성격적인 핵을 구체적인 생활화폭을 통하여 심오하게 밝혀내고있다.

《문병》왔던 배정식으로부터 사령관동지께서 추석이 며칠 안남았다고 하시더라 말을 듣자 즉시 병원을 뛰쳐나와 명절물자를 해결해보내며 회군명령을 받고 허위단심 달려온 사령부에 사령관동지께서 계시지 않음을 알고는 우리들이 체구실을 쓰게 못하여 사령관동지께서 이 어려운 때에 몸소 험지를 다니시게 한다고 가슴을 치며 자책하는 오중훈, 이튿날새벽부터 대원들을 데리고 매일같이 마주나가보군하다가 적정을 알게 되자 사나운 비바람을 뚫고 불철주야로 달려가 적을 삼대 쓰러놓히듯하고 사령부의 안전을 철저히 보장하는 오중훈, 그의 이러한 눈부신 활동을 통하여 우리는 스쳐지나는 한마디의 말에서도 위대한 수령님의 의도를 파악하고 그이께서 심려하시는 문제라면 분초를 다투며 기어이 해결하고야마는 견결한 혁명가적기풍을 보게 된다. 또한 위대한 수령님의 절대적인 안녕을 보장해드리는것을 최고의 의무로 여기고 수령님의 신변과 관련된 문

제라면 비록 천리나 만리밖의 일이라 해도 전적으로 자신이 책임져야 한다는 그의 티없이 맑고 깨끗한 혁명적진념을 보게 된다.

전투에서 그렇듯 용맹을 떨치던 그가 것처럼 뵈고싶던 사령관동지 앞에 나서게 되는 순간 군복소매끝에 생긴 탄환자국이며 마중나오게 된 리유에 대하여 루루히 변명하면서 꼭 소년처럼 당황해하는 모습은 또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것을 이야기해주는가. 충성으로 받든다는 말의 참뜻에 대하여, 수령과 전사간에 맺어진 그 무엇으로도 해아릴수 없는 혁명적의리에 대하여...

소설은 이러한 생활적전제들을 깔아주면서 혁명적수령관을 리론으로써가 아니라 신념과 의리로 간직한 사람만이 참다운 충실성을 발휘할수 있다는것을 생활적으로 진실하게 보여주고있다.

수령에 대한 충실성은 말로써가 아니라 혁명적 실천을 통하여 표현된다. 혁명군대의 지휘관인 오중훈에게 있어서 명령에 대한 무조건성은 체질화된 품성의 하나였다. 그것은 또한 위대한 수령님을 언제 어디서나 더 잘 보좌해드리려는 그의 변함없는 한생의 자세이기도 하였다.

오중훈의 기쁨, 그것은 사령관동지의 부름을 받고 가장 어려운 전투마당에 나서는데있었고 오중훈의 불안과 괴로움, 그것은 사령부의 행처를 알수 없고 적들이 자기에게로 달려들지 않는 때였다.

참으로 십년가까운 세월 병사로부터 분대장, 소대장, 정치지도원, 중대장을 거쳐련대장으로 자라는동안 그가 사령관동지의 명령을 받고 달려갔고 승리의 보고를 안고 달려온 그 길은 몇천몇 만리였으랴.

이 간고분투한 전투임무수행의 나날에 느닷없이 오중훈의 눈앞에 떠오르곤하던 두 얼굴이 있었다. 가름한 얼굴에 조심스럽게 내다보는 눈동자 그리고 무엇인가 말할듯말듯 들먹거리는 도톰한 작은 입술, 그옆에서 밥알같은 이발을 드러내고 오목오목 보조개를 지으며 해죽해죽 웃는 얼굴, 그것은 정다운 말 몇마디 나눠보지 못한 이해와 아들의 얼굴이었다. 그에게도 이처럼 단란한 가정성이 있었고 남편과 아버지로서의 의무가 있었다.

하지만 오중훈은 사령관동지를 받들고 따르는 길에 광복의 새날이 밝아오고 내 가정, 내 아들뿐이 아닌 온 조선민족이 한가정으로 살아갈 더 큰 행복이 약속되어있다는것을 알고있었기에 리별의 언덕을 넘어 싸움길로만 걸음을 다그쳤던것이다.

룩과송진공전투장면은 오중훈의 명령에 대한 무조건성, 그 집행에서의 무한한 헌신성과 희생성을 영웅적이며 격동적인 화폭속에서 감명깊게 보여주고있다.

치명적인 중상을 당하고도 전투지휘를 계속하는 오중훈의 모습, 솟구치는 선혈도 아랑곳하지 않고 권총을 쥔 손을 들어 지하포대를 불사르라고 부르짖는 오중훈의 형상, 그것은 말그대로 죽음을 모르는 불사신의 모습 그대로이다.

무엇때문이였으랴, 그가 죽음을 디디고 거연히 서있었던것은 과연 그 무엇이었으랴, 얼마 남지 않은 삶의 이 마지막순간에 그가 심장의 붉은 피로 새겨놓은것은!

그것은 혁명가는 죽는 순간까지도 혁명을 하여야 한다는 높은 자각, 사령관동지의 명령을 관철하기전에는 죽을 권리도 없다는 철석같은 신념이었다.

《작전은... 인제 겨우 시작되었는데... 그이 결을 떠나다니...》

《울지 말고 동무들이... 나를 대신하여... 장군님을 잘 모시고... 철범이... 배정식이... 조진범동무들에게두 내 부탁을...》

이 얼마나 우리들의 가슴을 뜨겁게 울려주는 말인가!

오중훈에게 삶에 대한 미련이 있었다면 그것은 사령관동지께서 구상하시는 작전을 끝까지 보좌해드리지 못하는것때문, 오중훈에게 삶에 대한 욕망이 있었다면 그것은 오직 장군님을 더 잘 모시기 위해서만 필요되는것이였다.

아, 이 간절한 녀원, 다하지 못한 정성만 남겨놓고 오중훈의 삶은 여기서 끝나고마는가.

아니다. 결코 그럴수 없다.

력사가 아바와 같이 목적이 없고 신념이 뚜렷치 못한 삶은 육체의 죽음과 함께 끝난다. 하나 혁명을 위한 삶, 수령을 위해 바쳐져 충성으로 빛나는 삶은 영원하다!

소설은 이 불변의 진리를 오중훈이 전사한 다음 사령관동지와 여러 인물들의 절절한 체험세계와 미묘하고 구체적인 심리정서적세부들의 묘사를 통하여 예술적으로 힘있게 확증하고있다. 여기에 바로 총서 《불멸의 력사》중 장편소설 《준엄한 전구》가 거둔 높은 사상예술적성과의 하나가 있는것이다.

오중훈인 죽을수 없다고, 꼭 살려내야 한다고 것처럼 간곡히 다짐하시였건만 오늘에 와서는 믿지 않을수 없는 엄연한 현실로 된 사랑하는 전사의 희생을 두고 그토록 가슴아파하시는 사령관동지의 체험세계는 참으로 숭엄하며 비분강개하시다.

천막벽에 너울거리는 그림자를 보시고도 금시 오중훈이 들어서는데듯하여 부르면 언제나 대답하고 나서던 그 무게있고 은근한 목소리와 침착하고도 정력에 넘치는 그 얼굴을 그려보시며 침식까지 다 잃으신 사령관동지께서는 위로해드리

최인관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지만 저는 그깟 왜놈들은 수십만이 아니라 수백만을 잡았다 해도 오중훈이와는, 우리 오중훈이와는 바꿀수가 없어서 그럼니다.》

준엄한 혈전의 길에서 오중훈이 죽음으로 높이 산 삶의 진가를 헤아리시고 그것을 최상의 높이에 올려 세워주시는 이 은정깊은 말씀!

전사는 수령을 위하여 한목숨 바치고 수령은 그 충성을 헤아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아름답고 고귀한것, 영원한 생명을 안겨주는 혁명의 길을 밝혀주는것, 바로 여기에 인류가 오랜 세월을 두고 이처럼 모색해오던 참다운 삶의 길이 있으며 하나의 잘 정제되고 완성된 생활철학이 있는것이다.

소설은 사령관동지께서 지니고계시는 웅심깊은 사랑과 고귀한 혁명적의리를 몸가끼에서 뜨겁게 느껴오던 최인관, 슬픔을 깨물고 런던장이 즐기던 노래를 부르며 그가 바라던 기관총수로, 분대장으로 자라는 장호, 리철범이, 배정식이, 영남이 등 각이한 인물들의 체험세계를 통하여 그것을 형상적으로 더욱 강조하고있다.

소설에서는 또한 오중훈의 체취가 그대로 풍겨오는 오이통졸임이나 찹쌀, 수첩과 기관총 같은 심리적인 세부들을 골라잡고 마땅한 계기들마다에서 그것을 정서적으로 깊이있게 풀어나감으로써 작품의 마지막까지 전우들과 함께 말하고 생활하는 오중훈이를 보여주고있으며 작품의 고조된 감정정서를 계속 앙양시켜나가고있다.

오중훈이가 설명절날 사령관동지의 상에 올리고 영남이한테 맡겨두었던 한통의 오이통졸임, 그것을 눈물겨웁게 바라보시는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 동지의 심중을 통하여 우리는 주정토로는 얼마나 절절하고 가슴저미는것인가.

《참으로 꿈같은 일이다. 북만의 동지설달 눈이 강산으로 쌓인 이 밀림속에서 새파란 오이가 생기다니!... 몸은 죽어도 죽지 않는 오중훈의 충정이 눈보라 사나운 이 밀림속에서 그대로 푸른 열매가 되어 소생한것이나 아닐가!...》

푸르싱싱한 열매처럼 죽지 않고 소생하는 삶에 대한 이 충격적인 정서적흥분은 수첩세부에서 더욱 고조된다.

온 숙영지가 잠든 깊은 밤, 오중훈이 남기고 간 수첩과 공책을 보시고 또 보시며 공연히 과정안에 대한 말을 비쳐 그에게 큰 부담을 끼쳤다고, 생애의 마지막길에서까지 휴식 한번 제대로 시키지 못했다고 그리고 가슴아파하시던 사령관동지께서는 그의 만아들과도 같은 4 중대, 그가 맡기고 간 런던을 더 잘 키우는것이 그에 대한 의리를 지키는 길이라고 확신하신다. 하기에 그이께서는 돈화원정작전의 위대한 승리를 총화하시고 군정훈련의 시작을 선포하시는 의의깊은 마당에

서 전군의 병사, 지휘관들을 모두 쇠소리나는 혁명가로 만들어 한사람의 오중훈이를 잃은 대신에 수백명의 오중훈이를 키워내자고 것처럼 격조높이 말씀하시는것이다. 그 웅심깊은 사랑을 지니시고 4 중대가 학습에서 모범을 보였을 때에는 오중훈인 값지만 그가 키워낸 4 중대는 여전히 앞장서나간다고 이처럼 기뻐하시고 1 기군정훈련을 마친 날에는 중훈이가 물어둔 무기와 탄약을 파와야겠다고 하시며 그를 또다시 부대의 전열에 세워주시는 사령관동지!

바로 그 위대하고 다함없는 사랑의 품이 있기에 오중훈은 여전히 동지들속에, 그를 친형처럼 믿고 따르던 런던의 대원들속에 같이 있지 않는가. 그 정신, 그 공적과 함께.

그렇다!

혁명가의 영예로운 삶도 위대한 태양의 빛을 받아야만 보석처럼 빛날수 있고 은혜로운 사랑의 그 품속에서만 눈비바람 모르는 영생의 꽃으로 활짝 피여날수 있는것이다. 이 심오한 사상을 철학적으로 깊이있게 밝혀낸 여기에 또한 총서 《불멸의 력사》중 장편소설 《준엄한 전구》가 세기를 넘어 작용하는 건인력을 가진 혁명의 교과서로, 생활과 투쟁의 힘있는 무기로 되게 한 비결의 하나가있다.

길지 않은 한생을 통하여 평범한 삶으로는 백년을 산다 해도 다 알수 없는 인생의 참된 가치를 똑똑히 깨우쳐준 오중훈, 독자들의 가슴에 지울수 없는 인상과 충격을 안겨주며 천만가지 물음에 하나의 기준으로 대답을 주던 오중훈이, 그는 오늘도 살아있으며 영원히 우리와 함께 있다.

혁명의 수도 평양을 우리려, 당중앙 불빛을 지켜 한밤을 지새는 초병들의 밝게 빛나는 눈빛속에 새 임무를 받아안고 흥분된 마음으로 초소를 향해 가는 일군들과 당원들의 드높은 숨결속에, 《속도전》기발을 앞에 날리며 산악도 떠옮길 기세로 달려가는 청년돌격대원들의 힘찬 발구름속에 오중훈의 불보다 뜨거운 충정이 맥맥히 넘쳐 흐르고있지 않는가.

어찌 그들뿐이라.

위대한 조선의 해와 별을 우러러 따르는 하나의 목적, 하나의 지향, 하나의 신념으로 하여 그대오는 날이 갈수록 세월이 흐를수록 끊임없이 늘어나리니 그들은 눈빛도, 숨결도, 발걸음도 항일의 전위투사들이 세워준 충성의 기준에 하나로 맞추며 세대와 세대를 이어 오직 한길로만 나아갈것이다.

위대한 수령님을 위하여!

영광스러운 당중앙을 위하여!

아, 충성으로 빛나는 삶은 영원하다.

## 불굴의 투지, 혁명적동지애

방형찬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들이 지녀야 할 사상정신도덕적풍모를 깊이있게 형상하여 그것을 본보기로 사람들을 주체의 혁명적세계관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는것은 혁명적문학예술의 가장 숭고한 사명이다.

총서 《불멸의 력사》중에서 장편소설 《준엄한 전구》는 위대한 수령님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가운데서 대부대선회작전의 빛나는 승리를 서사시적화폭으로 펼쳐보이고있는 혁명적대작이다.

장편소설 《준엄한 전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크나큰 사랑의 품속에서 성장해가는 항일유격대원들의 형상을 통하여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들이 지녀야 할 사상정신도덕적풍모를 전면적으로 폭넓게 형상하였다. 특히 이 장편소설에서는 항일유격대원들의 곤난극복의 정신과 혁명적동지애를 생활적으로 진실하게, 감동적으로, 깊이있게 보여주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항일무장투쟁의 전과정은 항일유격대원들이 혁명적동지애의 고상한 미풍으로써 온갖 간난신고를 이겨내며 일제와 싸워이긴 영광스러운 투쟁로정이였습니다.》**

항일무장투쟁의 전과정은 그 어느 시기를 물론하고 다 어렵고 간고하였지만 대부대선회작전을 진행한 당시는 특히 어려운 시기였다. 조선인민혁명군의 눈부신 활동에 의하여 심대한 정치군사적패배를 거듭해온 일제는 이 시기에 이르러 궁지에서 헤어나보려고 미친듯이 발악하였다. 놈들은 《동남부치안숙정특별공작》이라는 악명높은 《로벌》 작전계획을 정식으로 채택하고 20여만명의 대병력을 동원하였으며 인민들에 대한 류혈적인 탄압만행을 감행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적들의 기도를 천리혜안의 예지로 통찰하시고 령활무쌍한 전략전술로써 놈들을 여지없는 파멸으로 몰아넣으시였고 조선혁명의 양양한 전도를 개척해나가시였다.

대부대선회작전의 승리를 보장하기 위한 돈화에로의 원정은 헤아릴수 없는 난관과 애로를 헤쳐나가지 않으면 안되였던 간고한 원정이였으며 앞뒤에서 달려드는 적들과 싸우며 나가야 했던 실로 걸음걸음 피어린 혈투의 로정이였다. 승냥이도 들어섰다가 무리죽음을 당했다는 천고의 원시림 목단령을 뚫고나가는것은 인간의 상상으로

써는 도저히 생각할수 없는 간고한 행군이였다.

오직 인간의 위대한 힘을 믿으시고 그에 기초하여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시는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만이 이 길을 뚫고나갈 결심을 하시였고 오직 위대한 수령님을 진두에 모신 조선혁명의 대오만이 이 원시림을 헤치고 승리의 상상봉에 오를수 있었던것이다.

50이 넘는 최인관의사와 스무살전의 어린 유격대원 김영남이 목단령을 헤쳐나가는 행군모습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명을 안겨준다. 더는 가지 못하겠다고 쓰러지는 최인관을 부축해주며 영남이는 신선이 되기 위해 도를 닦는다는 이야기를 불쑥 꺼낸다. 옛날에 산속에 들어가서 10년을 도를 닦으면 도통하여 신선이 되였다는 영남의 이야기는 그의 락천적성격을 보여주면서도 한편 유격대생활의 리치를 하나하나 깨우쳐주는 이야기였으며 유격대는 신선보다도 아마 몇갑절 어려운 도를 닦는거라고 최인관을 고무해주는 흥미있는 이야기였다.

《그래 도를 닦는데는… 얼마나 걸리요?…》

최인관의 물음에 영남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서너달, 반년, 일년, 그저 사람나름이고 마음먹기탓이지요. 십년을 따라다니다 도통하지 못하고 변절하는 사람도 있다고 해요. 힘이라는건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거지 팔다리에 있는게 아니래요. 장군님께서 가르쳐주신 말씀이예요.》

인간의 힘의 원천이 무엇인가를 위대한 장군님의 품속에서 배운 어린 영남이는 50대의 최인관의사를 걸음걸음 이끌어주는것이다.

실로 인간의 힘은 팔다리에 있는것이 아니라 그의 정신, 마음속에 있는것이다.

인간의 힘이 위대하다고 하는것은 또한 그것이 집단과 조직의 뭉쳐진 힘이라는데 있다.

혁명투쟁에서 중요한것은 조직과 집단의 단결된 힘이다. 혁명은 결코 혼자서는 할수 없다. 혁명투쟁에서 승리하려면 반드시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로 무어진 강유력한 혁명조직이 있어야 하며 그 조직에 들어있는 사람들의 사상의지적 통일과 단결이 보장되어야 한다. 하기에 조선혁명의 참다운 시원이 열려진 그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장구한 로정은 혁명적동지애가 가장 숭고한 높이에서 발양되여온 영광스러운 력사라고도 말할수 있는것이다.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들은 누구보다도 고결한 정치사상적 및 도덕적 풍모를 지니고있으며

인간을 끝없이 아끼고 사랑한다.

장편소설 《준엄한 전구》는 인간이 인간에게 줄수 있는 가장 높은 사랑의 세계를 펼쳐보여주고 있다.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새롭게 다시 소생하는 최성림의 성장과정은 실로 참다운 동지애의 고상한 미풍이 풍만하게 발양되는 과정이다.

최성림은 혁명앞에 뒤흔칠 못한 과거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며 동지들을 영영 잃을번한 인간이다. 그러나 위대한 사령관동지께서는 그의 뉘우침을 믿으시었다. 아무리 엄중하다고 하여도 참답게 뉘우치는 사람에게 파오는 헤어나지 못할 함정으로 되어서는 안된다고 보시었고 참답게 살아나갈 힘도 있는것이라고 믿으시었다. 그러기에 위대한 사령관동지께서는 우선 그를 굳게 믿으시고 풀어놓았던 총과 혁피를 다시 성림의 어깨에 메워주시고 대오에 세워주시었다. 이런 믿음, 이런 사랑이있었기에 성림은 고문의 형틀에 매어서는 혁명가의 절개를 지켜냈고 치명상을 입고 쓰러져서는 육신에 겹쳐드는 죽음을 물리쳤다. 위대한 사령관동지의 품을 떠날수 없다는 그토록 강렬한 열망이 두차례의 죽음을 이겨내게 하였던것이다.

위대한 사령관동지의 믿음과 사랑은 성림이의 심장속에 참다운 동지애와 혁명적의리의 귀중함을 사무치게 심어주었고 그를 불사신의 인간으로 키워주었다.

성림은 후방밀영의 전우들의 안전을 위하여 달려드는 《토벌대》를 맞받아 간고한 싸움을 벌리였으며 심한 부상을 당한 춘옥이를 구원하기 위하여 온갖 지성을 다하는것이다.

성림이가 춘옥이를 발구에 태우고 눈길을 헤치며 위대한 사령관동지의 품을 찾아가는 장면은 숭고한 동지애로 사람들의 심장을 울리는 가장 아름다운 인간생활의 극치이다.

그들은 혁명가였고 그들은 참다운 동지였다. 하기에 춘옥은 어떻게 하나 성림이를 위하여, 그 만이라도 위대한 장군님의 품으로 보내기 위하여 고열에 들떠 앞에서도 모든것을 참으며 자기를 남겨두고 떠날것을 간청하는것이다.

《아이참, 성림동문 정말... 혼자같으면 벌써 칠성령에 가당구두 남았겠는데 내가 뛰이라구 무거운걸 잔뜩 끌구 정말 내가 무슨 공주님이라구 이래요?》

《춘옥동무, 그건 모르는 소리요. 나한텐 동무가 공주님보다 더 귀중하지. 나는 동무를 의지하구 동문 날 의지하구 서로 의지했기에 살아나서 이렇게 부대를 찾아가는거 아니요? 동무가 없으면 난 한걸음 옮겨디딜 맥도 날것 같지 않소.》

《거짓말, 나는 그렇지만 성림동무야 나같은게 무슨 의지가 되겠어요. 마음뿐이지.》

《마음뿐이라는게 무슨 소리요. 마음의 의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우? 사람이 육신이 못견뎌 죽는게 아니라 마음이 못견뎌서 썩는다오. 장국산이와 옥매를 보우. 그것들이 우리 후방밀영에서 육신은 누구보다 멀쩡하지 않았소?》

성림에게 공주님은 하나도 귀중하지 않았지만 춘옥은 가장 귀중한 존재, 참다운 혁명동지였다.

동지가 있기에 사랑이 있는것이며 힘이 있고 의지가 생기는것이다. 성림은 제 한몸도 가누기 어려운 형편이었지만 발구에 춘옥을 태우고 눈길을 헤치고 또 헤쳐나간다. 춘옥은 또 춘옥이대로 성림이를 고무하면서 혁명의 노래를 부르고 또 부른다. 고열에 떠서 헛소리를 하면서도 그가 부르는 노래는 언제나 명랑하고 낙천적이다. 그토록 극복하기 어려운 곤난을 겪으면서도 승리와 희망으로 가득찬 명랑한 노래만을 부르는 춘옥의 정신세계는 얼마나 강의하고 아름답고 숭고한가! 그것 역시 동지를 위한것이었고 동지가 있기때문이었다.

그러나 어려움이 더해갈 때 춘옥은 다시금 성림에게 줄라댄다. 진심으로 동지를 생각한다면 동굴속에라도 남겨두고 혼자 떠나라고. 그러나 성림은 그렇게 할수 없었다. 그리고 그것은 자기를 옥하는것과 같다고 오히려 춘옥을 나무란다. 그것 역시 동지였기때문이었다.

그들의 사랑은 단순한 인간애가 아니라 가장 숭고한 혁명적동지애였다. 혁명적동지애가 그토록 숭고한것은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다함없는 충실성에 그 기초를 두고있기때문인것이다.

성림은 두고가라고 떼쓰는 춘옥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칠성령을 넘어 후방밀영 20명 대원들을 모두 데리고 사령관동지 앞에 가기전에는 우리는 죽을래도 죽을수가 없지 않소? 춘옥동무, 그이께서 두팔 벌리시고 웃으며 다가오시는 모습을 그려보우. 그리구 기운을 내란말이요. 응! ...》

이처럼 동지애에는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의 숭고한 발현인것이다.

성림이들이 가는 길은 어렵고 힘든 길이었다. 그러나 그들이 쉬임없이 그 길을 갈수 있는것은 그것이 위대한 장군님의 사랑의 품으로 잇닿은 길이라는것을 알고있었기때문이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품으로 끝없이 끝없이 이끌어주는 동지의 사랑, 이것이 참다운 동지애인것이다.

이처럼 장편소설 《준엄한 전구》는 혁명하는 시대 인간들,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들의 인간에 대한 참다운 사랑, 혁명적동지애의 정수를 감동적으로 펼쳐보여준 자랑스런 화폭이며 그 어떤 곤난도 곳곳이 이겨나가는 인간의 위대한 힘에 대한 자랑스런 송가이다.



## 항일의 불길속에서 꽃핀 군민일치

장영

장편소설 《준엄한 지구》는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위대한 군사전략가이신 경애하는 수령님의 탁월한 유적전법과 혁명전사들에 대한 숭고한 사랑을 빛나게 형상함과 함께 대부대선회작전의 준엄한 나날에 꽃핀 군민일치의 사상도 감명깊게 보여주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투쟁이 어렵고 난관이 겹쌓일수록 인민대중에게 더욱 철저히 의거하여 모든 시련을 이겨냈습니다. …조선인민혁명군 부대들의 군사정치활동에 고무된 인민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우리의 전투행동을 도와나섰으며 물심량면으로 우리를 적극 지지성원하였습니다.》

위대한 사령관동지께서는 인민을 믿으시고 인민들은 장군님을 받들어 우러러따르는 여기에 대부대선회작전이 승리한 힘의 원천의 하나가 있다.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에 대한 일제의 대규모적인 《토벌》공세가 극도에 달하고있던 그 시기 조성된 난국을 타개하고 혁명을 계속 양양으로 이끌어나간다는것은 결코 용이한 일이 아니었다.

조선인민혁명군 사령부가 자리잡고있던 올기강 밀영주변에도 적들이 득실거리며 포위진을 좁히고 있었으니 과연 이 준엄한 난국을 무슨 힘으로 어떻게 타개해나갈것인가?! 경위중대장 배정식과 정치위원 리철범을 비롯한 친위전사들이 초조한 마음을 달랠길 없어하는것은 너무나도 응당한 일이었다.

하지만 사령관동지께서는 급변하는 정세와는 인연이 없으신듯 조용히 사색을 이어나가시면서 각처에서 활동하는 부대들과 지방조직들을 여유작작 지도하고계시였다.

사령관동지께서는 바로 이 시기 적들의 발악적인 《토벌》공세를 짓부시기 위한 대부대선회작전을 구상하시면서 지방혁명조직과 인민들의 힘에 의거하여 동기작전의 예비물자를 마련하며 주력부대를 강철의 혁명대오로 더욱 튼튼히 꾸려나갈 준비를 갖추시였던것이다.

소설은 사령관동지께서 오중훈과 리철범을 비롯한 친위전사들을 각처에 보내시여 무기와 탄약, 식량 등 예비물자를 마련하게 하시고 자신께서도 직접 위험을 무릅쓰시고 량강구에 나가시여 인민들의 도움으로 동기작전준비를 갖추시는 장면들을 감명깊게 묘사하고있다.

이 과정에 사령관동지께서 칠성이 어머니와 상봉하시는 장면은 장군님과 인민과의 혈연적관계를 보여주는 생동한 예술적화폭으로 된다.

사령관동지께서는 칠성이 어머니를 만나시는 순간 돌아가신 강반석어머님을 뵈는것 같은 그런 심정이시였다.

칠성이네는 강반석어머님께서 살아계실 때 뜨거운 은정을 베풀어주신 일가중의 하나이다.

강반석어머님께서 칠성이가 급병을 만났을 때 단벌나들이옷을 팔아 약을 사다주시고 칠성이 어머니의 까마눈을 띄워 그를 혁명의 길에 내세워주시였다.

하기에 칠성이 어머니는 강반석어머님댁을 큰 집처럼 의지하며 살았고 어머님께서 세상을 떠나셨을 때는 남만에서 돌아오시는 장군님을 어머님 대신으로 맞아주시였다.

그토록 인연이 깊은 칠성이 어머니를 오래간만에 만나셨으니 사령관동지의 심정인들 어찌 깊은 감회에 잠기지 않으실수 있었으랴.

사령관동지께서는 칠성이일가의 안부를 물으시고 온 식솔이 혁명에 떨쳐나선것이 장하다고 칭찬도 해주신다.

소설은 사령관동지께서 그의 막내딸 복순이를 만나시는 장면을 이렇게 묘사하고있다.

《<오빠, 성주오빠!>

<오 복순아!>

사령관동지께서도 마주나가시여 복순의 손목을 잡으시였다.

<원 네가 이렇게 크다니 응 몰라보겠구나...>

사령관동지께서는 못내 감개무량하신 빛이었다.

<성주오빠 그동안 얼마나 고생 많았...>

복순이는 큰눈에 눈물이 글썽하여 쳐다보며 말을 맺지 못하였다. 그러나 둥실한 얼굴에는 기쁨이 담백 실리였다.

<성주오빠가 뭐냐. 장군을 보고...>

칠성이 어머니는 옆에서 이렇게 딸을 나무라며 눈굽을 찍었다.

<별말씀을 다합니다. 저는 십년가까이 처음으로 오빠소리를 들어봅니다.>

사령관동지께서는 복순이를 자못 정겹게 바라보시며 계속하시였다.

<그래 너두 청년회원이라지?>

<예.>

사령관동지께서와 나 어린 처녀가 주고받는 대화는 혈육처럼 가까운 사람들사이에서만 오갈수 있는 따뜻한 감정의 표시이다.

사령관동지께서는 이렇듯 소탈하고 다감한분이시며 언제나 인민들속에 계시면서 그들의 생활을 보살피시는것을 커다란 기쁨으로 여기신다.

《...저는 이번에 어머니와 여러분을 뵈고 마음에 큰 기쁨을 안고갑니다.》

량강구인민들과 헤어지시는 순간에 하신 이 말씀은 인민을 굳게 믿으시고 인민에게서 힘을 얻으시는 사령관동지의 주체의 혁명적신념에 대한 형상적표현이기도 하다.

그렇듯 마음속깊이 자리잡았던 칠성이 어머니 일가가 왜놈 마에다부대의 《토벌》로 참사를 당하였다는 소식을 들으셨을 때 사령관동지의 마음은 몹시도 아프시였다.

흥기대전투에서 마에다부대를 소멸하신 뒤 격전장으로 달려온 칠성이 어머니를 다시 만나신 사령관동지께서 하신 말씀은 얼마나 의미심장한가.

《나는 어머니의 모습에서 우리 조국의 모습을 보는것 같습니다. 아들 딸 며느리를 모두 잃고 가슴속에 피흐르는 상처를 안으신 어머니의 모습이 곧 수난에 찬 우리 조국의 모습이고, 그 모진 상처, 그 엄청난 슬픔과 고통을 가슴깊이 감추시고 한량없는 사랑과 믿음으로 우리들에게 용기와 신념을 안겨주는 그 성스러운 모습이 바로 우리가 구원하려고 싸우는 거룩한 어머니 조국의 모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동무들, 이처럼 귀중하고 자랑스러운 어머니를 위하여, 어머니를 모시고저 두만강을 건너가 3 천리강토에 자유해방의 종소리 땡땡 울릴 그날을 위하여 한 목숨 서슴없이 바쳐싸웁시다!...》

언제나 인민을 믿으시고 인민에게서 힘을 얻으시며 인민을 위하여 준엄한 혈로를 헤쳐나가는 사령관동지의 인민에 대한 헌신적복무의 이 고매한 사상으로 하여 인민들은 장군님만을 믿고 따른다.

칠성이 어머니가 한 다음의 말은 사령관동지에 대한 인민들의 다함없는 심정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다.

《장군은 장군 혼자몸이 아니야. 우리 조선백성들의 명운이 모두 장군의 몸에 달려있단말일세. 하루에 열백번 숨이 탁탁 막히구 얹이 캄캄해지는 일이 생겨두 백두산을 쳐다보구는 모진 마음 버티구 살아들간다네. 우리 백성들은 백두산에 구름만 끼여두 시름을 놓지 못한다는것을 부디 잊지 말라구...》

그 어떤 역경에 처하더라도 장군님께서 계시는 한 신심을 잃지 않게 되며 따라서 장군님의 안녕을 바라는것이 우리 인민의 심정이다.

하기에 인민들은 장군님을 위하여서는 모든것을 다 바치며 대부대선회작전의 승리를 위한 싸움길을 헤쳐나가는 조선인민혁명군을 물심량면으로 지원하는것을 가장 귀중한 의리로 여기고있다.

소설은 량강구인민들이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의 식량을 마련하는 사업에 적극 떨쳐나서고있는 장면과 함께 룡과송전투와 대마록구전투를 비롯한 여러 전투가 끝날 때마다 인민들이 로획물자를 지고 날라다주며 또 직접 손에 총을 잡고

혁명군대오에 참군하는 장면들을 감명깊게 보여주고 있다.

룡과송과 협신자에서 적을 친 뒤 집을 지고 따라나섰던 로동자들가운데서 200 여명이 참군하였는데 우덕근도 그들중의 한사람이였다.

우덕근으로 말하면 지난 가을 7련대의 분대장 관섭이와 장호가 올기강기슭에 자리잡고있던 사령부로 오는 도중 화룡땅에서 만났던 류랑민이였다.

그때 관섭이와 장호는 안해와 두 어린 자식을 데리고 화전으로 간다는 그가 하도 애처로와 쌀주머니와 지전 몇장을 쥐여주며 보태서 쓰라고 일렀다.

그러던 우덕근이 돈화땅에 이르러 어린 딸과 안해를 땅에 묻고 젓먹이를 남한테 주고서는 목재관을 떠돌아다니다가 참군하였던것이다. 그런 우덕근을 신입대원으로 맞이하였으니 관섭이와 장호의 기쁨은 컸다.

조선인민혁명군대원들은 어디 가나 인민들을 위하여 할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고 인민들은 또한 혁명군을 적극 도와나서며 자기들도 직접 혁명군대렬에 참가하는 이 혈연적련계야말로 항일의 불길속에서 꽃핀 군민일치의 미풍에 대한 축도가 아닐수 없다.

장편소설 《준엄한 전구》는 이와 같이 위대한 수령님께서 항일의 준엄한 나날에 마련하여주신 군민일치의 전통적미풍을 감명깊게 형상함으로써 사람들에게 또하나의 귀중한 양식을 주고있다.

장편소설은 군민일치의 사상을 형상함에 있어서 그것을 어느 한 장면이나 독립적인 몇개의 장면을 설정하는 식으로 해결한것이 아니라 작품의 전편을 관통하는 중요한 사상주제적과제로 내세우고있다.

소설은 량강구일대에 나가신 사령관동지께서 칠성이 어머니를 만나시는 장면에서 사령관동지와 인민의 혈연적련계를 보여준 다음 그 인민이 마에다부대의 《토벌》에 의하여 참사를 당하게 되고 그 소식을 들으신 장군님께서 인민의 원한을 풀어주시려고 복수의 전투를 조직하시며 나중에는 흥기대전투에서 마에다부대를 전멸시키시고 칠성이 어머니를 만나시는 장면으로 인민과의 련계선을 계속지음으로써 대부대선회작전의 전과정이 결국은 인민을 위한 작전이였고 인민의 지지성원속에서 벌어진 작전이였다는것을 강하게 안겨주고있다. 이것은 이 작품이 군민일치의 사상을 구성의 일관한 내용의 하나로 설정한 성과의 하나이다.

우리는 장편소설 《준엄한 전구》가 거둔 이상의 성과에서 우수한 경험을 따라배워 군민일치의 사상을 반영한 혁명소설들을 더 많이 창작하여야 할것이다.

# 래양의 품속에서 다시 찾은 삶의 길

오정애

총서 《불멸의 력사》중에서 장편소설 《준엄한 전구》는 대부대선회작전의 승리적로정에 대한 서사시적화폭인 동시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우리 인민들에게 베풀어주시는 끝없는 믿음과 사랑에 대한 송가이다.

소설은 그렇듯 간고하였던 준엄한 전구를 뚫고 대부대선회작전의 빛나는 승리를 이룩할수 있는 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인민에 대한 끝없는 믿음과 사랑, 끝없이 뜨거운 포용력과 숭고한 혁명적의리를 지니시고 각계각층 군중을 하나의 강력한 혁명대오, 반일민족통일전선에 굳게 묶어세우시어 혁명전으로 불러일으키신데 있다는것을 감명깊게 형상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것은 사람이며 가장 힘있는 존재도 사람입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지니신 인간에 대한 참다운 사랑과 크나큰 믿음은 세상에서 사람을 가장 귀중히 여기시며 힘있는 존재로 보시는 주체의 철학적원리에 기초한 드림없는 신념이시였다.

작품에서는 바로 위대한 수령님의 인민에 대한 이 숭고한 사랑과 크나큰 믿음이 있음으로 하여 혁명의 우여곡절속에서 시련을 겪으며 수난속에서 갈길 몰라 헤매던 최인관이 비로소 참된 삶의 길을 찾고 조국광복을 위한 성전에 참가할수 있게 되였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었다.

예수교신자이며 개인병원의사인 최인관의 혁명가로의 성장과정은 아버지수령님의 크나큰 믿음과 보살피심 뜨거운 포용력에 의한 한 인간의 재생의 과정이며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성에 대한 빛나는 화폭이다.

최인관으로 말하면 그는 대마록구거리에서 개인병원을 경영하는 의사이다. 그에게는 대마록구에 널담장을 둘러치고 함석지붕을 이은 아담한 병원이 있고 그 지붕, 그 담장안에 그가 50평생 꾸리고 길들인 생활, 그의 모든것, 그의 세계가 있었다. 세상사람들의 고통을 덜어주며 그들의 존경을 받는 사람된 도리와 량심, 하느님앞에 죄될것 없는 자기의 성실한 직업이 있고 인자한 로모와 어질고 착한 안해, 사랑하는 자식들, 단란하고 따뜻한 가정이 있었다. 그 직업과 그 가정은 최인관이 세상에 더 바랄것없는 자기 만족과 긍지의 전부였다. 어지럽고 소란하고 악덕에 찬 이 세상에서 자기 집 울타리안에나만 인간의 도리와 의리, 인정에 어긋나지 않는 자기의 세계를 유지

하고 살아온것을 자랑으로 여기는 그는 고요히 그 세계에 잠겨 여생을 마칠 생각이였다.

그러한 그에게 있어서 유격대의 생활은 너무도 놀랍고 리해할수 없는 상상밖의 세계가 아닐수 없었다.

왜놈들의 선전을 끝이곧대로 믿은것은 아니나 제나름으로 그려본 유격대의 생활이란 그가 50평생 살아온 세계와는 전혀 다른 세상, 범속한 인간사회의 모든 의리와 인정을 초월한 그 어떤 엄혹하고 무자비하고 가차없는 세계가 벌어지고있으리라는 예감으로 가득차있는 그런것이였다. 어찌면 그것이 젊었을 때 목격한 몸서리칠 지경으로 파격한 언사만 토하던 긴머리주의자들의 표상이 불러 일으킨 련상이였는지, 아니면 범속한 인간세상의 모든 구속을 벗어던진 사람들이 아니고 서야 어떻게 한낱 산속에서 먹고 자며 총을 잡고 포악한 왜놈들과 사생결단 전쟁을 할수 있으라는 선입감이 지어낸 표상이였는지 모른다.

그의 체험으로는 이 세상에서 의리, 인정, 사랑 따위의 온갖 인간성은 아름다운것이기기는 하지만 언제나 무력하고 나약한 존재로서 악덕과 무법, 포악과 잔인 등 온갖 비인간적인것에 의해 짓밟히는것에 불과하였다. 하물며 세상을 송두리채 뒤집어엎는 무서운 싸움에 나선 공산주의자들에게 바로 것처럼 후덥고 순결한 인간성이 간직되어있으리라고 어떻게 생각할수 있었겠는가.

작품에서는 최인관이 밀영병원에 들어와 위대한 수령님을 만나뵈게 되며 그자신 한달동안 산속에서 듣고 보고 체험한 모든 사실들을 통하여 장군님이시야말로 사람을 가장 귀중히 여기시며 인간의 도리와 의리를 지키시는 위대한분비시라는것을 가슴뜨겁게 느끼게 되며 그 과정에 그의 심중에서 일어나는 심각한 사상정신적변화에 대하여 깊이있게 밝히고있다.

《토벌대》가 씨글거리는 대마록구거리에까지 사람을 띄우시여 의사인 자기를 부르신 일로부터 시작하여 밀영어구에까지 나오시여 자기를 반갑게 맞아주시던 일, 정신 앓은 성림의 손목을 잡으시고 머리맡에서 밤을 꼬박꼬박 앉아 새우시던 모습, 성림을 꼭 살려내야 한다고 하시며 수술을 분부하시던 그 단호하신 음성, 귀중한 약까지 구해주시며 혁명전사의 운명에 대한 간절한 심정을 터놓으시던 뜨거운 말씀, 생각할수록 한사람의 운명을 위하여서는 너무나도 엄청나게 큰 정성이며 사랑이였다. 더우기 장군님께서 그토록 심려하시는 성림이 지난날 혁명을 배신할번한 엄중한

과오까지 범한 사람이었다는것을 알게 되었을 때, 또한 인관을 데려오는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논의가 많았지만 그이께서는 그래도 적으나마 그가 간직하고있는 의사로서의 량심을 귀중히 여기시고 그를 불러주시였으며 그에게 서슴없이 친위전사의 운명을 맡겨주시었다는것을 알게 되었을 때 최인관은 그 어디에도 비길수 없는 크나큰 환희와 감동에 휩싸이게 된다. 청년시절부터 교회당과 의학전문학교를 다니며 사랑과 헌신, 순결한 인간애를 갈구하던 그였으나 악착한 사회는 온갖 인간적인 모든것을 무참히 짓밟아버렸다. 그러던 그가 그렇듯 애타게 바라고 찾던 참된 인간애를 직접 체험하게 되었으니 그 감동과 놀라움을 말로써는 다 표현할수 없는것이였다.

과연 이것이야말로 참다운 의리, 인정이 아닌가.

이보다 더 큰 사랑과 믿음을 어데서 찾아볼수 있단말인가.

정녕 장군님의 한량없으신 의리와 인정, 넓은 도량은 50평생 박애와 인디아주의를 표방하여 살아온 그에게서는 도저히 체험할수 없는 위대한 인간의 사랑이였으며 그 어디에도 비길데 없는 가장 숭고한 높이의 믿음이지였다.

그리하여 최인관은 그 누구에게서도 본적이 없는 위대한 수령님의 크나큰 믿음과 뜨거운 포용력에 이끌리어 유격대생활에 대하여 느끼던 위구와 불안을 가시고 한생 유산자로 예수쟁이로 살아온 자신을 뒤우치며 공산주의자들을 영원히 따라갈수 없다고 생각하며 집으로 돌려보내달라고 장군님께 썼던 편지를 스스로 없애고 그후에도 하직인사를 드리려고 했던 결의를 포기한채 장군님을 우러러보고 또 보는것이다.

작품에서는 최인관이 난생처음으로 체험하는 위대한 수령님의 크나큰 믿음과 사랑을 감명깊게 보여주면서 위대한 수령님의 사랑이야말로 갈길 몰라 헤매는 사람들에게 길을 터워주시고 이끌어 주시며 억눌리고 짓밟힌 인민대중을 새로운 삶과 투쟁으로 불러주는 해불이라는것을 감동적으로 보여주었다.

작품에서 그의 이러한 사상정신적변화는 그의 체험에서뿐만아니라 짧은 순간이나마 유격대를 따라다니며 직접 목격하는 과정을 통하여 더욱 깊이있게 보여주었다.

비록 짧은 기간이었으나 최인관은 울기강으로부터 돈화지구로 이르는 간고한 돈화원정기간에 부대가 적의 봉쇄를 뚫고 짐승도 발을 들여놓지 못하는 천리원시림을 어떻게 돌파하게 되는가를 보게 되었으며 이 과정에 어린 영남이를 포함한 부대의 모든 대원들이 어떻게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높이 성장하게 되는가를 직접 보고 체험

하게 된다.

이를 통해 최인관은 대부대선회작전의 간고한 로정에 기울여진 위대한 수령님의 사랑이야말로 온갖 시련과 난관을 뚫고 승리를 이룩할수 있게 한 불패의 힘의 원천이며 투쟁의 해불이라는것을 새삼스럽게 느끼게 되며 이것은 그후 오중훈련대장의 희생을 두고 그렇듯 가슴아파하시는 장군님의 모습을 뵈는데서 더욱 굳혀지게 되는것이다.

오중훈의 봉분앞에서 너무도 원통하고 절통하시여 영결사도 채 끝맺지 못하시는 장군님의 모습에서 최인관은 여직껏 그 누구에게서도 볼수 없었던 가장 숭고한 높이에서의 인간애를 느끼게 되는것이다.

하늘이 다르다고 인정마저 다룰수 있으랴만 무시로 무수한 살생을 보지 않을수 없는 전쟁마당에 천군만마를 호령하시는 장군님께서 한 전사의 희생을 두고 그처럼 애대우시는 일이 최인관에게는 결코 레사롭지 않은것으로 여겨지는것이였다. 바로 장군님의 이 크나큰 사랑은 세상에서 버림 받은 사람들에게 인간의 가치와 삶을 다시 찾아주시고 영생하는 정치적생명을 안겨주시며 자신들도 모르던 인간의 귀중함을 깨닫게 하는 힘의 비결이였다는것을 그는 깊이 통감하는것이다.

전사들의 운명을 한몸에 체현하신 위대한 장군님!

진정 장군님은 군대를 지휘하시는 사령관이실 뿐만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운명을 전적으로 책임지시고 한몸에 맡아안으시며 반일민족통일전선의 기치밑에 우리 전체 인민을 힘있게 불러일으키시는 위대한 령도자이시다.

하기에 최인관은 장군님이시야말로 우리 전체 인민이 높이 우러러모셔야 할 위대한분이시며 우리의 모든 운명을 영원히 맡기고 따라야 할 어버이수령님이시라는것을 뜨겁게 느끼게 되며 그의 품에 안겨 살며 싸울 때 인간의 참된 가치와 도리를 찾을수 있다는 귀중한 혁명의 진리를 깨닫게 된다.

그리하여 최인관은 헤어날수 없는 심연속에서 다시 솟아오른 재생의 기쁨을 안고 자기의 운명을 전적으로 장군님께 맡기며 장군님의 령도를 받들고 그이께서 이끄시는 혁명의 한길에 자기의 모든것을 다바칠 굳은 결의를 다지게 되는것이다.

작품에서는 최인관이 위대한 수령님의 품속에 안겨 부닥치는 난관과 시련을 불굴의 의지로 극복하며 놈들의 고문과 회유, 기만 속에도 혁명적 지조를 꺾듯이 지켜나가는 투쟁과정을 통하여 그의 사상의식발전의 새로운 높이를 깊이있게 보여주고 있다.

그것은 재생의 길에 들어선 최인관이 집으로 돌아가라는 장군님의 권고에도 가지 않고 계속

부대를 따라다니며 자기 힘껏 유격대를 돕는데서, 대원들에게 의학상식강의도 하며 초약도 만들며 성령이를 대오에 세울데 대한 장군님께서 주신 과업을 끝까지 수행하기 위해 자진하여 후방밀영으로 가는데서 그리고 식량을 구하러 칠성자에 내려갔다가 놈들에게 체포되어 고문을 받는데서 집중적으로 그려지고있다.

특히 작품에서 놈들의 악착한 고문을 불굴의 의지로 이겨낸 최인관이 유격대에 의하여 구원받은 후 싸움의 길에 나설 용단을 내리고 유격대를 따라가는 마지막 장면은 위대한 수령님의 품속에서 최인관이 다시 찾은 삶의 길로 어떻게 힘있게 발걸음을 내디디는가를 보여주는 생동한 화폭이다.

《나는 한결음한결음 피자국 고이는 그 수천리 길을 따라가며 50평생에 처음으로 사람이 사는 참뜻을 알게 되었다. 내 비록 힘이 부치여 말은 소임은 다하지 못했지만 장군님을 따라가던 그 길에서 벗어나고싶지는 않구나.》

《...어데 가나 이제부터는 우리가 장군님을 따라나선 가정이라는것을 명심하고 깨끗하고 굳세게 살면 된다.》

집을 떠나며 자식들에게 하는 최인관의 이 말은 파란 많은 일생을 우여곡절속에 살아온 그가

말년에나마 장군님의 품에 안겨 나라와 인민을 위해 떳떳이 살고 일생을 마칠수 있다는 확고한 신념으로부터 우러나온 심중의 고백이며 웨침이었다.

또한 이것은 작품이 제기한 기본문제에 대한 대답이며 작품전반을 통하여 스스로 얻게 되는 귀중한 결론이기도 한것이다.

작품에서는 이와 같이 곡절많은 최인관의 생활 체험과 그가 태양의 품에 안겨 다시 찾은 삶의 길을 빛내어나가는 과정을 통하여 위대한 수령님의 사랑은 친위전사에게뿐만아니라 우리모두에게 돌려지는 위대한 사랑이며 이 사랑의 빛발아래 전체 조선인민이 태양을 따르는 해바라기와도 같이 위대한 태양의 품, 장군님의 품으로 흘러든다는것을 감동적으로 보여주었다.

참으로 총서 《불멸의 력사》중의 장편소설 《준엄한 전구》는 위대한 수령님의 크나큰 믿음과 사랑속에 각계각층 군중들이 하나의 강력한 혁명대오에 굳게 뭉쳐 조국광복을 위한 성전에 힘차게 나서게 되었다는것을 빛나게 형상함으로써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반일민족통일전선로선의 정당성과 그 생활력을 과시한 대기념비적결작이다.

## 어린 두 형제여

김학렬

아, 소년이여  
어린 두 형제여

어디로 끌려가느냐  
부모들은 어디나  
벗들은 어디메나

앞길에 무엇이 기다리고있는가...  
그 모든것을 이미 헤아려  
너희들은 밤도와 총 들고  
바리케트걸을 떠나지를 않고  
그리고 떳떳이 걸어가는구나

책가방 대신  
총칼을 등에 지고  
언제나 뛰놀던 그 길  
지금은 마치나 먼 나라의 사막길인듯

총칼사이  
그 무시무시한 순간임에도

동생의 머리우에 살머시 없어진  
나어린 형의  
그 보드라운 손의 마음

제 한몫 갹그리 바쳐도  
귀여운 동생을 위하여주는  
그 후더운 사랑이여  
그 티없는 마음씨여  
그 순진한 꽃넋이여

아, 언제면  
너희들 얼굴에 웃음꽃이 필가?  
너희들 두팔에 잔뜩  
어째서 행복만을 안겨주지 못할가?

입을 꼭 악문채  
그 깨끗한 눈길로  
하늘 맑은 래일을 부르며 나아가는  
아, 나어린 나의 동지여

## 보통강반의 달밤

리석

신선한 강바람에 어깨를 스치는 버드나무도 흐느적거린다.

강반의 잔물결도 달빛에 어울려 그 무슨 사연을 속삭이듯 가벼이 출렁이며 강기슭을 정답게 어루만진다.

얼마나 좋은 밤인가.

실실이 늘어진 버드나무가지들이 물결우에 드리워 춤을 추고 쟁반같은 둥근달이 휘영청 밝은 빛을 뿌리고있다.

걸으면 걸을수록 생각이 저절로 깊어지고 어디선가 실려오는 봄향기에 가슴이 몽클 젖어들어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되는 락원의 강기슭이다.

하루일을 마치고 돌아올무렵이면 자기도 모르게 이끌리어 나오게 되는 보통강의 이 달맞이!

예로부터 관서8경에 속하는 부벽루의 달맞이를 비롯하여 풍치 아름다운 고장에 깃든 전설같은 이야기들이 많이 전해내려왔지만 보통강에는 그러한 말이 어울리지 않았었다.

흐르는 물이 있고 나무들이 자라고 사람들의 생활이 오랜 역사를 내려오며 이 기슭에도 깃들었지만 보통강이란 말은 원한과 눈물의 대명사였다.

질병이 겹쳐들고 장마때면 물이 범람하여 가난한 사람들의 쪼들린 살림마저 무섭게 쓸어가던 이 강변에 사람들이 즐겨 찾는 아름다운 달밤이 생겼다.

이러한 보통강의 달밤을 어찌 나혼자서만 사랑한다고 말할수 있으랴.

나의 머리속에는 얼마전 이 유보도에서 건설기업소의 미장공으로 일하고있는 김동무와 만나서 이야기하던 일이 선히 떠올랐다.

그날도 나는 아름다운 보통강기슭에 자리잡고 있는 어느 한 경공업공장에 갔다가 오던 길이었다.

밤이 어지간히 깊어서인지 유보도를 걷는 사람은 없었다.

인민문화궁전부근에 이르렀을 때였다.

저발치에서 누군가 걸어오고있는것이 보였다. 무심결에 바라보니 내가 잘 알고있는 김동무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일흔돐을 앞두고 당원들

의 선봉적역할을 높일데 대한 문제를 가지고 개선문건설장에 나가 당원협의회때 만나본후 처음이었다.

김동무 역시 너무 반가와 내 손을 놓을줄 몰랐다.

이 밤중에 어디로 가는가고 하는 나의 물음에 김동무는 머뭇거리며 선뜻 대답을 하지 못하였다.

내가 다시 묻자 멧적은 표정으로 《달구경을 나왔지요.》 하는것이였다.

《이 밤중에 유보도에 나와 달구경을 다 하다니 원, 김동무 성미답지 않게...》

내가 믿지 않자 《여보, 당신은 거기에 멧청하니 서있지만 말고 내 말을 믿게 해주구려.》 하고 누구를 소리쳐부르는것이였다.

그러자 저발치에서 버드나무를 등지고 아이들의 손목을 쥐고 서있는 한 녀인이 머리를 다소곳이 숙이는것이였다.

나는 한동안 어리뻑뻑하였다.

김동무의 안해는 며칠전부터 영철이 아버지가 밤에 보통강유보도에 자주 나가자고 하기에 처음에는 무슨 새빠진 말을 하는가고 하였다는것이였다.

그도 그럴것이 언젠가 한번은 쉬는날에 아이들을 데리고 유보도에 나가 산보나 하자고 말했다가 꾸지람을 받았던 일이 있는 김동무의 안해였다.

그런데 얼마전부터 김동무가 아이들을 데리고 한번 유보도에 나가자고 하기에 처음에는 룡담을 하는줄 알았는데 보통강기슭의 아름다운 밤풍경을 자기 혼자만 보는것이 너무 아쉬워 그런다는 것이였다.

(아,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리니 김동무가 이 달밤에 안해와 아이들을 데리고 보통강반에 나온것이 그저 범상하게만 볼일이 아니구나.) 하고 나는 생각하였다.

금강의 메부리들처럼 하늘을 찌를듯 들쭉날쭉 키돋움하며 일떠선 창광거리의 현대적인 다층주택들과 천리마거리에 솟은 인민문화궁전, 체육관, 빙상관과 청류관, 창광원... 그리고 그우에 걸려있는 둥근달은 참으로 장관이였다.

물위에 비낀 그 모습은 실로 한쪽의 아름다운 그림 같았다.

《리동무, 지난날 원한의 강으로 피눈물만 넘쳐나던 이 강기슭이 내 어린시절이 흘러간 고향이요, 락원의 강기슭에 행복의 보금자리가 웅단처럼 펼쳐졌는데 이 황홀함을 내가 어찌 혼자서 볼 수만 있겠소. 철부지시절에 최승대나 부벽루에 올라가 맞던 달맞이를 여기에서 볼줄이야 어디 꿈엔들 생각이나 했겠소.》라고 말하며 김동무는 깊은 생각에 잠기는 것이었다.

나의 생각 역시 깊어졌다.

피눈물이 고이던 이 강기슭에, 사무친 원한이 쌓이고 쌓이던 이 토성랑에 언제부터 행복의 보금자리가 펼쳐졌던가!

위대한 수령님께서 항일의 혈전속에서 쌓이고 쌓인 피로도 푸실 사이 없이 보통강개수공사를 발기하시고 1946년 5월 21일 바로 그날에 력사적인 첫삽을 뜨시면서 우리 조국을 인민의 락원으로 전변시킬데 대한 휘황찬란한 설계도를 펼쳐 주신 그때부터가 아니었던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보통강개수공사는 평양시민들이 애국적인 로동으로써 민주주의 새 조선 건설에 기여하는 첫 사업이며 해방된 우리 인민이 처음으로 하는 대자연개조사업입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보통강개수공사착공식에서 하신 격려사와 몸소 쓰신 첫삽은 해방된 우리 인민을 새 조국 건설에 힘있게 불려일으키는 고무적기치였으며 조국땅을 락원의 강산으로 전변시키는 거창한 대자연개조의 장엄한 서곡이었다.

하기에 우리 평양사람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호소를 높이 받들고 일제가 10년이 걸려서도 할수 없었던 방대한 보통강개수공사를 단 55일만에 끝내는 기적을 창조하지 않았던가.

새 조국 건설의 벅찬 숨결을 안고 들끓던 그 날에 김동무는 개수공사장에 펼쳐나선 어머니의 손목에 이끌리어 그곳에 자주 나오곤하였었다.

하루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어머니와 함께 등실 솟아오르는 달을 바라보며 《야!》 하고 환성을 지르던 잊지 못할 그 밤이 이처럼 하나의 절경으로 펼쳐질줄이야 어떻게 다 알수 있었으랴!

위대한 수령님의 수도건설구상을 찬란히 꽃피워나가는 영광스러운 당중앙의 현명한 령도로 오늘 우리 평양에는 웅장화려한 건물들이 날마다

시간마다 키다툼하며 우후죽순처럼 일어서고있다.

오늘 우리 평양에는 웅장화려한 거리들과 그 독창성과 건축미에서 전혀 새로운 경지를 이루는 수많은 대기념비적건물들이 일떠서서 우리 나라의 도시건설과 건축예술의 높은 수준을 힘있게 과시하고있다.

참으로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중앙의 웅대한 대자연개조구상이 빛나게 실현되어 우리 나라는 관개의 나라, 억년 가물과 홍수를 모르는 나라로 되었으며 온 강산이 아름다운 하나의 모습으로 변모되고있는것이 아닌가.

생각할수록 가슴뜨거워졌다.

강물도 우리의 이러한 심정을 알아주는듯 달빛을 안고 잔물결을 조용히 일으켰다.

선선한 강바람을 따라 이는 보통강의 잔물결도 뜻깊은 그날을 잊지 말라는듯 가벼이 출렁이며 다심한 어머니의 입김인양 강기슭을 정답게 어루만졌다.

얼마나 아름다운 밤인가.

얼마나 많은 사연을 이야기하며 사람들을 뜨겁게 불러주는 것인가.

아, 보통강반의 달밤, 실로 그 무엇인가 많은것을 생각하게 하는 밤길이다.

김동무가 토성랑에 태줄을 묻고 가난속에 헐벗은채로 자랄 때 찌그러져가는 움막집만을 처량하게 비치던 달빛이 오늘은 천만사람들의 발걸음을 불러내는 락원의 풍치로 변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중앙의 한없이 넓고 따사로운 사랑의 해빛이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 시대의 《관서팔경》으로 보통강의 달맞이가 이 세상에 태여날수 있는것이라고 생각한다. 그것은 하늘의 그 어떤 조화로써도 이루어질수 없는 우리 인민의 행복상인것이다.

때문에 나는 보통강의 달밤을 그 누구보다도 무척 사랑한다.

아마 김동무도 그런 사연을 안고 안해와 아이들을 앞세우고 보통강기슭을 저렇듯 걷고있으리라.

태양이 없으면 유정한 달빛도 생각할수 없듯이 위대한 수령님의 사랑의 해빛이 있기때문에 우리의 생활속에 아름답게 수놓아진 보통강의 달밤을 력사는 자기의 세월속에 간직할수 있었던것이다.

보통강의 달밤을 즐기는 사람들이여,

력사의 그날 5월 21일을 잊지 마시라!

## 그들의 모습

김길

한옥심은 출근정형을 공장로동과에 보고하고 나서 창문옆 자기 자리에 가앉으려고 돌아섰다.

그때 《따르릉》하고 전화종이 야무지게 울리었다.

《예, 제관직장이예요. 직장장동지요? 예, 바뀌 드리겠어요.》

한옥심은 회의를 금시 시작하려는 직장장에게 수화기를 넘겨주었다.

직장장은 전화를 반갑게 받더니 한옥심에게 《통계원동무, 정석호아바이한테 좀 갔다오우.》하고 말했다.

《정아바이한테요?》

《그렇소. 수산사업소에서 어선의 제관일을 부탁하는구만. 꼭 정석호아바이를 보내달라구. 이틀이면 된다니까 이제 가서 돕고오라고 하우.》

《알겠어요.》

한옥심은 이마에 흘러내린 몇오리의 머리카락을 하르르한 빨간머리수건속에 살짝 밀어넣으며 사무실문을 나섰다.

그사이 바다며 조선소구내에 포근히 덮였던 젖빛안개는 그 어디론가 가뭇없이 사라지고 건조중에 있는 2만톤급 대형선박이 웅장한 자태를 내놓았다.

그옆에선 키다리 왁새기중기가 무슨 지휘자이거나 한듯 긴팔을 열성스레 휘둘러대고있었고 철관절단기며 면따기, 모래분사기며 용접기들은 각이한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고있었다.

한옥심은 쌍겹진 정기도는 눈에 미소를 담고 볼수록 가슴뿌듯해지는 작업장전경을 잠시 보고섰다가 제관작업장으로 사뿐사뿐 걸음을 옮겨놓았다.

그리 멀지 않은곳에서 아래우에 회색작업복을 가끈히 입고 로동화끈마저 꼭 졸라맨 오성묵이가 바깥쪽에 담은 카바이드를 통에 넣고있었다.

한옥심은 그리로 다가가자 동실한 얼굴에 웃음을 띠우며 《수고하누만요.》하고 정답게 인사말을 건넸었다.

키가 크고 호리호리한 오성묵은 잠시 일손을 놓고 아침이슬을 머금은 꽃송이마냥 한껏 청신하고 생기발랄한 한옥심의 모습에 눈을 주며 《현장료해야?》하고 스스럼없이 물었다.

그들은 얼마전에 조선전문학교를 졸업한 동창이었다.

오성묵은 이곳 조선소에서 정석호아바이처럼 이름있는 조선공, 당당한 혁신자가 되려는 희망

을 안고 제관일에 온갖 열성을 쏟아붓고있었다.

통계원 한옥심이 역시 현장을 알아야 통계일을 잘 할수 있다며 때에 가림없이 째시간을 내어 현장에 나오곤했다.

그래 오성묵이 이렇게 물은것이였다.

한옥심은 머리를 저으며 정석호아바이한테 심부름을 가는 길이라고 했다.

오성묵의 눈엔 부러움이 가득 어리였다.

《아바인 정말 대단해. 우리 공장뿐아니라 다른 기업소에까지 소문이 짜하게 났거든. 그래 중요한 일이 있을 때면 아바이를 청해간단말야. 정아바인 참으로 일하며 사는 맛이 있겠어.》

《아이참, 이제 성묵동무두 그렇게 되겠는데요 뭐.》

《거야 물론이지. 아바인 열네살때부터 일을 시작해서 스무살에 해방을 맞아 조선공답게 살기 시작했지만 우리야 사정이 다르지 않아. 나로부터 행복속에 컸거든. 그러니 난 정아바이가 1년에 한일을 열흘에 훌쩍 해내겠어.》

오성묵은 이리고나서 바깥쪽에 남은 카바이드를 통에다 꾸르르 쏟아넣었다.

한옥심은 그가 좀 희뽀뽀보였지만 그 결심이 마음에 꼭 들었다.

《그래야지요 뭐. 본때있게 일해서 정아바이처럼 꼭 혁신자가 되어야 해요.》

그때 저쪽 제관작업장에서 정석호아바이의 석침한 웨침이 들려왔다.

《여보게,카바이드를 다 넣었으면 빨리 오라구.》

오성묵은 한옥심에게 한눈을 찡긋해보이고 《예, 이제 갑니다.》하고 말꼬리를 길게 뽑았다. 그리고는 주머니에서 《용광로》를 한대 꺼내 손톱에 몇번 톡톡 그루를 치고나서 불을 붙여몰며 정석호처럼 스택스적 걸음을 옮겨놓았다.

(아이참, 담배에 그루를 치는거며 걸음씨가 어찌면 정아바이와 그리도 비슷할가.)

한옥심이 오성묵의 뒤를 따르며 혼자 웃었다.

정석호는 늘 줄담배를 피우면서도 새 가치를 갈아떨적엔 반드시 왼쪽 엄지손가락손톱에 탁탁 그루를 치곤했던것이다.

그들이 제관작업장에 이르니 너부죽한 얼굴에 돋보기를 낀 정석호가 빈 호박물부리를 손에 쥐고서 철관우에 퍼놓은 통풍통도면을 보고있었다.

그는 인사하는 한옥심에게 머리를 가볍게 끄덕이고나서 오성묵에게 《여기 앉으라구.》하고 자



기의 옆자리를 가리켰다.

오성묵은 도면을 대하자마자 피워물었던 담배를 열른 발로 뭉개버리고 정석호가 가리킨 자리에 가앉았다.

그걸 보고 한옥심이 또 저 혼자 생글 웃었다.

오성묵이가 도면앞에 서자마자 정석호처럼 담배불을 켜기때문이었다.

(참말 어찌면 꼭 그 본새일가. 아마 일도 정석호아바이처럼 그렇게 빈틈없이 할거야.)

한옥심이 입속으로 뇌이며 여기에 온 사유를 이야기하려는데 정석호가 허리를 쭉 펴며 돋보기를 벗어들었다. 그러한 그의 눈에는 언뜻 짙은 그늘이 비껴지났다.

(왜 그럴가?)

한옥심이 할말을 못하고 눈이 동그래서 정석호를 뵈히 쳐다보았다.

정석호는 담배가루가 흙에 버무러지고 담배를 썩던 얇은 종이가 산산조각이 난것을 보며

《여보게, 그제 무슨짓인가. 몇모금 빨지 않은 담배를 그 모양으로 만들다니.》 하고 심히 못마땅한듯 쫓쫓 혀를 찼다.

《원 아바이두, 담배 한대 가지구 뭘그래요. 쪼쪼하게스리.》

오성묵이 히죽이 웃으며 슬쩍 엮어넘기려들었다.

한옥심은 정석호가 《허 그너석》하고 웃어버릴 줄 알았다. 그것은 정석호가 오성묵을 칭찬하는 것을 사무실에서 들었기때문이었다.

머칠전 저녁무렵이었다.

정석호가 직장장과 이런 말 저런 말 하던끝에 《성묵이가 켜찰거던.》하고 말했었다.

그때 직장장이 《왜요?》하고 물으니 정석호는 《글쎄 토막식배무이방법을 지금것보다 더 크게 하는게 어떻겠느냐고 하질 않겠나. 그러면 수직과 천정용접을 더 많이 수평용접으로 할수 있으니 배우에서 하는것보다 우선 질이 제고되고 속도를 배나 빠르게 할수 있지 않겠느냐는거지. 얼핏 보면 매우 간단해보이지만 사실 실속이 있는 안이야. 난 성묵이가 정말 그런 궁털 했는가싶어 지더군. 그래서 우정 <그걸 어디서 듣고 옮겨?>하고 물었지. 그랬더니 오성묵이 하는 소리가 <아니 아바이, 날 어떻게 보고 하는 말입니까?>하질 않겠나. 뽕성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구 그 사람 앞으로 훌륭한 조선공이 될수 있겠어.》라고 말했었다.

그런데 지금 정석호의 태도는 판관 달랐다.

그는 붓으로 쿡 찍은듯 짙은 눈섭을 쫓긋거리며 《뭘 쪼쪼해?》하고 따지듯 물었다.

(어마나, 아바이가...)

한옥심이가 입속으로 뇌이는데 오성묵의 기름 한 얼굴은 그만 수수대처럼 벌개졌다.

한옥심은 그 틈을 타서 정석호에게 온 사유를 이야기했다.

《그럼 가봐야겠구나. 우선 그곳 일부러 해줘야지. 그런데 여기 일은 어떻게 한다?》

정석호는 이러며 도면을 보고있는 오성묵에게 눈을 주었다.

《여보게, 오늘 일을 혼자서 꽤 해낼수 있겠나?》

신입공인 오성묵은 지금까지 내내 정석호밑에서 시키는 일이나 고분고분 했던것이다.

《아바이두, 그걸 못하겠나요?》

오성묵은 금방 정석호한테서 들은 말을 묵새기지 못한때문인지 시뭇하게 대답하였다. 그러나 속으로는 무척 좋아하는것이 분명하였다.

정석호는 오성묵의 심정을 헤아려보고 (하긴 내가 너무 끼고있은지도 몰라.) 하고 속으로 생각하였다.

《그럼 오늘은 산소로 후란지를 두개 따주고 통풍통뚜껑만 계서하게, 래일은 본체를 계서하구. 그리구 토막식배무이안을 더 힘껏 연구하라구.》

정석호는 말을 마치자 곧 자리를 뒀다.

《아바이, 오늘두 계획을 꼭 넘쳐해야 해요.》

한옥심은 이렇게 인사말을 건넨고나서 정석호의 모습이 저만큼 사라지자 오성묵에게 은근한 목소리로 물었다.

《정말 혼자서 해낼만해요?》

《해내지 않구. 그러지 않아두 혼자 한번 해봤으면 하구 생각했었는데 마침 되었어. 내 오늘 본때있게 일을 해서 아바이를 깜짝 놀라게 할테니 두고보라구.》

《그럼 내 한턱 내지요.》

《정말?》

《그럼요.》

한옥심은 이러고나서 슬쩍 말머리를 돌려 정석호가 금방 얘기한 그 토막식배무이안이 어떻게 되어가는가고 물었다.

한옥심은 그제아침 성묵의 어머니한테서 요즘 성묵이가 배뭇는 방법을 연구한다며 거의 밤을 밝힌다는 소리를 들었었는데 어제 좀 불일이 있어 늦게 퇴근하며 오성묵이 있는 옷방을 보니 아니나다를가 불이 환히 켜져있었던것이다.

오성묵은 지금 기중기용량문제와 활차에 딱 걸렸는데 오늘 일을 끝내는길로 도서관엘 가려던참이라고 했다.

《정말 수고하는군요. 필요할 때는 날 부르세요. 기꺼이 도울테니.》

한옥심은 동실한 얼굴을 살짝 붉히며 쌍겹진 눈을 살며시 내리깔았다.

《그러겠어. 내 <오성묵배무이방법>을 해내고야 말테니까.》

오성묵은 심중을 열정적으로 토로했다.

한옥심의 눈앞에는 문득 조선전문학교 1학년때에 있는 《창작품전람회》가 스쳐지났다. 그때 오성묵은 남에게 지쳤느냐며 닳새밤인가를 꼬박새워 《자동선박모형》을 만들었는데 총화때 과연 1등을 했던것이다.

(이번에도 그는 꼭 해낼거야.)

한옥심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오성묵이 입을 열었다. .

《옥심동무, 내 가만보니 통계일에 너무 원심을 쓰는것 같은데 그러지 말구 제관반으로 넘어오라구. 글썽 그 통계일에서야 무슨 혁신을 일으킬수 있겠어? 10점최우등생이 통계원으로 있는게 참 아수하단말야.》

《아이참, 성묵동무. 제관일만이 똑 혁신을 일으킬수 있는 일이겠나요? 통계일이 얼마나 중요하다구요.》

한옥심은 이르고나서 방그레 웃으며 자리를 떴다.

그날 점심때였다.

한옥심은 숙보원을 도와 직장계시판에 속보를 붙이고나서 사무실로 들어오자 해맑은 창가에 가섰다. 구내식당에 점심을 먹으러 갔던 조선공들이 직장정문을 들어오다 새 속보를 보러 그앞에 하나들 모여들기때문이었다.

(저들이 속보를 보고 뭐라고 할가?)

한옥심이 부푸는 마음을 안고 호기심에 찬 눈으로 바라보니 룡구선수처럼 키가 꺾두룩한 용접공청년이 손세를 써가며 속보를 소리내어 읽고있었다.

신입공 오성묵동무!

조선소에 입직후 통풍통뚜껑을 계서하는 첫 단독임무수행에서 오전중에 하루일을 제깸. 열렬히 축하한다!

그는 다 읽고나자 자못 감동해서 부르짖었다.

《거 정말 대단하구나. 신입공이 한것에 하루일을 제끼다니?》

그러자 어깨가 가로 딱 퍼지고 목이 발아 《력기선수》라고 불리우는 제관공청년이 응수했다.

《이건 직장속보에가 아니라 공장정문계시판에 내다붙여야 해.》

한옥심은 마치도 자신이 칭찬을 듣기라도 하듯 마음이 몹시 흡족하였다.

(참말, 오전에 성묵동무가 한 일을 숙보원에게 알리길 잘했어. 이 사실을 정아바이가 알면 얼마나 기뻐할가. 그리고 우리 동무들은...)

한옥심은 조선소에 같이 배치된 동무들에게 알려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조선소에 입직한 그날 들먹이는 가슴을 안고 바다가 잔교에 앉아 첫 혁신을 일으켰을 때엔 서로서로 알리자고 했던것이다.

한옥심은 발걸음도 가볍게 전화기로 다가가 1기계직장의 송동무며 단조직장의 박동무에게 알려주었다. 그리고나서야 제자리에 가앉았다. 마음은 그저 기쁘기만 했다.

(오후에는 성묵동무가 래일 할 일감을 앞당겨 하게 되겠구나.)

한옥심은 불쑥 아침에 오성묵이 성과를 거두게 되면 한턱 내겠노라고 한 말이 떠올랐다.

(그렇지, 첫 혁신자와의 약속을 어겨선 안돼.)

그는 서둘러 책상빼람에서 사탕가루를 꺼내자 물차관에 듬뿍 쏟아넣었다. 그리고는 제관작업장으로 반달음쳐갔다.

오성묵은 점심시간인데도 쉬지 않고 철판에 계서한 통풍통본체에 뽀찌를 치고있었다. 옆에는 뽀찌를 친 철판이 세게나 쌓여있었다.

(본때있게 일해서 기록을 세우려나부지!)

한옥심은 잠시 서서 오성묵이 하는 일을 지켜보았다.

계서한 금을 따라가며 마치로 똑똑 뽀찌를 치는 동작은 가야금을 타듯 날렵하고 틀동적이었다. (어느새 저렇게 익숙해졌을가. 정아바이 숨씨를 째떡먹겠네.)

한옥심은 들먹거리는 마음으로 《성묵동무!》하고 불렀다.

그때에야 오성묵은 머리를 들며 코등이며 이마에 송골송골 내똥은 땀을 씻는것이였다.

《정말 수고해요.》

한옥심은 쌍겹진 고운 눈을 빛내며 진정을 담아 말했다.

《고마워.》

오성묵은 차관을 받으며 무등 기뻐했다.

《난 아침에 한 말을 지나가는 말로 들었는데 정말이었구만.》

《한번 한 말은 지켜야지요뉘.》

한옥심은 정겹게 말하고나서

《좀 쉬고 하세요. 힘들겠는데.》 하고 웃말에 말을 달았다.

오성묵은 차관의 물을 한고뿌 쪽 들이기더니 틀스럽게 말하였다.

《일없어. 하고싶어 하는 일은 아무리 해도 힘들지 않는 법이야. 더우기 단물까지 마시고나니 힘이 부쩍부쩍 솟는데뉘》

《점심시간인데 내가 좀 해보겠어요.》

《아니 그만두라구.》

오성묵이 만류했다.

이때 안면있는 단조공청년이 바떼리차에다 철판을 여라문장 싣고갔다. 푸쩍이 좋은 그 청년은 싱글싱글 웃으며 오성묵이앞에 지령서를 쑥 내밀었다.

《직장장동지랑 토론이 있었소. 급해 그러는데 오늘저녁 계서를 좀 해주오. 래일 자르는 차제루

가져가겠소.》

오성묵은 지령서를 받아보고 《좀 바쁘겠는데》 하고 머리를 기웃거렸으나 곧 《어디 해봅시다.》 하고 정석호의 본을 따서 석싹한 목소리로 말하였다.

《좌우간 시원시원해서 좋구만. 역시 제관공답소.》

단조공청년은 둥그스름한 얼굴에 함뿍 웃음을 띠우고 신이 나서 돌아갔다.

한옥심은 여간만 유쾌하지 않았다.

참으로 보는것 듣는것이 그대로 기쁨이었다. 바로 이런 일들을 종합하고 통계낸다는것이 그 얼마나 보람찬 일인가.

《성목동무, 오늘 신입공의 기록을 세우겠는데요.》

《여부 있나. 거기다 이제 <오성묵배무이안>까지 쟁-하면 온 공장이 들썩할게 안야. 회의를 주석단에 앉을지도 모르지. 그리구 한두건 더 기술을 창안하구 혁신을 일으키면 정석호아바이랑 나란히 혁신자들속에 앉게 될거야. 지금은 비록 오성묵이란 이름이 속보에나 났지만 머지 않아 중앙신문에 크게 날테니 두고보라구.》

오성묵은 가슴을 내밀며 으시댔다.

《글쎄 그럴수도 있을거예요. 그러나 너무 그렇게 으시대진 마세요.》

이렇게 말하는 통계원 한옥심의 마음속에는 웬 일인지 까닭모를 불안이 스며들었다.

어느새 날이 저물었다.

한옥심은 창문으로 불어드는 시원한 바다바람을 한껏 마시며 책상에 앉아 계산기로 오늘 한일의 통계를 내고있었다.

.....

구동호 110프로

오성묵 250프로

또박또박 정성껏 글을 써나가던 한옥심은 잠시 일손을 멈추었다.

가슴이 울렁거렸다.

그에겐 250프로가 결코 단순한 통계수자로 생각되지 않아서였다.

250프로-그것은 오성묵의 불타는 마음이고 충성의 구슬땀이 낳은 티없이 깨끗한 보석이라고 여겨졌다.

(속보뿐아니라 신문사에도 원고를 써보내야겠어. 이런 충성의 보석이 더 빛을 뽐게!)

그는 뉘엿뉘엿 가슴을 안고 통계를 내갔다.

그때였다.

《옥심이 혼자 있나?》 하는 소리가 등뒤에서 났다. 돌아보니 정석호가 사무실로 들어서고있었다.

그의 손에는 레외없이 호박물부리가 들려있고 옆구리에는 점심박이 든 까만 비닐가방이 끼여있었다.

《아니, 아바이가 어떻게 나오셨어요?》

한옥심은 용수철에서 튀기듯 냉큼 일어섰다.

그는 수산사업소에서 일을 끝내고 집으로 들어갔을줄만 알았던 정석호가 여기 나타난데 내심 놀랐다.

《들렀다 가려구 왔지. 그런데 직장장이랑은 어디 갔느냐?》

정석호는 피곤한듯 긴의자에 털썩 주저앉으며 물었다.

《현장에 나갔어요.》

《그렇지, 그는 현장에서 사는 사람이지.》

정석호는 물어보나마나 한것을 물었다는 투로 말끝을 흐리더니 곧 《저 성목이가 오늘 본때있게 일한모양이더구나. 속보에 크게 난걸 보니.》 하고 너부죽한 얼굴에 미소를 띠웠다.

조만해서는 칭찬을 하지 않는 정석호가 이렇게 말할적엔 마음이 몹시 흐뭇한것이라고 한옥심은 생각하였다. 그래서 그는 둥그스름한 얼굴에 담뿍 웃음을 담고 말했다.

《정말 대단해요. 오늘 250프로나 했는걸요. 그리곤 그 배무이안을 연구하러 또 공장도서관엘 갔어요.》

《음, 그래?》

정석호는 대견한듯 빙그레 웃음지었다.

《아바이도 요새 무얼 연구하고있지요?》

《연구?》

《요전번 기술부의 박기사랑 선전실에서 밤이 깊도록 토론하던것 있잖나요. 그리구 내가 계산해준것두...》

《음, 그것, 이제 앞으로 알게 되지.》

정석호는 요즈음 밤새껏 생각하는 그것이 오성묵배무이안이라는것을 말하려다 그만두었다. 마치도 한옥심이앞에서 제자랑을 하는것 같아서였다.

(얼마더 스무마디 말이나 해서야 소용이 없지. 난 그저 오성묵이들이 나라를 튼튼히 떠받들수 있게 밑에서 잘 피여주면 돼. 물론 내자신이 모범을 보여주면서...)

정석호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한옥심이 말머리를 돌려

《아바인 오늘 얼마나 일을 했나요? 계획을 넘쳐했겠지요?》 하고 물었다.

《하루계획보다 조금 더 했지. 아마 120프로는 될게다.》 .

정석호는 스스로없이 대답하였다.

《아이참, 그럼 성목동무보다 절반이나 떨어졌군요. <제자>보다 뒤져선 안되겠는데요.》

《글쎄말이다. 거 새세델 못따라가겠구나. 내 더 채심해서 많이 일하지.》

정석호는 이러며 껄껄 웃었다. 그러나 그 웃음속엔 참으로 더 일하지 못한 자책의 마음이 스며

있어서 한옥심의 얼굴은 그만 발기우리 상기되었다. 그러나 한옥심은 곧 (어쩔 둘이 경쟁적으로 일할지도 몰라.) 하는 생각이 들어 자리에서 일어서는 정석호에게

《아바이 성목동무가 일한걸 보구 가지 않으려나요?》하고 물었다.

《그러겠다. 너도 나가련?》

정석호는 머리를 끄덕이는 한옥심을 바라보았다.

그는 사실 오성목이가 제힘으로 꽤 일할수 있겠는지, 일할수 있다면 그 마음이 얼마나 준비되었는지 알고싶어서 아침의 생각대로 마음먹고 여기에 나온것이였다.

이윽고 두사람은 작업등이 대낮처럼 환한 작업장으로 갔다.

제관작업장에는 두터운 철판이 쪽 놓여있는데 통풍통뚜껑이며 본체가 계서되어있고 금을 따라가며 뽀찌까지 쳐져있었다.

《어때요? 다해놓았지요.》

한옥심은 생글생글 웃었다.

《음, 다해놓았구나. 너석이 정말 대단하다.》

정석호는 호박물부리를 문 입귀로 파르스름한 담배연기를 슬슬 내보내며 못내 흐뭇해했다.

한옥심은 날듯한 심정이였다.

옆에 오성목이가 있다면 손을 잡아 몇번이고 흔들며 수고했다고 정말 축하한다고 했을것이였다.

(성목동무, 정아바이가 동무 한 일에 만족했어 요. 그러니 동무도 이제 당당한 조선공이 된셈이야요.)

이렇게 생각을 달리며 정석호를 본 한옥심의 눈은 그만 휘둥그레졌다.

통풍통옆에 계서한 철판들과 그것을 절단한 몇개의 현품을 찬찬히 들여다보는 정석호의 너부죽한 얼굴에는 이제까지 피였던 대견한 웃음이 말끔히 가시여지고 그대신 질은 그늘이 가득 어러있기때문이였다.

《아바이, 일이 잘못됐나요?》

한옥심의 물음에 정석호는 숨을 길게 내쉬였다.

《품을 넣어 계서하면 철판 한장에 한개씩은 더 그럴수 있었을걸 이렇게 만들었구나.》

《한장에 한개씩이나 더요?》

한옥심은 되물으며 그 철판의 계서를 누가 했는가싶어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순간 그의 눈은 놀라움으로 더 동그레졌다. 그것은 오성목이가 단조공청년의 부탁을 받아 계서하고 자른 철판이였다. 다시 보았으나 틀림없었다.

한옥심은 마음속에 짝 들어왔던 크나큰 기쁨이 그 어디론가 줄지에 사라지고 텅 빈듯 허전하였다.

(그럼 오성목이가 오늘 일에서 거둔 그 250프로가 충성으로 이룬 보석이 아니고 티가 앓은것이었던말인가.)

한옥심은 숫불이라도 뒤집어쓴듯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다.

(어쩌면 일을 그렇게 할수 있담. 자기가 말은 통풍통은 나무랄데없이 하구 남이 부탁한것은 대수 해버리구...)

한옥심은 부글부글 피어오르는 분을 안고 슬며시 정석호를 바라보았다.

정석호는 다시 생각에 잠겼다가

《이것두 오늘 작업실적통계에 들어갔겠지?》하고 물었다.

《그래요.》

한옥심은 나직이 대답하였다.

결국 오늘 로동자들이 성실히 일한것을 보여주는 통계수자, 그 티없이 깨끗한 보석에는 불결한 티가 섞인것이였다.

정석호는 무슨 말인가 할듯하더니 그만두고 주머니에서 돋보기를 꺼내 끼였다.

그는 래일아침 수산사업소로 나가야 하기때문에 피곤을 무릅쓰고 밤새 이것을 제대로 계서하려는것이 분명하였다.

(아이참 내가 무슨 실수를 저질렀담. 이런것도 못보고 생산수자가 높은데만 눈을 팔았구나. 그래서 정석호아바이를 은근히 나무랐었지. 오성목이보다 일을 적게 했다고.)

한옥심은 자신에 대한 불만과 오성목에 대한 노여움이 마음속에 엮여 차올랐다.

(오성목은 이렇게 일하구두 도서관에 편안히 앉아 그 배무이방법을 천연스레 연구하고있을거야.)

한옥심은 죄스러운 마음으로 정석호에게 말했다.

《아바이, 그냥 뒤두세요.》

《그냥 두다니?》

정석호는 눈을 크게 떴다.

《글쎄 그냥 놔두세요.》

한옥심은 이러고나서 뒤로 돌아서자 도서관을 향하여 반달음을 놓았다.

그가 어깨숨을 툇으며 도서관에 들어서니 아니나다를가 오성목은 책상우에다 몇권의 기술잡지들과 도면들을 무질서하게 퍼놓고 무엇인가 열심히 계산을 하고있었다.

한옥심은 다시금 분이 치밀었다. 그러나 옆에 사람들이 있어 자기의 마음을 녹았혀야 했다.

한옥심은 숨을 길게 내뿜고나서 오성목의 곁으로 가자 《성목동무!》하고 불렀다.

머리를 든 오성목의 눈에는 반가움이 가득 어리였다.

《옥심동무한테 가려했는데 참말 잘 왔어. 여기

았아 이걸 좀 계산해달라구. 기중기용량문제가 풀릴것 같애.》

한옥심은 대답을 않고 잠시 그를 보다가 도서실밖으로 불려내었다.

그제야 한옥심의 태도에서 그 어떤 불만을 짐새챈 오성묵은 도면과 기술잡지들을 대충 훑그려가지고 따라나오며

《왜 무슨 일이 있었어?》 하고 물었다.

《이제 직장으로 가서 단조에서 요구한 일을 다시 하세요.》

한옥심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뭐 다시?》

오성묵의 눈은 쾅해졌다.

《오동무는 단조에서 부탁한 일을 도대체 어떻게 했어요?》

《응, 그것때문에...》

오성묵은 대수롭지 않게 대답하며 빙그레 웃기까지 했다.

《옥심동무, 잘하면 열개를 계서할수도 있었어. 그러나 그렇게 하자면 그 열장이나 넘는 철판계서를 온밤 해두 못끝내. 그런 일때문에 밤을 밝히겠어?》

한옥심은 그만 누르고있던 분통이 왈칵 터져올랐다.

(뭐 그런 일때문에 밤을 밝힐수 없다구? 그래서 열개를 계서할수 있는것을 번연히 알면서도 그렇게 했단말이지.)

한옥심의 눈앞에는 밤이 깊도록 불이 환히 켜져있던 오성묵의 집이며 작업이 끝나기 바쁘게 도서실로 찾아가곤하던 오성묵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리고 오성묵의 어머니가 하던 말, 배무이안을 연구하느라 오성묵이가 요새 밤을 거의 밝힌다고 하던 말이 귀에 쟁쟁히 되살아났다.

그러고보면 오성묵은 빛이 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만 자기의 정열을 깡그리 쏟아붓고 범상한 일은 슬쩍 아무렇게나 해버리는게 아닌가.

(오성묵의 마음엔 빈구석이 생기었구나. 정석호 아버지처럼 이름있는 조선공, 혁신자가 되련다는 그늘아래 나라를 생각하기보다 자신의 명예를 더위하려는 쯤이 생겼어. 그런 티가 앓은 마음을 보지 못하고 조선공이 다 된것처럼 기뻐하다니?)

한옥심은 안타까움을 참을수 없어 입술을 잘근 깨물었다.

《오동무, 그렇게 일하구두 혁신자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구 앓겠대구요? 그래 동문 부끄럽지도 않아요?》

오성묵의 기름한 얼굴은 별정계 달아올랐다.

《관두라우. 그건 모욕이야.》

《모욕이라구요? 아니, 그런 말이 아직두 입밖에 나와요? 동무가 만든 그 250프로란 티앓은 수

자가 우리 조선공들의 성실한 마음을 담은 량심의 깨끗한 수자마저 흐려놓았어요. 그걸 씻어내려고 정아바이가 수산사업소에서 돌아와 피곤을 무릅쓰고 그 일을 다시 하려 한단말예요.》

한옥심은 총알같이 내쫓았다.

《좋아, 하고싶은 말 다 하라구.》

오성묵은 책 돌아서더니 씨근거리며 바다쪽으로 휘청휘청 걸어갔다.

《성묵동무!》

한옥심이가 불렀으나 오성묵은 못들은척 내쳐 걸었다.

《성묵동무, 어딜 가요? 게 서라요.》

한옥심이가 다시금 애타게 소리쳤으나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가버리었다.

한옥심은 우뚝 서서 어둡속으로 사라지는 오성묵을 원망어린 눈길로 바라보다가 뒤로 돌아서 직장으로 타박타박 걷기 시작했다. 그의 눈귀에는 물기가 축축히 배어올랐다. 그는 지금까지 자기의 마음속에 스며들었던 까닭모를 불안이 무엇때문이었는지 너무나도 헛둥히 알수 있었다.

정석호의 티없이 맑고 깨끗한 충성의 마음이 낳은 수자와 오성묵의 쯤이 낀 마음이 빚어낸 수자를 똑똑히 분별해보지 못한것이였다. 그런 까닭에 오성묵의 《혁신적성과》를 축하해주라고 동무들에게 알려주었으며 속보에 내도록 원고를 제공하지 않았던가.

(난 눈뜬 멍과니였어.)

한옥심이가 모대기며 제관작업장에 이르니 정석호가 오성묵이 계서한 철판을 뒤집어놓고 새로 계서를 하고있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한옥심의 머리에는 문득 조선소에 입직하여 제관직장에 배치되어왔을 때 직장장이 하던 말이 떠올랐다. 그때 직장장은 정석호를 두고 해방후부터 오늘까지 술한 배를 무으며 크고작은 일을 가리지 않고 성실히 일해온 공장의 보배, 나라를 떠받드는 주춧돌이라고 했었다.

(직장장의 말이 과연 옳았구나.)

한옥심은 세차게 소용돌이치는 마음을 안고 정석호곁으로 갔다.

《통계를 다 냈나?》

정석호가 일손을 멈추고 뒤돌아보며 물었다. 그는 아마도 옥심이가 통계를 마저 내려고 사무실에 갔던줄 아는 모양이였다.

한옥심은 대답없이 눈을 살쾅이 내려깔았다.

《집에 마음놓고 들어가보라구. 내 이것을 다시 계서하구 들어갈테니.》

진정어린 그 말에 한옥심의 가슴은 더더욱 뜨거워났다. 자기가 한 일이 아님에도 그는 마치도 자신이 저지른 일처럼 바로잡고야 이 자리를 뜨겠다고 하는것이 아닌가.

정석호아바이야말로 크고작은 일을 다 빛나게 하며 나라를 위해 자신의 정열을 깡그리 바쳐가는 것이었다. 사람은 바로 그렇게 살아야 하지 않겠는가.

《아바이, 나두 하겠어요.》

한옥심은 마치를 굳게 틀어잡았다. 그리고는 정석호가 계서한 금을 따라가며 푹푹뚫뚫 뽀뽀를 치기 시작하였다.

그로부터 시간이 얼마나 흘러갔을가.

한옥심이와 정석호가 일에 온 뉘을 쏘아붙고있을때였다. 뒤에서 터벅터벅 발자국소리가 났다.

두사람은 일손을 멈추고 돌아보았다. 머리를 푹 수그린 오성목이 천천히 오고있었다. 그는 가까이 오자 머리를 들고 눈을 습벅거리며 한옥심에게 무슨 말을 할듯말듯 주뭉거리다 정석호앞으로 왔다.

《자네 나왔나?》

오성목은 다시금 머리를 푹 숙이였다.

《내 자네가 제발로 찾아나올줄 알았네. 조선공이 이렇게 일하구 밤을 넘길수야 없지.》

《아바이, 내가 그만...》

오성목은 말끝을 흐리였다.

《아니야, 내가 자네 착실히 돌봐주지 못한때문이지.》

정석호는 이렇게 말하고나서 말머리를 돌리였다.

《그래 오늘은 그 배무이방법에서 성과가 좀 있나?》

오성목은 대답대신 한숨을 길게 내쉬였다. 그리고도 그는 한참이나 주뭉거리며 서있더니 기여드는 목소리로

《아바이, 내 그걸...》 하고는 말끝을 잊지 못하였다.

정석호는 갑갑한듯 다그쳐물었다.

《그걸 어떻게 하겠다는건가?》

《아바이, 내 그걸 버리겠어요. 난 지금껏 정말 빛이 나는 일만을 쫓아다녔어요.》

한옥심은 눈이 둥그래졌다.

(오성목이가 그걸 버리다니? 그게 진심일가?)

한옥심의 생각은 정석호의 웨침에 끊어지였다.

《뭐라구? 그 안을 버려? 어디 다시한번 그 말을 해보게.》

웬만해서는 큰소리를 치지 않는 정석호였다. 그는 지금 어떻게나 성이 났는지 불이며 판자노리가 푸들푸들 뛰었다. 방금전의 그 따뜻하고 은근함은 어디론가 말끔히 사라지였다.

《내 자네 잘못 보아왔군. 난 그래두 자네가 나라를 위해 무엇인가 더 이바지하러구 모대기는줄 알았어. 그런 나머지 오늘일을 설친줄 알았단말이야. 그래서 자네가 오늘 한 일을 바로잡고 다음날 톡톡히 애길 하려고 생각했었어. 빛나는 일

이 따로 없다구말야. 크든작든 충성심이 고이면 그 일은 빛을 뽉게 된다고 말하려했어. 이젠 내 생활신조야. 그런데 이제 보니 자네 크고작은 일을 차별두면서 자기 이름이나 내자구 일해왔구만》

정석호는 후 숨을 내그었다.

그는 가슴이 답답한듯 어느때나 꼭 채우고다니던 옷단추를 두개나 벗겨놓았다.

그의 머리엔 오성목의 토막식배무이개조안을 도와주려고 기술부의 박기사와 며칠밤을 선전실에서 토론하던 일이며 여러가지 기술서적들을 보던 일이 선히 떠올랐다.

그런데 오성목은 지금 나라에 리득을 줄 그런 안에 열정을 쏟아부어 끝까지 해낼 대신 헌신짝처럼 던지려고 하는 것이였다.

(오성목이가 이런 청년이었던말인가. 제이름이나 내자고 제관일에 달라붙었고 또 그런 조선공이 되려고 공장에 입직한 그런 젊은이었던말인가. 그래서 안되지, 결코.)

정석호는 도리를 저었다.

(사람은 자기 이름을 떨칠것부터 생각해선 안돼. 일한것이 스스로 빛이 나게, 위훈으로 되게 살아야지.

바로 항일혁명투사들이 그렇게 살지 않았는가. 그들이 자기의 가정을 다 버리고 눈바람 사나운 거친 산야에서 후날 자기의 이름이나 내자구 싸운것이 아니잖는가. 그리고 전쟁때 우리의 인민군용사들이 자기의 이름이나 내기 위해 불뽀는 적의 화구를 막은것이 아니잖는가. 나서자란 고향땅, 선조의 뼈가 묻혀있는 성스런 이 나라와 슬기론 이 나라 인민들을 위해 한몸 서슴없이 바친 그 고결한 녀이 바로 세월의 년륜에 뚜렷이 새겨졌고 그들의 그 불멸의 업적이 위훈의 탑으로 솟아 누리에 빛나게 된것이 아닌가.

그런데 오성목은 빛나는 일만을 찾아 자기의 이름이나 내려 하다니.)

정석호는 진정 가슴이 아팠다. 오성목을 그대로 둘수 없었다. 그래 정석호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오성목을 호되게 꾸짖었다.

《여보게, 그렇게 뽀뽀한 생각을 가지구 일하겠거들랑 조선공이 될 생각을 아예 말게. 조선공의 마음이 그래가지구는 망망한 바다에 띄울 배를 온전히 만들수 없어. 내 그런 자네를 위해 박기사와 밤늦게까지 그 안을 토론한게 아녜세. 그런 자네 위해 옥심이에게 수치계산을 해달라고 한게 아니야. 사람이 그렇게 살아선 못써.》

오성목은 머리를 더 깊이 수그릴뿐 자기의 잘못을 변명하러 하지 않았다.

그는 정석호아바이의 진정에 넘친 말을 들으며 자책으로 가슴이 뜨거워졌던것이다.

이것은 비단 오성목이뿐이 아니였다.

한옥심은 이때에야 정석호가 그렇게 심혈을 부어 연구한것이 자기의 안이 아니라 오성묵의 토막식배무이안이었다는것을 알았다.

한옥심은 생각이 깊어졌다.

그는 이제야 비로소 새세대들, 제관공인 오성묵이나 통계원인 자기가 오랜 로동계급인 정석호 아바이한테서 무엇을 배워야 하겠는지가 새삼스럽게 깨달아졌다.

그것은 정석호아바이의 말투나 걸음새, 손톱눈에 담배그루를 치는것이나 도면앞에 서면 담배불을 끄는따위 걸음으로 나타나는것이 아니었다.

정석호아바이의 진짜배기 마음, 위대한 수령님과 당을 위해 성실히 일하는 그 높고높은 정신세계였다.

그렇게 할 때 그 어떤 일이든 다 보석처럼 빛을 내게 할수 있는것이였다.

한옥심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있는데 오성묵이 젖은 목소리로

《아바이, 아바이 마음을 이제야 알았어요.》 하고 또박또박 힘주어말하고나서 기증기를 부르더니 저녁무렵에 계서한 철관들을 뿔뿔뿔 뒤집어 놓는것이였다. 그리고는 정석호에게 콤파스와 자를 달라고 했다.

정석호는 오성묵을 이윽히 바라보더니 《어서 그러게. 제할 일은 제가 해야 해.》 하고 흔연히 콤파스와 자를 내주었다. 그리고는 뒤로 돌아서 정문쪽으로 천천히 걸어갔다

오성묵은 정석호의 뒤모습에서 눈을 떼고 감심해있는 한옥심에게 마치고 뽀찌를 달라고 했다.

《아니, 오동문 계서나 하세요.》

《계서두 하구 뽀찌두 내가 치겠어. 그저 옆에만 있어달라구.》

《아니예요. 그럴수 없어요. 성묵동문 똑똑히 계서만 하세요.》

한옥심은 마치를 꼭 천채 기쁨어린 눈빛으로 오성묵을 바라보았다.

《옥심동무, 내가 정석호아바이처럼 당당한 조선공이 되기엔, 정아바이처럼 그렇게 살기엔 아직 멀었어. 그러나 이제 꼭 아바이 처럼...》

오성묵은 말끝을 잊지 못한채 돌아서더니 뒤집어놓은 철관에 계서를 새롭게 하기 시작했다.

한옥심은 오성묵이가 《이제 꼭 아바이처럼 당당한 조선공이 될테야, 정아바이처럼 그렇게 일하며 보람있게 살아갈테야.》 라고 말하려 했음을 특감으로 느끼었다.

그는 오성묵을 기쁜 마음으로 바라보다가 그가 계서한 금을 따라 힘있게 뽀찌를 쳐나갔다.

일은 날이 희뵘히 밝을무렵에야 끝이 났다.

일을 끝내자 한옥심은 참으로 크나큰 기쁨속에 잠겨들었다. 이제야말로 250프로란 진짜 충성의 보석을 찾은게 아닌가. 조선공들이 이룩한 통계수자는 이제 티없이 깨끗해졌다.

한옥심은 부푸는 가슴을 누를수 없어 오성묵을 한껏 정겨운 눈길로 보며 물었다.

《성묵동무, 바다가로 나가지 않겠어요?》

《그러자구.》

오성묵이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다.

두사람은 조선공들이 즐거울 때면 즐겨 찾곤하는 바다가 잔교로 걸음을 옮겨놓았다.

그들은 밤을 지새운 정석호아바이가 작업반후계실창문으로 자기들의 모습을 흐뭇한 마음으로 내다보고있는줄은 꿈에도 알지 못하였다.

묵묵히 걸던 한옥심이 이윽고 입을 열었다.

《아바이랑 같이 이 새벽을 걸었으면 얼마나 더 기쁠가요?》

오성묵은 길게 생각지 않고 대답하였다.

《옥심동무, 난 아바이와 같이 걷는 심정이야. 내 마음속에 정아바이가 자리잡고있어 그런지.》

《아이참, 그건 나도 같은 마음이야요.》

한옥심은 이렇게 말하며 속으로 생각하였다.

(정석호아바이처럼 오성묵이도 나라를 드팀없이 받드는 믿음직한 주춧돌이 꼭 될거야. 아바이의 걸모양이 아니라 그 진짜배기 마음, 높은 정신세계를 어김없이 배워 이름난 조선공이 될테지. 오성묵은 이제 더는 빛나는 일만을 찾아다니거나 거기에만 심혈을 쏟아붓지 않을거야. 그렇게 사는건 로동계급의 참된 삶이 아니니까. 그는 정아바이처럼 크고작은 모든 일을 빛내며 살아갈테지. 그럼 나는?...)

한옥심은 잠시 눈을 깜빡이고나서

(나도 오성묵이와 다를바 없어야지.) 하고 알파한 입술을 꼭 깨물었다. 그리고는 정석호아바이처럼 될 자기들의 모습을 머리속에 그려보았다.

《무슨 생각을 해?》

얼마쯤 걸던 오성묵이 머리를 돌리며 물었다.

《앞으로 당원들처럼,오랜 로동계급처럼 될 우리들의 모습!》

한옥심은 동그스름한 얼굴에 함뿔 웃음을 담았다.

그때 시원한 바다바람이 불어와 그들의 옷깃을 정답게 스쳐지났다.

이제 머지 않아 동녘하늘이 붉게 물들고 아침해가 장엄히 솟아오를것이였다.

이들은 이 길을 따라 해마중하며 언제까지나 걸어가련듯 모래우에 또렷한 발자국을 찍으며 힘있는 걸음을 나란히 옮겨놓았다.

# 당의 사랑을 받을 때

오선학

축복의 꽃인양 함박눈이 내리는  
창광거리 불밝은 창가에  
행복에 넘친 노래소리 흐를 때  
벗이여, 그 노래 흥겨웁다고  
부디 쉽게 부르지 마시라

정다운 어머니의 품  
젖가슴마냥 따스한 요람속에서  
잠자는 아기의 얼굴에  
행복의 미소가 피어날 때  
벗이여, 그 미소 아름답다고  
부디 무심히 바라보지 마시라

은혜로운 지붕아래  
높은 칭호와 영예  
은정의 귀한것을 한아름 받을 때  
정녕 벗이여, 그것이 좋다고  
부디 선뜻 가볍게 받지 마시라

행복의 그 선물속에  
앵두볼에 피는 그 미소속에  
당의 사랑 얼마나 깊이 고이고  
얼마나 무겁게 깃들어있는지  
그대 다는 알지 못하리

끝없이 이어지는 사랑을 받을 때  
단 한번의 한순간이라도  
눈가에 뜨거운 이슬을 간직할줄 모른다면  
우리 어이 말할수 있으리  
그 사랑을 안다고  
그 사랑의 무게를 느낀다고...

아, 봄빛처럼 안겨오는 은혜론 사랑!  
누구나 받기는 쉬워도  
바치기는 어려운것  
위대한 사랑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묻기는 쉬워도  
대답하기는 어려운 말 사랑이란

사랑을 받을 심장이 없이는  
사랑을 느낄 마음이 없이는  
뜨겁게, 무겁게 대답하지 못하리  
위대한 사랑의 훈향이

그리도 따스함에 대하여

헤아릴수록 한량없는 당의 사랑  
그 사랑은 누리에 넘치는 맑은 공기  
가슴에 스며드는 따사로운 햇빛  
무엇이든 숨김없이 말하고싶은  
어리광이 자라는 어머니의 품  
이 세상에 아름다운 모든것

그 사랑은  
오늘에 살고  
래일에 사는 삶의 정신  
노을처럼 불타는 생의 열정  
흰머리에도 청춘을 부르는  
영원히 꺼질줄 모르는 불멸의 노래  
정녕 그 사랑은 우주를 움직이고  
폐허우에 쓰러진 고목에도 꽃을 피우는 강한  
힘

그 사랑이 없이는  
전정 그 사랑이 없이는  
복된 땅을 걸으며 살수 없고  
한시도 푸른 하늘을 바라보며 숨쉴수 없어라  
영원한 젊음도 영생의 영광도  
그 사랑속에 꽃피거늘

당의 사랑을 위해 다시 태어나  
당의 사랑을 위해 사는 사람아  
그 사랑앞에 부끄러움 없이 서려거든  
쉽게 느끼지 말자 그 사랑  
가볍게 받지 말자 그 사랑

창광거리 주택의 열쇠를 받을 때에도  
온 조국의 무게를 느끼시라  
정다운 문턱을 넘어설 때에도  
생각하시라 은혜로운 태양의 모든 열도를  
자다가도 고마움에 소스라쳐 깨어나  
다시금 눈시울 적시는 그 뜨거운 품을

아, 태양의 영원한 미소이런듯  
한없이 따스한 당의 사랑  
영원히 충성으로 받들어 꽃피워갈  
가장 귀중한 사랑이여!



# 평양역을 나서며

변홍영

오래도록 헤어져있었던 것도 아니건만  
숫구치는 샘줄기같이  
내 가슴에 기쁨은 넘쳐나누나  
평양이여  
서둘러 너의 역두를 나서며  
내 다시 바라보는 수도의 거리여

당이 준 과업을 안고  
내 자주 출장길을 다녀올 때면  
정답구나 반기는듯 속삭이는듯  
거리우에 반짝이는 불빛들도  
내앞에 와 벗어나서는 전차도

저 멀리 뻗어간 거리  
정든 대학교사의 창가에  
희망과 포부와 열정에 찬 시절이  
못잊을 추억을 불러내서나  
저 무수한 불빛속에  
나를 기다리는 안해와 아이들의  
다정한 눈빛이 빛나고있어서나

내 다녀온  
탐사대의 천막가  
먼 산중에서도  
당중앙을 우러러  
불타는 심장들과 함께  
그 이름 조용히 외워보던  
평양

그러면 불시에 뜨거워오는  
내 마음속에  
수억만 별들을 품고  
잠들줄 모르는 하늘같이  
승엄히 안겨오던  
평양

너는  
내 어디에 가든  
깊은 한밤에도  
나를 기다리는 정든 집이었고  
내 영원히 안겨살  
한없이 거창한 품이여라

잠시라도  
너의 숨결로 숨쉬지 못한다면  
어찌 생각할수 있으랴  
이 가슴에 차넘치는  
투쟁의 희열을, 창조의 불꽃을

없으리라 뛰노는 마음으로  
당위원회의 문을 두드리며  
깨끗한 당원의 량심을 가다듬는  
그 아름다운 삶의 순간도  
은근한 기대와 소원을 품고  
단잠에 든 아이들을 지켜보는  
아버지의 남모르는 그 기쁨조차도

그렇다, 평양이여 너는  
나의 삶, 나의 운명을 안은  
조국의 심장  
새세기의 태양이 빛나는  
혁명의 사령탑

나는  
당의 의지를 수행하기 위해 사는  
너의 아들이며 전사  
너를 위해 이 한몸 바치는것  
그보다 귀중한것 나에게 없나니

머나먼 러로의 피곤은 가뭇없이 사라지고  
나의 온몸에선  
새로운 열정이 뒤셀렌다  
내 마치도 너의 부름을 받고  
수천리 먼길을 단숨에 달려온것 같구나

아, 나에게 새 과업을 떨군다면  
나는 떠나리라  
내 언제나 이처럼  
당이 준 과업을 수행한 기쁨에  
빛나는 수도의 밤하늘을  
궁지높이 바라볼수 있다면  
내 선듯 다시 먼길에 오르리라

저 불밝은 나의 집 창가에  
출장길의 려장을 풀지 않은채...

시초

## 파도우에 넘치는 랑만의 노래

한호

### 포구

고향집 프락을 나설 때처럼  
그 모두 정답구나, 포구야  
솔푸른 기슭의 하얀 집들  
고기푸는 너인들의 맑은 웃음  
그 모두 어머니의 손길 같구나

손길 같구나  
멀리 바다로 나가는 이 가슴에  
밀려오고 젖어드는 포구야  
다시마 널어 파란 백사장  
해지는 물녘에서 미역을 감다  
작은 손 높이 들어 젖는 아이들

땅우에선 레사롭던것들조차  
출항의 이 시각엔 더더욱 사무쳐오누나  
땅에 살아 땅이 그리운줄 몰랐더니  
물에 살아 한없이 그리워진 포구야!

저기 흰연기 피는곳에  
아늑한 우리 집  
집에는 정깊으신 어머니  
이 저녁도 따끈한 밥지으며  
마음 깊이 나를 바래우실 그 모습  
집앞에는 은행나무 설레이는 학교

학교에는 드넓은 운동장  
뿔차기 즐기던 송아지적동무들  
살뜰한 스승들의 얼굴도 안겨와  
내 가슴의 추억과 삶이  
깊디깊이 뿌리내린 포구야

잘 있거라  
하루밤 떠나도 긴 나날 떠나도  
내 가슴속 정을 두고 가도  
정들어 못잊을 그리움만은  
바다만리 그 어디나 안고가나니

아, 출항의 닻은 올려도  
마음의 닻은 두고 가는 품아!  
떠나갈 땐 끝없이 바래주고  
돌아올 땐 만선기 날리고  
기쁨의 큰 팔 벌려 맞아주는 조국의 품아!

잘 있거라  
너는 우리네 어로공들이  
사시절 조국을 안고 나드는 출입문!  
고향집 문을 나서 집의 그리움 알듯  
포구야, 너를 나서며  
조국의 소중한 나날이 더 깊어지누나

## 고기를 낚소

여름이라 좋은 밤 불밝혀놓고  
에헤라-배가득 고기를 낚소  
나올 땐 물목마다 덤장을 놓고  
밤에는 우리 배 고기를 낚소

밤바다는 황홀한 불의 바다  
물우에 시샘하던 달과 별들이  
우리 배 불빛에 길을 잃었소  
바다의 고기잡이 그래서 흥이 나오

흥이 나오  
밤바다의 낚시질 처음이라던  
저기 저 꼬마동무 제격이구려  
줄줄이 낚아내는 그 재미에  
이제는 선장과 경쟁하자오

고기를 낚소  
서로서로 경쟁을 청해가며-

어서들 모이게 국이 식네  
뜨끈해야 생선국은 제맛이 나네  
만선기 날리는 우리 배에 맞게  
즐거운 식탁으로 불러들이는  
취사원처녀를 칭찬해주세나

칭찬해주세나  
배우에서 배운 그 요리솜씨  
이 다음 님한테도 칭찬받겠네-  
갑판이 들썩한 그 익살에  
《어마나!-》 처녀는 얼굴 붉히는데  
젊은이들은 그저 허허-하하-

말도 말게

큰놈들 올라오며 물장구치는 소리  
풍년분배장의 북소리갈구려  
에헤라-얼굴마다 피는 웃음  
불빛보다 더 밝소 더 아름답소

더 아름답소  
낮이나 밤이나 가림없이  
큰 배로도 잡고 작은 배로도 잡고  
그물로도 잡고 낚시로도 잡으며  
사시절 바다를 비우지 않는  
우리네 기쁨에 바다가 타고

바다가 타고  
밤은 깊어 깊어도 꺼질줄 모르는 불빛  
에헤라-언제나 바다의 보화를 건져내는  
우리네 맑은 눈빛이라오  
우리네 가슴속 등불이라오

## 아침의 한때

처녀가 님 만나 가버리면  
만선의 성찬은 누가 차려주겠나  
걱정 말게  
우리의 요리솜씨 그만 못할라구  
앞치마 이렇게 척 두르고  
내가 처녀를 대신하지

그바람에  
처녀는 또 《어마나!-》  
바다는 좋아라 출렁-처절썩!-  
처녀가 하나니 성화도 많군

익살이 좀 많은들 어떠랴  
어장에는 생선이 펄펄 뛰고

가슴에는 웃음이 절로 나니

그 모두 만선의 멋이로세

만선의 멋이로세

그 옛날엔 아무리 물고기 잡아야

한마리도 우리것 없어 눈물만 나더니

오늘은 잡을수록 인민의 식탁 높아지거니

만선의 이 아침이 어이 즐겁지 않겠나

오호, 가슴이 흐뭇한 물고기풍년으로

온 나라의 기쁨을 맛보는 아침의 한때

두둥실 솟는 해도 이때가 좋아

우리의 얼굴처럼 크게 웃는군

## 우리사는 집

내 자라던 고향집 울안에

꽃고운 살구나무 여기 없고

다심한 어머니 계시지 않아도

누구나 집이라 부르며 산다

우리 배-우리 사는 집

정다운 프락이 왜 없으랴

푸른 물결 스적이는 배전은

어항의 달밤에 노래도 많은 프락

한드레 두드레 정히 떠 쌀을 씻는

저기 물뚝크는

우리 집 울안의 맑은 박우물

나이든 총각들의 장래문제도

여기서 허물없이 토론하며

너나없이 정들어 우리 사는 집-

아버지 어머니란 정든 말대신

동무란 큰 뜻으로 부르며

아, 우리 사는 집!

예보다 정다운곳 우리 물라라

벗들에게 보내는 사려깊은 편지도

여기서 쓰고

자식을 키우는 아버지의 축복도

여기서 만그물 올려보내나니

한가정의 살뜰함 왜 없으랴

만선기 날리고 돌아올 때면

온 가족이 둘러앉은 저녁처럼

즐겁게 나누는 다감한 이야기

오손도손 짓는 하루일의 총화는

홍금을 털어놓는 형제들의 모임

가슴을 넓혀가는 아득한 바다는

보화로 가득찬 우리 집 터전!

날아에는 갈매기는 우리 집 길동무!

성실한 농민이 땅을 다루듯

이 바다 길들이며 여기 살리라

여기 살리라

내 자란 고향집 따로 있어도

우리 배-우리 집이여!

수령님 안겨주신 바다를 지켜

풍랑과 격랑을 헤치는 길에

땀흘려 정든 집 더 좋더라

우리 배-우리 사는 집이여!

날마다 출근길이 따로 있으랴

선실을 나서면 그대로 일터-

길은 단 몇걸음이어도

땅우의 아침길과 꼭같은 길...

집이라 하기엔 너무 큰 일터고

일터라 하기엔 너무 정다운 우리 집!

<신포에서>

## 언제나 그날에

안동춘

송경희가 온것은 려단이 적의 종심을 교란하는 작전을 끝내고 새로운 지구로 이동하던 때였다.

이 시기는 려단의 행로에서 가장 간고했던 《불길천리, 피의 천리》의 나날이었다.

처녀는 나타나기 바쁘게 인차 젊은이들의 화제에 올랐다.

어려운 때였지만 젊은이들은 역시 젊은이들이어서 미모의 처녀에 무심할수 없었던것이다.

그런 한담속에서 처녀는 애꿎게도 《거만하겠다》 《멋쟁이였겠다》는 평을 받았다. 그런데 젊은이들은 그만 만나면 뽕정한 비평가로 되던 사람들까지 평소의 자기를 잊어버리곤했다. 려단의 젊은 군의는 그 처녀가 보이기만 하면 군복자락을 당겨내렸고 공병참모는 모자를 제껴서 매력있는 고수머리가 솟구쳐나오게 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동작은 유감스럽게도 처녀에게서 호의가 아니라 경멸을 샀다. 전장에서는 오직 싸움에 대해서만 생각해야 하며 이성감정을 나타내는것은 너절한 행위라고 생각하는 그였기때문이다. 그런데다가 그의 머리속에는 이미 미래의 대상자의 얼굴이 자리잡혀있었는데 이제 어느 순간에 만날지 모르는 미지의 그 배우자는 특출한 성품과 미로 빛나는 남자들중의 남자였다.

그에게 친절을 보이려 애쓰는 남자들중에는 배낭을 메다주겠다든가 머루나 다래같은것을 권한다든가 했는데 때마다 처녀는 《괜찮아요. 저 중기관총수는 탄약통까지 메었군요.》 라고 부드럽게 사양하든가 《고마워요. 전 한송이면 돼요.》 라고 하며 상대가 무안을 타지 않을 정도에서 인사를 차렸다.

아름다우나 범접하기 어려운 형의 녀자였다. 더구나 려단장이 그를 만나 《그래 경희야, 집에다가 편지했나》라는 가정적인 물음을 던진후부터 처녀는 더욱 특별한 존재로 되어갔다.

이때 처녀는 참모부서기였으나 위생소와 함께 생활했는데 걸보기와는 달리 부상병간호라든가 피배인 봉대를 짜는 일을 곧잘 해제겼다. 그런데다가 한번은 불의에 달려든 적의 경찰대와 육박전을 벌리는 마당에 보병총을 잡고 달려감으로써 그런 녀자들치고 쉽게 얻을수 없는 존경을 획득하였다.

하지만 그는 반포대대 병사들한테서는 우연스러운 사건으로 못된 녀자라는 호칭을 받았다.

반포대대의 총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이미 반공격시기에 한번 부상을 당하고 두개의 훈장을 탄 조성진화력부관은 엄정한 군의학적진단에 의하면 치료를 받아야 했으나 본인의 완강한 고집

과 지휘관들이 원심을 쓴 덕분에 그대로 포와 함께 움직였는데 이번 밤행군시에 왼발목을 접질렀다.

그리하여 그는 대대장의 명령으로 로획한 군마를 타게 되었다.

끼끗한 체격에 신수가 환하고 눈에 정기가 발달한 젊은이가 말을 타고 뚜거덕거리며 가는것은 그의 구멍이 뚫리고 소금기배인 군복만 아니라면 경마장에 들어서는 경마수의 호사스러운 입장식으로 보일것이었다.

그때 경희는 몇명의 간호원들과 함께 경상자들을 부축하고 고개길을 오르고있었다. 밤낮없는 행군통에 그들은 워나 가림없이 발탈이 나서 간신히 걸음을 옮겼다.

그 대렬을 따라 조성진이 탄 말이 경쾌하게 달려왔다.

처녀들은 부러움에 차 말을 보았고 기수의 인상에서 동정어린 빛을 찾으려 하며 방조를 기대하였다.

경희 역시 초조한 눈매로 말과 기수를 보며 기다렸다.

이제나저제나 기다리는데 말은 뚜버덕거리며 그대로 그들옆을 스쳐지났다.

《량심이 없어.》

《어쩌면 저럴가, 동정심도 없이...》

지나가는 군마를 원망스레 쏘아보며 처녀들은 종알거렸고 경희는 그 기수의 탄력있는 몸매를 보며 입술을 옥물었다.

《련락군관인가보지.》

경희가 웃으며 돌아보자 류순덕중사가 입술을 삐죽거렸다.

《그럼 좋게요. 반포대대군관이랍니다. 흥, 이제 우리 신세 안지나 보자.》

그 말에 경희의 눈에는 알릴듯말듯 그늘이 지나갔다. 그는 입술에 하얀 옥이를 박고 군마를 보다가 또랑또랑한 목소리로 웨쳤다.

《군관동지! -》

기수는 말을 멈추고 돌아보았다.

별에 질지 않은 아름다운 흰 얼굴의 낯선 녀자 특무상사의 반쯤 벌린 입과 성난듯한 눈을 보았다.

두 시선은 순간에 부딪혔다가 헤어졌다.

《왜 그러시오?》

조성진이 물었다.

그 태연한 목소리는 경희의 얼굴에 랑소하는듯 비웃는듯한 웃음을 띄워주었다. 경희는 낮으나 랑랭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 동무들은 부상자들입니다.》

《알고있소.》

조성진은 무뚝뚝하게 경희를 보다가 말고삐를 책 채며 더는 돌아보지 않고 달려갔다.

경희는 처녀들의 뭐라 떠드는 소리를 어렴풋이 들으며 마치 뺨을 맞은듯한 기분으로 사라져가는 말을 바라보았다.

경희는 그 끼끗한 자태와 색바랜 군복에는 도저히 어울리지 않는 남자군관의 무례함을 두고 커다란 실망감에 휩싸였다.

그는 입술을 꼭 앓다문채 걸었다..

그런데 좀 있어 금방 지나갔던 그 기수가 결승선에 들어서는 경마수처럼 말을 쳐몰아 달려왔다.

경희는 그를, 그 말을 애써 보지 않으려 고개를 수그리고 부축하고있던 전사의 팔만 더욱 꼭 잡으며 걸었다.

갑자기 말발굽소리가 멎었다.

머리를 쳐들자 그앞에 말이 고개를 쳐들고 코김을 붙여댔다. 그우에서 화력부관은 묵묵히 일행을 돌아보고 매우 굼뜬 동작으로 말에서 내렸다.

그는 경희앞에 마주섰다.

그리고는 마치 경희가 지금의 자기에 대하여 품고있는 불신감을 읽으려는듯 유심히 보다가 조용히 입을 떼었다.

《이 말을... 도착하면 우리 반포대대에 넘겨주세요.》

하고는 절뚝거리며 길옆에 물러섰다.

그리고는 넓적한 바위에 앉아 담배를 꺼내는 것이었다.

예상외의 일에 모두가 어리둥절했다.

경희는 보조개를 파고 면구한 웃음을 감츠리며 말했다.

《감사해요.》

화력부관은 그들이 말에 부상병을 태우고 고개마루에 올라갈 때까지 그대로 앉아 담배만 빼금 빼금 빨았다.

《그래도 영 둘은 아니다야.》

《아니, 경희언니한테 끌려서 선심을 써봤겠지 뭐》

처녀들은 기분이 나서 재잘거렸다.

말덕분에 한결 힘들이지 않고 휴식지점에 와서 그들이 충분히 쉬고났을 때 반포대대가 도착하였다. 그 대렬속에서 경희는 한사람의 부축을 받고 절뚝거리며 간신히 걸어오는 화력부관을 보았다.

경희는 자기가 큰 실수를 했음을 깨달았다. 런락군관이 아닌 중위가 말을 탔을 때는 꼭 그럴만한 이유가 있어서 아니겠는가.

경희의 얼굴은 홍시처럼 타올랐다.

모든 처녀들이 화력부관의 눈에 띄지 않으려 했으나 경희는 그럴수 없었다. 그는 말고삐를 잡고 입술을 깨문채 자기네 부상당한 지휘관을 건

게 한데 대한 힐난과 이죽거림의 포화를 퍼붓는 전사들앞을 지나 조성진의 앞에 다가갔다.

이젠 얼굴이 파랗게 질린 경희는 분함어린 눈길로 조성진을 보았다.

《어쩔 그럴수 있어요... 말을 해야지요... 그건 거만이랍니다.》

그 말에 화력부관은 싱긋이 웃었다.

그 웃음은 경희의 가슴에 타래쳐돌던 자책과 부끄러움을 노여움의 불길로 뒤바꿔놓았다. 더 상대할 마음의 여유를 잃은 그는

《하여튼 미안해요.》

라고 쌀쌀하게 말하고 돌아섰다.

화력부관은 실수를 깨달았다.

《특무상사동무!》

경희는 오연한 눈길로 되돌아보았다.

이미 화력부관은 웃지 않았다.

그는 말했다.

《미안할것은 없습니다. 말은 도로 가져가시오. 그건 나보다 부상병들에게 더욱 필요합니다.》

《괜찮아요. 동무도 부상병이 안예요.》

경희는 그대로 가려 했으나 화력부관은 그보다 더 검질겼다.

《가져가시오. 그건 이미 우리 대대장동무까지도 승인한겁니다.》

그의 말에는 집요하고 완강한 요구와 함께 애원조가 스며있었다.

그의 눈길을 쳐다본 경희는 이 화력부관이 어떤 희떠운 관용이나 선심을 써 그러는것이 아님을 알았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 거절하는것은 친한 동무의 집에 갔을 때 쥐여주는 술가락을 집어던지는것보다 더한 행동이란것을 알고있었다.

경희는 말고삐를 잡으며 한풀 수그러진 목소리로 말했다.

《그럼 중위동무는 어떻게 하렵니까.》

《난 발목을 약간 풀쳤을뿐입니다.》

화력부관은 경희의 미안스러운 기색을 엿보고는 왜서인지 어쭙은 미소를 띠우며 말했다.

《정 그러면 <멘솔담>을 얻어주십시오.

난 이런 경우에 그 약만 바르면 제격 낫는답니다.》

경희는 그가 말을 가져가기 웅색해하는 자기의 마음을 능쳐주기 위해 그 말을 한다는것을 알았다.

경희는 생긋이 웃으며 거수경례를 했다.

《그럼 잘 쓰겠어요. 약은 구해보겠어요.》

화력부관은 경희의 뜻밖의 거수경례에 낮이 벌갨해지며 맞받아 거수경례를 하였다. 경희가 말을 끌고가자 류순덕중사는 입이 빙글썩해 기뻐했다.

《그 구두쇠들이 말을 내놓은건 특무상사동무의 얼굴값이에요.》

《그건 그들의 성의에 대한 모욕이에요.》

경희는 그를 꾸짖었다.

그러나 말을 끌고올 때 자기와 화력부관을 번갈아보던 그 대대병사들의 얼굴이 떠오르며 무언가 깨름직한 기분이 끈덕지게 살아올랐다.

(아니, 그건 그럴수 없어.)

경희는 자기의 거수경례를 받을 때 낮이 처녀들처럼 붉어지던 화력부관의 순진스런 모습을 확대해보며 그 끈덕진 기분을 떨어버리려 애썼다.

그로부터 이틀째 되는 날, 려단은 하마트면 적의 포위에 들번하였다. 그들이 통과할 산협에 적의 한개 사단이 대기하고있었다.

려단은 은밀히 벌판으로 방향을 돌려 포위망을 벗어났다. 그러나 그들이 포위망을 벗어났다고 생각한 그날아침 적의 기계화부대가 꼬리를 물고 땅크포와 박격포로 려단의 후미를 갈겨댔다.

경희는 나서 처음으로 《불의 소나기》라고 하는 포격권속에 들었다.

온 공간이 쇠와 불의 광란속에 휘말려들어갔다.

그속에서 경희는 한순간 당황하였다. 류황내쉬인 먼지구름속에서 어쩔바를 모르고 풀썩 주저앉았던 그는 《다쳤소?》라고 묻는 자기네가 후송하던 부상병의 웨침소리에 정신을 차렸다.

그는 자기가 겁많은 소년처럼 웅크리고있었음을 부끄럽게 깨달았다. 궁지높은 처녀는 전사들의 눈앞에서 겁쟁이로 보이는것이 죽기보다 싫었다.

하여 그는 이런 정황에서는 안전한곳을 찾아 은폐하는것이 옳다는것도 잊고 허리도 구부리지 않은채 머리를 쳐들고 포화속을 달렸다.

먼 후날 어느 누가 이때의 감정을 묻는다면 그는 포탄의 끊임없는 작렬음과 파편의 앙칼진 회파람을 장엄한 교향곡처럼 들었다고 할것이였다.

학교시절부터 마음속 숭배의 대상으로 되던 스무살나이에 《녀장군》 칭호를 받은 조선인민혁명군 녀대원의 형상을 눈앞에 그리며 그는 자신을 영웅시가의 주인공으로 생각했다.

(그래, 나는 싸움터가 항상 이러리라는것을 알았지. 나는 바로 이 죽음의 마당을 웃으며 달리리라고 이미 속다짐하지 않았던가, 조국을 위한 이 싸움에 나는 목숨을 바치리라 맹세하지 않았던가.)

하나 폭음과 불과 포연은 부단히 공포의 바줄로 그를 얹으려 했다. 하여 그는 이 공포와 싸우지 않으면 안되였다.

비장하고 웅감한 노래를 부르려 했다. 그런데 평시에 그렇게 많이 알고 부르던 노래구절은 하나도 떠오르지 않았다.

그저 《불타네, 불타네》 하는 소절만 끝없이 되풀이되고 그 음은 떨리는 입술새로 가쁜 숨소리마냥 흘러나왔다.

《나는 강하다!》

파편에 모자가 날아가고 머리칼이 흐트러지는것을 바로잡으며 그는 이렇게 중얼거리기도 했다.

화력부관이 준 말이 피를 쏟으며 쓰러지는것을 보면서 눈만 크게 떴을뿐 놀라지 않았다.

그는 려단지휘부로 달려가 삼촌인 려단장에게 자동총을 달라고 소리쳤다.

유측진 바위밑에 작전지도를 놓고 참모장과 이야기를 나누던 려단장은 머리칼이 앞이마에 드리우고 두눈에 달이 뜬 경희를 보자 처음엔 놀랐고 다음엔 웃었다.

《어데 적이 있니?》

그때야 경희는 총으로 쏘 거리안에는 한놈의 적도 없다는것을 알았다.

하지만 려단장은 무슨 생각이 들었던지 경희에게 자동총을 주게 하였다.

포사격이 멎은후에도 경희는 그러한 정열의 첨단에서 쉬이 벗어날수 없었다. 심장은 여느때없이 세차게 고동쳤다.

질서정연하게 흘러가는 대렬을 보면서도 만세라도 부르고싶었다.

상처하나 나지 않고 살아났다는 기쁨, 공포와 싸워이겼으며 비겁쟁이로 되지 않았다는 희열이 그 충동을 일으킨것이다.

(나는 이겼다. 앞으로도 이길것이다!)

그는 자기를 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정겨운 웃음을 지어보였다.

그러나 죽은 말의 고삐를 끌고있는 병사를 봤을때 경희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그때야 그는 말의 반쯤 감은 눈과 허공으로 들린 겹스레한 발동음을 똑똑히 보았다. 말이 불쌍했다. 그의 량볼로는 눈물이 줄져내렸다. 이때 말을 주던 화력부관의 얼굴이 피땀 떠올랐으나 그 모습은 떠오르던것처럼 사라졌다.

려단대렬은 행군속도를 높였다.

최고사령관동지의 작전적방침에 따라 펼쳐지는 군단의 새 전투지구에 려단이 한시바빠 도착해야 한다고 선전원들이 다니며 말했다.

또한번 본때있는 승리의 싸움을 바라보는 전사들의 걸음발은 빨랐다.

그러나 지휘관들의 얼굴은 어두웠다.

그들은 뒤따르는 적 기계화부대의 모터소리를 가늠이나 하는듯 어떤 때는 걸음을 멈추고 귀를 강구기도 하였다.

흐린 날씨였다. 해도 보이지 않았다.

소나무잎들이 물기를 머금고 번들거리고 검은 땅은 찬 기운을 뿜었다.

드디어 적땅크들의 엔진소리가 대렬후미의 병사들한테까지 들려왔다.

얼마 안있으면 놈들이 려단의 꿈무늬를 짓밟히려 할것이다. 직사사격으로 려단을 제압할것이다.

경희는 병사들의 수군덕거림에서 각일각 위험이 가까와오고있음을 알았다.

《뒤로 전달, 속도 빨리!》

연신 독축이 왔다.

그런데 갑자기 앞으로부터 일여덟의 군인들이

한결같이 철갑모를 쓴채 준엄한 얼굴로 마주와서는 대렬과 반대방향으로, 이미 지나온 적이 있는 쪽으로 걸었다.

그들은 걸으면서 지나가는 대렬을 유심히 살피고 누구를 향해서는 빙긋이 웃어보이기도 하는데 그 웃음 역시 평범하지 않았다.

경희는 그 일어덥명의 뒤에 화력부관이 있음을 보았다.

철갑모를 눈섭까지 내려쓰고 입을 꼭 다문 그도 지나치는 군인들중에 누구를 찾거나 하려는듯 세심히 훑어보는것이였다.

경희는 불쑥 류순덕이 말하던 《...얼굴값이예요...》라고 한것이 생각났다. 저 사람이 혹시-하는 자기로도 경박스러운 선입감이 뛰어나는 그 순간 화력부관이 경희를 보았다.

경희는 거의 무표정한 눈매로 화력부관의 시선을 맞았다. 화력부관은 무언가 말을 할듯하다가 경희의 쏘박한 태도때문인지 인츰 고개를 돌리고 엄숙한 기색으로 앞만 쏘보며 걸음을 다그쳤다.

경희는 부지중 미안스러웠다.

그는 이 화력부관이 류순덕이 말한 류의 남자가 아님을 알았다.

(나를 뭐라고 할가, 인사도 않는...)

경희는 화력부관이 걸을 지나는 순간 낮은 소리로 재빨리 말했다.

《안녕하세요, 중위동지.》

발음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중위는 무슨 말인가 하여 걸음을 멈추고 처녀를 응시하다가 경희의 얼굴이 빨갛해지는것을 보며 그 역시 얼굴이 벌갸해졌다. 하더니 눈섭을 찌프리며 끌낸 사람처럼 걸어갔다.

경희는 그가 자기 말을 잘 못알아들었으며 그래서 무슨 말인가 기다렸음을 알았다.

(아이, 성미가 급하네.)

이번에는 마디마디를 국어강독때의 발음으로 했다.

《중위동지, 말이 죽었어요. 포탄에 맞아-》

화력부관은 돌아봤다.

그는 경희의 얼굴을 뚫어질듯 보다가 손을 휘젓고는 뛰다싶이 갔다. 그것은 경희에게 인사라기보다 그 어떤 모욕적인것으로 느껴졌다. 상대할 필요가 없을 때, 아니 그 상대가 자기의 격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할 때 저렇게 하는것이 아닌가.

경희는 자기 자신이 너무 경망스러웠다고 후회하였으며 그에 대한 언짢은 기분을 가셔낼수 없었다.

경희가 머리를 가우뚱하고 몇걸음 옮기는데 앞에서부터 이상스러운 말소리들이 들려왔다.

《차단조야, 공격을 견제하자는거지.》

《한마디로 결사대지.》

《돌아오지 못할거야.》

《그럴수 있지.》

《전쟁이니까.》

경희는 놀랐다.

경희가 뒤돌아보니 화력부관일행은 벌써 저만치 사라져간다.

(왜 저 사람들만 갈가. 이 많은 사람들은 뭘하고... 한개 기갑부대무력을 저들이 어떻게 다 막는단말인가.)

경희는 풀지 못할 방정식과 맞다들었을 때처럼 머리가 혼탁되였다.

가슴은 마구 활랑거리기 시작하였다.

경희는 자기의 의문을 풀지 않고는 견딜수 없어 앞으로 비집고 나갔다.

안면 있는 포병참모를 만나자 경희는 언젠가 《동무는 협주단에 갈걸 그랬소.》라는 말의 앙갚음으로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그의 팔소매까지 잡으며 다급스레 물었다.

《반포대대에서 왜 저 여덟사람만 떨어집니까?》

포병참모는 이 도시태생의 거만한 녀자의 촌스러운 물음에 두눈을 휘둥그렇게 떴다.

《왜 그들만 차단조예요. 그들은 위험하겠지요.》

그제야 경희가 무엇때문에 그러는가를 안 포병참모는 침울한 어조로 말했다.

《물론 위험하지요. 하지만 위험 없는 싸움이야 없지 않습니까.》

그는 화력부관일행이 간쪽을 한번 돌아보고는 그 이야기에 더 끌려들기 싫다는 표정으로 걸음을 빨리했다. 그러나 경희는 그를 놓지 않았다.

《아니, 그럴수 없어요. 려단이 막아 죽치면 되잖아요. 려단전체가 달라붙으면 쉽게 진압하겠지요.》

경희는 재빨리 말하며 포병참모의 눈을 곧추 쏘아보았다.

포병참모는 낮을 찡그렸다가 경희의 타는듯한 맑은 눈동자를 보고는 엄하게 말했다.

《물론 그렇소. 하나 우리가 저놈들을 짓몽개는 사이면 다른 적의 사단이 우리를 포위하려 할것이요. 그때면...》

포병참모는 여기서 말을 끊었다. 《쩍-》하고 입을 다시고 더 말하기 괴롭다는 표정으로 걸어갔다.

경희는 아직도 석연치 않았으나 포병참모의 론거에 무시할수 없는 진리가 있음을 깨달았다.

(그러니 그들은 영웅으로 간것이다.)

이 많은 사람들속에서 그들만이.)

경희는 못박힌듯 우두커니 서서 지나가는 군인들을 보았다.

그러나 대렬은 안개속에 잠긴것처럼 뿌옇해지고 방금전에 헤어진 화력부관의 얼굴만이 두드러지게 떠올랐다. 어딘가 경멸하는듯한 눈길로 자기를 보며 손을 짹 내리쥔던 그 모습은 경희의 얼굴에 모닥불을 끼었었다.



(그가 그런것은 당연해. 글썄 결사전에 나가는  
그에게 내가 무슨 말을 했던가. 따뜻한 인사도  
작별도 아닌, 말의 죽음에 대한 얼빠진 이야기를  
...)

그러니 그는 나를 어떻게 알겠는가. 무슨 철부  
지로 보겠는가.)

경희는 입술을 아프게 깨물었다.

첫 피로움의 파도가 지나가자 불시에 비상한  
결심이 일떠섰다.

(그래, 그들만이 그렇게 싸운다는 법은 없지.  
나도 가서 싸울수 있지 않는가.)

그러자 이제껏 자기가 화력부관에게 약속한  
《멘솔담》을 주지 못했음을 상기했다. 구해놓고  
도 줄 생각은 가뭇 잊고있었던것이다. 지금 와서  
보면 그에게 죄송스러울 일이었으나 한편 다행스  
런 《실책》이기도 하였다.

경희는 상긋 웃음까지 머금었다.

(꼭 가져다주자. 그러면 놀랄거야. 그리고 내가  
함께 싸우려 한다면 더욱 그럴거야.)

가슴이 울렁거리고 오한이 난듯 몸이 떨렸다.

그는 자기가 이제 가지 못하면 일생을 두고 후  
회하리라는것을 알았다. 그리고 자기가 지금 선  
뜻 발걸음을 떼지 못하고있는것은 자기 마음속에  
숨어있는 비겁한 처녀때문이라고 생각했다. 입대  
할 때 군인선서에서 한 맹세를 잊은 《처녀》때  
문이라고.

그는 자동총을 꺼꾸로 메고 책 돌아서 달리기  
시작하였다.

군인들은 무슨 영문인가 하여 그를 유심히 보  
았을뿐 제지시키려는 사람은 없었다. 풋낫이나  
아는 군관들은 그가 참모부에 속해있으면서 위생  
소 일까지 돌본다는것으로 사업한계가 매우 넓고  
다양함을 아는데 묻지 않은것이였고 어느 군인  
들은 이 아름다운 처녀가 그 무슨 특별한 명령수  
행을 위해서 뒤로 달려가는것으로만 여겼다.

경희는 등판을 곧추 질러 달렸다.

발밑에서 땅이 확확 지나가고 귀속에서는 웅웅  
바람소리가 울렸다.

산딸기와 쭈대가 무성한 비탈로 정신없이 달려  
내려가던 그는 무엇인가 걸려 허공 넘어지며 한  
고개 굴렀다.

인츰 일어서자니 온몸이 지근지근했다. 팔목언  
저리마저 무엇에 굽혔는지 빨갛한 점들이 생겼다.  
좁쌀알같은 피방울이 맺히는것을 보고나니 더욱  
아파났다.

그는 주머니에서 종이를 꺼내여 그 상처자국을  
꼭꼭 눌렀다.

그러는데 그의 조금뒤에서 쿵-하는 폭음이 울  
렸다. 벌떡 일어난 경희는 멀리 가물가물 보이는  
도로에 검은 점들이 움직여오는것을 보았다. 그  
검은 점들에서 목화송이같은것이 피어올랐다.

포탄은 이곳저곳에서 요란스레 터졌다.

그러나 경희는 한참이나 그대로 서서 검은 점

만을 점도록 쫓아보았다. 그의 입술은 파르르 떨렸  
다.

《저놈들이구나.》

경희의 한껏 커진 눈에서는 적의의 예리한 빛  
이 섬광처럼 튀겨나왔다. 상처에 아픔을 느끼던  
소녀는 사라졌다.

경희는 발사된 탄알처럼 내달았다.

이 정열에 충만된 녀자, 소녀로부터 처녀로, 평  
범한 학생으로부터 자각된 공민으로 변화과정에  
있는 이 녀자는 리성이라는 맹정한 계산의 저울  
대를 잃어버렸다. 만약 미리 나가 잠복해있는 차  
단조가 그를 발견하고 멈춰세우지 않았더라면 적  
의 땅크에까지 육박했을지 모른다. 모름지기 마  
지막 탄알까지 쏘버리고는 원썬을 절규하며 쓰러  
졌을것이다.

하지만 경희의 이런 심정은 아는듯모르는듯 그  
를 멈춰세운 전사들은 이 녀자가 온전한 정신을  
가졌는가 하는 시선으로 맞이하였다.

경희는 처음엔 그런 눈치도 모르고 무작정 반  
가움부터 앞섰으나 《빨리 엎디시오.》 《동무  
정신있소.》 하는 투박스러운 웨침과 그 웨침 못  
지않게 꾸짖는 무뚝뚝한 눈길들과 맞다들자 당황  
했다.

경희는 여태껏 이처럼 불친절하고 무뚝뚝한 눈  
길을 한번도 대한적이 없었다.

그 눈총들에 경희의 앓은 얼굴은 탈듯이 달아  
올랐다.

무엇때문에들 이럴까.

경희는 억울함을 금치 못하며 나이 지긋한 장  
탄수의 옆에 가 엎드렸다. 엎드리고나니 수치감  
과 모멸감이 전신에 재불을 쏟아놓는것만 같았다.

《어떻게 왔어요?》

옆의 나이 지긋한 병사가 의아쩍은 눈길로 쳐  
다볼 때 경희는 여기의 모든 전사들이 자기를 군  
인으로가 아니라 철부지소녀처럼 보고있다는것을  
느꼈다.

경희는 자동총을 천천히 벗어내리며 누구도 보  
지 않고 말했다.

《싸우자고 왔어요.》

《싸워요?》

아바이 장탄수는 입을 다물지 못한채 경희를  
땡해서 보다가 이마에 날아드는 메뚜기를 철썩  
갈겨 떨구고는 재차 물었다.

《누가 보냈니까?》

《아바인 누가 보내서 왔어요.》

경희가 또랑또랑한 목소리로 되물자 장탄수의  
눈은 더욱 커졌다.

《아, 거야 그렇지요. 명령이니까... 군사규률이  
그렇거디... 하긴 자원하긴 했지만두.》

그러면서 방조를 청하는듯 자기 동무들쪽으로  
시선을 보냈다. 경희는 그가 자기 물음의 의도를  
리해하지 못했음을 알았다.

경희는 안타까움에 질려 입술만 감싸는데 포탄

뒤에 앉아있던 얼굴이 검스레한 상사가 역시 그 생김처럼 똑똑하게 입을 열었다.

《여긴 동무가 올데가 아닙니다.》

《나도 군인이예요.》

경희는 뵈양게 흐려진 눈길로 상사를 쏘아보았다. 그의 분노한 표정에 상사는 얼머름해서 인차 대답을 못하고있다가 싱긋이 웃었다.

《누구의 지시로 일루 왔는가 하는거지요... 좋게 봐야 규률위반자일테니까... 군인답지 않거던요.》

《네-?》

경희는 억이 막혀 말이 나가지 않았다.

이때 길가의 뽕뿌라나무에서 웬 사람이 주르륵 미끄러져내렸다. 쌍안경을 목에 건 그는 경희가 여기 와서 처음부터 찾아보던 화력부관이였다.

경희는 그가 자기의 행동과 말을 처음부터 날날이 보고들었으리라는것을 알았다. 그마저 돌아가라고 한다면... 경희는 입술을 옥물고 기다렸다.

그러나 화력부관은 눈살을 찌프린채 피곳 보았을뿐 그에게서 돌아서고말았다.

《1포 류탄! 보병놈들까지 붙었소. 2포 철갑탄! ... 그리고 부소대장동문 중기를 가지고 저앞을 차지하오. 보병놈들을 견제하시오.》

화력부관이 소리쳤다. 그러자 부소대장이라고 하는 얼굴이 검스레한 상사가 어찌된 일인지 매개 대원들과 악수를 나누고 경희에게 다가왔다.

그는 한없이 부드럽고 선량한 미소를 띠우며 경희에게 손을 내밀었다.

《내 말에 노엽타지 마시오. 빨리, 빨리 가줄걸 바래서 그랬습니다. 이제 몇분후면 후회할 틈도 없습니다.》

《...!...》

경희는 가슴속에 뜨거운것이 몽클했다.

그는 상사의 손을 꼭 잡았다.

상사는 화력부관앞에 다가갔다. 그들은 아무말도 없이 서로 마주보다가 그 어떤 충격을 받은 사람처럼 와락 겨안았다!

상사는 중기를 끌고 천천히 기어나갔다. 화력부관은 목깃단추를 열어제끼고 상사가 폭탄구덩이에 들어가는것까지 지켜보다가 경희에게 고개를 돌렸다.

눈길은 내리깔았으나 여전히 찌프린 성낸듯한 얼굴이였다.

《어떻게 왔습니까?》

《절루 왔지요. 부상병이 생길수 있잖아요.》

경희는 앵돌아져 대답했다.

화력부관은 묵묵히 그를 응시하다가 조용히 대답했다.

《우리에게 부상병은 없을것입니다.》

경희는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알았다.

그러자 아무말도 나가지 않았다.

갑자기 머리우에서 슈-슈-하는 소리가 울리고 땅이 진동했다. 거의 동시에 폭음이 귀청을 울렸

다.

려단과 이 차단조를 편결시키는 도로중심에 짙은 폭연이 서렸다.

화력부관은 포탄이 떨어지는것을 불안스럽게 살피다가 격정어린 눈길로 경희를 보았다.

《이젠 떠나십시오. 저 오른쪽 비탈로 방향을 잡으시오. 거긴 포탄이 떨어지지 않을것입니다.》

《동문 너무해요.》

경희는 눈에 눈물이 글썽해서 쏘아보았다.

그러자 화력부관은 방금까지의 엄하고 똑똑스런 표정은 싹 잃고 소년처럼 당황한 빛이였다. 그는 경희의 눈길을 애써 피하려 하며 피염피염 말했다.

《사실 여기 와준건 고마운 일입니다. 그러나 동문 떠나야 됩니다. 우린... 동무를 좋게 기억하겠습니다.》

그 말을 듣고 경희는 하마터면 울음을 터뜨릴 번하였다. 그러나 그는 터지는 흐느낌을 씹어삼키고 태연한 빛을 띠우며 말했다.

《참 발목은 어때요. <멘솔담>은 구했어요.》

《<멘솔담>?!》

화력부관의 눈이 커졌다. 그 눈엔 환희라고 할 그런 행복스런 빛이 번개처럼 스쳤다.

《감사합니다. 정말... 그러나 이제 필요없습니다.》

《그러니 거짓말을 했됐군요.》

《아니, 사실 <멘솔담>을 쓴답니다. 난 축구를 좋아했는데 다리를 풀치면 우리 엄마가 그 약을 발라주곤했습니다. 아, 왜 웃습니까.》

《엄마라고 하니까.》

경희는 순간 환경의 엄혹성도 잊은듯 이슬맺힌 눈에 발랄한 웃음을 함뱉 실었다. 화력부관은 시무죽이 웃으며 경희의 모습을 뚫어지게 보다가 쓸쓸한 기색으로 변하였다.

《다른 때라면 동문... 우릴 거들떠보지도 않았겠지요.》

《왜요?》

화력부관은 인차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미간을 찡그리고 무언가 듣고있었다.

경희도 들었다. 아니 몸으로 느꼈다.

망질하는듯하는 동음이 땅을 타고 흘러왔다.

《이제 3~4분후면 보일것ियो.》

화력부관은 조용히 뇌이고 전방도로를 주시했다.

가까이에서 포탄이 터졌다.

그러나 화력부관은 몸자세를 흐트리지 않았다. 경희 역시 것처럼 태연한 빛으로 서있었다.

화력부관이 갑자기 핵 돌아서며 소리쳤다.

《엎드렷!》

그의 두눈은 동전처럼 커졌다.

경희가 어쩔념 않고 멍히 서있자 화력부관은 날듯이 달려들었다. 그 무게에 눌러 쓰러진 순간 경희는 눈앞이 번쩍하며 벼락치는듯한 폭음이 터

지는것을 들었다.

눈을 감았다며보니 사위는 짙은 연기속에 잠겼다.

첫 느낌은 놀라움이었고 다음은 부끄러움이었다.

《무엇때문에 이래요?》

경희는 몸으로 자기를 가려준 화력부관에게 성을 내려 했으나 얼굴만 화끈 달아올랐다. 그 심정을 알아차렸던지 화력부관은 그에게서 떨어져 저쯤 물러나며 통명스러운 어조로 말했다.

《그대로 엎디어있으시오.》

그말을 따라 고개를 돌리던 경희는 포관 한귀통이가 장검으로 쳐놓은듯 찢어져 번뜩이는것과 5~6미터밖에 안되는 거리에 포탄흠이 쾅하니 입을 벌리고있는것을 보았다.

(하마트면...)

끔찍스런 참변을 그려본 경희는 소스라치듯 몸을 떨다가 까딱 앉고 엎디어있는 화력부관에게 눈길이 몇자 얼굴이 확 붉어졌다.

경희는 그에게로 기여갔다.

《다친데는 없어요?》

화력부관은 대답을 않고 무언가 종이장에 급히 쓰고있었다.

《참, 왜 여기다 자리를 잡았어요, 저아래 움푹진곳엔 포탄이 안떨어지는군요.》

경희는 자기의 말이 사개에 맞건안맞건 관계없었다. 무슨 말이든 하지 않고 그대로 있을수 없었다. 화력부관은 쓰던것을 멈추지 않고 무뚝뚝히 대답했다.

《여긴 맞기도 좋지만 맞히기도 좋은곳이요.》

(웁아요, 나도 동무가 다른곳은 택하지 않았으리라는걸 알아요.)

화력부관의 흙투성이 된 잔등에 하얀들꽃 한송이가 뿌리채 올라붙어있었다.

《아이!》

《뭐요?》

화력부관이 엄하게 돌아볼 때 경희는 천진한 소녀의 마음이 되어 웃었다.

《...잔등에 꽃이... 내가 꺾어가질래요.》

두사람의 눈길이 마주쳤다. 그러자 둘다 똑같이 외면하였다.

경희는 그 꽃을 자기로도 무엇때문인지 모르며 가슴팍에 드리운 위장그물에 꽃았다. 화력부관은 말없이 보기만 했다. 이때 뽀뿌라나무에서 감시병의 다급한 웨침이 울렸다.

《주의! 거리 천오백, 적땅크 8, 자동포 12...》

화력부관은 시계를 보고 고개를 쳐들었다. 순간 타는듯한 눈길이 경희에게 닿았다. 그러나 그는 인차 눈을 내리깔고 연필에 침을 묻혀 쓰던것을 계속 써나갔다.

최후를 앞둔 맹세문인가, 그래, 결사전을 할 때가 왔다는것이지. 이들은 모두 죽을것이다.

경희는 심장이 비틀리우는듯했다. 그러나 한편

으로는 승업하고 비장한 감격에 휩싸이며 생각했다.

(나도 저 맹세문에 수표할테야. 후날 어느 박물관에서 저걸 보면 사람들은 나같은 처녀도 결사대원으로 영웅적으로 전사했다고 눈물머금고 이야기하리라.)

화력부관이 일어나 뚫어앉았다.

《특무상사동무!》

그는 낮으나 엄하고 딱딱스런 말투로 불렀다.

경희를 쳐다보는 그의 눈도 이제까지와는 전혀 다른 사람처럼 차갑고 엄했다.

화력부관은 종이장을 접으며 말했다.

《이 쪽지를 려단장동지에게 전해주시오.》

이 말에 경희는 아연하였다. 자기의 심정따위는 아랑곳없는 그의 처사가 야속하기 그지없었다.

《전 안가요.》

《나는 여기 지휘관으로 명령합니다.》

화력부관의 얼굴은 화석같이 보였다.

경희는 입술을 파르르 떨었다. 안개낀듯한 눈에는 이슬같은것이 피여올랐다. 화력부관은 못볼것을 본듯 외면하며 입술만 잘근잘근 깨물다가 말했다.

《동문 우리를 위해서 왔지요?》

경희는 무언가 애원하는듯도 하고 두려워하는듯한 소심스런 눈동자를 보았다. 그 눈을 보며 경희는 어조의 날카로움과 전혀 다른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

경희는 고개를 끄떡였다.

《그래요.》

《그렇다면 가주십시오.》

화력부관은 한결 풀린 기색으로 말하고나서 잠시 동안을 두었다가 계속했다.

《이건 우리를 위한 제일 고마운 일로 될것입니다.》

《우리》라는 말은 경희에게 《나》라는 말처럼 들렸다.

경희는 고개를 떨구었다.

다른 길은 없었다.

《이 쪽지가 닿으면 우리의 부담은 한결 덜어질것입니다. 다른 동무를 보낼수 있으나 여긴 한명의 포수가 귀중합니다. 우린 놈들을 반드시 막아버립니다. 자, 그럼-》

화력부관은 손을 내밀었다.

경희는 그 손을 보지 않았다. 다만 이 순간 무한히 선량하고 표정이 풍부한 아름다운 눈만을 쳐다보았다.

경희는 가슴이 미여지는듯했다.

이제 헤어지면 다시 못만나리라는 생각이 뇌리를 때렸다.

그것이 너무나 명백한것 같음으로 하여 끔찍스러웠고 그만큼 그것을 부정하고싶었다.

그리고 화력부관은 부디 그것을 잊었으면 했다.

경희는 용기를 내어 무척 천연스러운 어조로

말했다.

《그럼 가겠습니다. 저… 인차 오겠지요.》

《갑니다.》

화력부관은 빙긋이 웃었다.

그리고 손을 들어 어깨까지 올렸다내리고 돌아섰다.

경희는 자기를 의식하지 못하고 속삭였다.

《잘 싸워요. 사랑하는 동무.》

화력부관의 어깨가 부르르 떨렸다.

그는 책 돌아섰다.

경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했다.

《꼭 다시 만나요.》

《…………》

《오세요, 먼 후에도, 전쟁이 끝난 다음에도, 우리 집은 찾기 쉬워요. 해방산아래 국수집옆 대문에 팔랭이가 달린 집이에요.》

경희는 간신히 말을 이었다.

화력부관은 거센 충격을 받은 사람처럼 흠칫했다.

그 눈빛은 이글이글 타고 얼굴은 환하게 밝았다.

무어라 정열에 넘친 말을 할듯하던 그는 조용히 말했다.

《찾아가겠소. 꼭 찾아가겠소. 잘 가오.》

그는 돌아섰다. 쌍안경을 눈에다 대고 그는 힘찬 구령을 내렸다.

그를 멍하니 보던 경희는 불쑥 생각나는데 따라 《멘솔담》을 꺼내가지고 화력부관의 웃주머니에 밀어넣어주었다.

《재발하면 바르세요.》

《바르겠소.》

화끈 단 쇠조각같은 손이 약속하듯 경희의 손을 꼭 잡았다놓았다.

경희는 전사들에게 인사를 하고 머리를 수그린 채 종종걸음으로 달렸다.

그가 등판에 올랐을 때 차단조가 있는곳은 치열한 격전장으로 변했다. 검은 땅이 일떠서 하늘과 맞닿고 희푸른 연기가 밀려다녔다. 둔하고 쟁쟁한 각종 구경의 포소리가 지동치듯했다.

하나 경희가 있는 등판은 고요했다.

그의 발등으로 딱정벌레가 발뼀발뼀 기여올랐다.

경희는 화력부관네와 자기는 서로 다른 강기슭에 서있음을, 그리고 이제부터 그들에게는 각이한 시간이 찾아들었음을 느끼며 몸을 떨었다.

그가 대렬을 쫓아와 리더장에게 사연을 보고하고 쪽지를 보였을 때 리더장은 눈을 내리깔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 사람과 잘 아는 사이냐?》

《아니예요.》

《어떤 사람인가 보라.》

리더장은 경희에게 쪽지를 보여주었다.

처음에는 적의 기동무력수자를 밝혔고 맨 마지

막에 ※부호를 하고 이렇게 썼다.

《…이 동무를 처벌하지 말아주십시오. 부탁한 약을 가지고왔습니다.》

경희는 끝내 참지 못하고 가느다란 소리로 흐느꼈다.

그를 《거만하다》고 하던 참모부의 몇몇 군관들은 비통하게 울고있는 처녀의 의아스런 울음을 차마 맞바로 볼수 없어 조용히들 물러갔다.

경희는 리더장에게 그들을 구원해야 하지 않는가고 열에 떠 말하였다.

리더장은 그 말을 묵묵히 듣고 아버지가 자식에게 하듯 타일렸다.

《그들은 죽으려 간것이 아니야. 너랑 나랑 바라는대로 꼭 돌아올거다.》

그로부터 얼마후 군단작전지구에 도착한 리더단은 사단으로 승격하였고 경희는 그길로 군단참모부로 조동되었다가 대학생소환에 관한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에 따라 평양으로 떠났다.

× ×

전쟁은 승리로 끝났다.

전선에서 사람들이 돌아오고 도시는 불에 그슬린 옷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모습으로 단장을 시작했다.

대학을 졸업한 경희는 생물학연구소에 배치되었다. 영웅적위훈, 영웅적희생에 대한 처녀의 랑만은 이른아침 파복돌 깔린 건설장을 지나 회백산뜻한 연구소로 들어가는 좁은 길우에 내려앉았다. 맡겨진 사업에 대한 성실성이 포화속에서의 위훈과 상사되는 때임을 잘 아는 경희였다.

경희는 이때 스물네살이었다.

그의 동무들은 거의가 시집을 갔다.

경희에게도 남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하얀 뽀뽀링에 까만 점이 박힌 달린옷을 입은 날씬한 몸매의 경희가 걷는 길에는 그 시절에 외출복이라 일컫는 검정바지에 흰 와이샤쓰를 입은 몇쟁이 총각들이 자주 열썬거렸다.

그러나 경희는 그 총각들을 보지 않았다.

《난 싫어요.》

중대군들이 찾아온다는 어머니의 말을 이렇게 잘라버리는 경희였다.

그러나 경희는 동무들의 결혼식에는 꼭꼭 갔으며 갔다올 때마다 심란한 마음을 금치 못했다. 솔직한 심정으로 그 동무들이 부럽기도 하였으나 한편 무언가 허무한감을 느꼈다.

(저들은 서로 무엇에 끌렸을가. 무엇으로 하여 사랑할가.)

그런 어느날 레식장에서 전쟁참가자인 두 신랑신부의 2중창 《전호속의 나의 노래》를 듣던 그는 연기몽몽한 불의 별판을 그려보며 화력부관의 얼굴을 상기하였다.

이미 경희는 그때의 차단조성원 거의가 장렬한 최후를 마쳤다는것을 알고있었으나 그만은 이 땅 어디엔가 살아있을것이라고 믿으려 했다. 그러면

서도 그에 대해서 남들에게 묻는다든가 지어 회상하는것조차 두려워했었다.

그런데 이때만은 그 화염이 노을처럼 서린 전장에 대한 추억을 깊이 오래도록 끌고싶었고 그와 나란히 꿈안개의 오솔길을 걷는 달콤한 환각에 빠져들기도 했다.

(이 감정이 진짜 사랑일까?... 모든것을 바치고 위하는 사랑이... 그렇다면 나는 무엇으로 하여 그를 사랑할까. 조국앞에 충실한 그 정신에!... 하긴 그것이면 다지. 그것이면!...

그러나 그는 영영 못올수도 있잖은가.)

이 마지막 생각은 예리한 비수처럼 심장을 찔렀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옆의 갓 지은 2층벽돌집에서는 아이들의 글썽는 소리가 랑랑히 들려왔다.

그 창문들에는 붉은 노을이 아롱져 뿔날았다. 집에는 며칠전에 외국에서 돌아온 아버지(아버지는 외교관이였다.)가 금간 벽들에 땀질을 하고 담쟁이와 포도넝쿨을 취올리였다. 잎이 푸른 포도나무를 보며 아버지는 기뻐 말하였다.

《이 뿌리에도 파편이 박혔구나. 그런데 보라. 생은 이렇게 검질건것이다.》

경희는 이날 어두울 때까지 포도나무를 가꾸는 아버지를 도왔다. 흙을 복돋고 물을 주고 매개순을 헤여보기도 했다.

잡자리에 들었을 때도 눈앞엔 잎푸른 포도나무의 말라버린듯한 터슬터슬한 줄기에 뽕족뽕족 돋았던 새순이 삼삼히 떠올랐다.

《뿌리가 상했는데도 살았어.》

다음날 경희는 아버지가 사온 새옷을 입고 그 어느때보다 생기에 넘쳐 직장에 나갔다.

연구소의 수많은 녀학자는 경희의 변모에 눈이 휘둥그레졌다.

《봄이 찾아온가보지요.》

하면서 그는 귀속말로 사랑의 철학을 풀었다.

《사랑이란 마른 하늘의 번개불갈아서 돌연히 찾아오는 때도 있습니다. 그 불을 조심해야 돼요. 자칫하면 모든것을 다 태워버리거든요.》

경희는 이 수다스럽지만 맘씨 고운 녀학자의 통담에 처음은 웃었지만 결국 자기의 과거를 고백하고 말았다. 자기의 고민도 이야기하였다.

녀학자는 진심을 기울여듣고 말했다.

《련정이란 소녀에게 처녀의 눈을 퇴위준다고 해요. 하다면 동무의 그때 감정을 한 총각에 대한 처녀의 순정으로 볼가요. 그럴순 없지요. 그건 화선에 선 전사의 백열한 감정, 범일반적인 공민감정으로 우리가 영웅들앞에서 갖게 되는 공통된 감정일따름이지요. 그걸 사랑이라 할순 없지 않아요. 참된 녀성은 이 세상에서 오직 한 남자만을 사랑하게 되는데 그러한 동무의 감정을 사랑이라 부르면 이 세상 처녀들은 전사했거나 영웅적으로 싸운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해야 하는것

으로 되지 않아요. 그런데다가 동무는 순간의 말 한마디로 약속한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건 약속이 아니예요. 잊으라요. 사람에겐 미련이 있어요. 특히 과거에 대한 미련, 과거를 보존하려는 욕망은 강한것인데 그건 저급한 정신적속성이지요... 생활의 흐름에 따라야 해요.》

경희는 그 말을 끝까지 들었으나 이미 자기의 비밀을 터놓은것을 뉘우쳤다. 머리가 뻥하고 불쾌했으며 녀학자마저 막 험오스러웠다.

그는 다시는 자기 마음속의 비밀을 그 누구에게도 헤쳐놓지 않으리라 마음먹었다.

이것을 모르는 주변에서는 방년의 아름다운 처녀를 가만 뉘돌수 없었다.

경희네 집 때문에 달린 딸랭이는 이즈음 와서 더욱 자주 올랐다.

그 소리는 기대를 안고 찾아왔다가 실망하고 돌아가는 중매군들에게 보내는 이 집의 미안스런 인사처럼 울렸고 경희의 어머니에게는 주름살을 질게 하는 원인으로 되었다.

그런 어느날 경희가 직장에서 돌아오니 어머니는 옷방의 옷장을 열어제껴 옷이란 옷은 모조리 꺼내놓으며 제일 화려한걸로 골라입으라고 했다.

아버지가 같은 직장에 있는 총각을 데리고 온다는것이였다.

경희는 이때껏 혼사말에 간참하지 않던 아버지의 이 뜻밖의 발기에 너무나 아연하여 아무말도 못했다.

어머니는 아버지의 뜻이니 어기지 말아야 한다고 다짐하고는 부엌으로 내려가 칼장단을 울리기 시작했다.

어머니가 나가자 경희는 옷들을 하나하나 개여 옷장에 넣기 시작했다. 나프탈린내가 나는 옷가지들중에는 고종때 입던 쉼라복도 있었다. 그 쉼라복을 대보니 허리단이 깡충 올라간것이 우습기 그지없었다.

《수태 컸구나.》

철없던 그 시절이 떠오르며 왜서인지 불쑥 눈물이 솟구치려 했다. 그는 황급히 쉼라복을 개여 옷장에 밀어넣었다.

그런데 옷가지속에 하얀 가제보로 찢것이 드러났다. 대학에 올 때 입고온 군복이다.

군복을 만지는 경희의 손가락은 가늘게 떨렸다. 고결한 리상, 위훈에 대한 동경에 가슴불태우며 포연서린 전장의 길을 걷던 랑만에 찬 시각들이 영화의 화면처럼 떠올랐다.

애뜻한 정과 선망어린 눈길로 자기를 보던 엑센 사내의 모습이 얼썩얼썩 지나갔다.

이처럼 묵은 기억이 되살아나 가슴찌릿한 정회를 불러일으키자 경희는 군복에 얼굴을 묻고 소리없이 따뜻한 눈물을 쏟았다.

아픔은 시간의 흐름따라 사라져내리고 간 사람들의 모습은 세월의 입김에 다 씻어지련만 처녀의 가슴에 안긴 한벌의 군복은 피와 땀과 먼지와

불과 포연과 무수한 위훈의 모습들을 별찌처럼 휘뿌리며 무언가 뜻깊은 이야기를 속삭이는 것이었다.

좁아서 경희는 눈을 닦고 평소에 입던 옷을 그대로 입고 거울에 비춰본후 연화장을 하여 울음의 자취를 감추어버렸다.

그리고 웃어보았다.

그러자 방금전의 울던 자기는 어디로 가고 매혹적인 녀성이 홀리듯 그를 마주보는 것이었다.

(참, 이렇게 얼굴표정과 색깔을 바꾸듯 마음과 감정을 필요에 따라 조종하고 필요에 따라 지워버린다면 얼마나 편할까.)

경희는 자기의 가슴속에 뿌리박힌 사람에 대한 감정은 그 무엇으로도 변하게 할수 없음을 더욱 사무치게 깨달았다.

이 시각 연구소의 녀학자가 앞에 있다면 그는 무언가 신랄하고 의미심장한 말로 그 녀자의 사랑철학에 맞설것이었다.

이때 대문가에서 딸랭이소리가 울렸다.

경희는 약간 흠칫하였으나 인차 태연하고 밝은 기색으로 아래방에 내려갔다.

어머니는 그가 옷을 갈아입지 않은데 대해서 책망할 틈이 없었다.

아버지와 함께 까만 모직의 단긴옷을 단정하게 입은 청년이 들어섰던 것이다.

그 청년에게 기계적으로 인사를 하고 고개를 들던 경희는 하마터면 《아니!》 하고 소리칠 뻔 하였다.

순간이지만 그의 눈은 앞에 청년을 화력부관으로 착각했던 것이다.

의지와 담력이, 선량함과 억센것이 담긴 환한 얼굴과 크고 검은 두눈은 귀중한 그 사람을 몹시도 방불케 하였다.

그러나 한 찰나가 지나자 경희의 눈앞에서 청년은 너무나 낯선 먼거리의 사람으로 되고말았다.

경희는 이 청년이 수도복구건설을 지원하는 청년학생집회에서 만장의 인기속에 토론하던 대학생돌격대 대장이었음을 알아보았다. 그러나 반가움은 느끼지 못했다.

경희를 긴장히 주시하던 청년은 대범하게 웃으며 말했다.

《저를 누군가 다른 사람으로 착각했군요.》

《예, 그랬답니다.》

경희가 이렇게 뻔뻔히 대답하자 청년은 가슴속까지 투사하는 그런 명민한 눈길로 꿰뚫듯 보다가 눈을 내리깔았다.

《그랬됐군요.》

청년의 얼굴엔 그림자가 스쳐갔다.

그러나 자리에 앉았을 때 그는 명쾌한 태도로 요즈음의 복구건설정형이며 자주 흐리는 날씨가 농사에 주는 영향을 이야기했다.

행동거지는 소탈하면서도 점잖았다. 말은 은근했다.

경희는 그가 선보려 온 남자가 아니고 여느 동무였다면 나무랄데 없이 훌륭한 벗으로 되었으리라는 것을 알았다.

그런데 식사가 끝나 어머니가 옷방에 올라가 이야기들을 나누라고 하자 청년은 선뜻 응하는 것이었다.

《그렇지요. 제목이 <선보기>니 내용을 채워야겠군요.》

웃으며 톱말로 넘긴 청년은 혼연한 태도로 방문턱을 넘었다.

경희는 그에 대한 좋은 인상을 잃어버리고마는 구나 하고 생각했다.

청년은 개이다가 만 군복과 각뿔이 선 경희를 보다가 이제까지의 험한하고 명쾌스런 빛을 싹겨둔채 무겁게 물었다.

《오지 말아야 할데를 왔지요?》

경희는 인차 대답하지 못했다. 이 남자의 얼굴과 눈빛에서 괴로움을 보았기때문이었다.

《난 동무를 대학생활때부터 알고있었습니다.》

두번째 말에 경희는 그를 마주보았다.

《난 동무를 좋게 기억하겠어요.》

《그것이 전뿐니까.》

청년은 묻고 한숨을 지었다. 그는 군복을 보다가 쓸쓸히 물었다.

《저 시절이 제일 좋았겠지요?》

《훌륭했어요.》

《알겠습니다.》

밖에서는 비가 부슬부슬 내렸다.

경희는 청년을 바래 대문가에까지 따라나갔다.

거기서 청년은 분함어린 어조로 다급히 물었다.

《어데 있습니까? 누굽니까?》

경희는 비에 젖어 선뜩한 딸랭이를 한손으로 잡고 살그머니 대문을 밀어젖히며 말했다.

《...먼곳에 있어요. 전선에-》

대문은 소리없이 열리고 소리없이 닫졌다. 그러나 경희는 남자의 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를 뜨지 않았다. 터벅터벅 걸어가는 그 발자국소리를 헤이며 가슴쓰린 동정과 련민을 느꼈다. 《거기 서세요.》 하고 부르고싶었다. 그러나 세운 다음 할말이 없다는것을 잘 아는 그는 그저 속으로 미안해하며 랑해를 바랐을뿐이었다.

방에 들어서자 어머니는 외면하였고 아버지는 머리를 저었다.

《넌 사람을 잘못보는구나. 네 일이 섭섭하다.》

경희는 그 언제나 리해성이 많고 공명정대한 아버지의 이 말에 가슴이 미여지는것 같았다. 이 순간 그는 자기 마음속 비밀을 절대로 헤쳐놓지 않겠다던 맹세를 잊고말았다.

《아버지, 저한테 약속한 사람이 있어요.》

《뭐라구! 어데 있니?!》

먼저 묻고 반색하는것은 어머니였다. 경희는 화력부관에 대해서, 그와의 약속에 대해서 말했다.

그의 말에서 화력부관은 영웅이었으며 그들의 사랑은 무엇으로도 깨뜨릴수 없는 열렬하고 참된 것이었다.

《돌아 못온다면-》

그의 말이 끝나 오래도록 움짱 앓고있던 아버지가 조용히 물었다.

경희는 인츰 대답을 못했다. 입만 열면 흐느낌이 터져나올것 같았다. 저고리고름으로 조용히 눈굽을 짖어내던 어머니가 목잠긴 소리로 뇌였다.

《살아온다면 오죽 좋으랴만 이제껏 안오는 사람을 어찌 기다린단말이나.》

《어머니!》

그는 오열을 터뜨리듯 웨쳤다. 혼자속으로 몇 십백번을 외웠던 맹세의 말들이 푹터친 물처럼 쏟아져나왔다.

《기다릴테예요. 살아도 죽어도 나는 그를 잊을수 없어요.

조국을 위해 오늘의 우리를 위해 자기를 바친 그 정신에 나는 반했어요. 그래서 사랑했어요. 그 래 약속했던것이예요. 만약 내가 배반한다면 단 순히 그 사람에 대한 배반일것 같아요?

난 녀성이기전에 공민이예요.》

《원 무슨 말인지-》

어머니가 허를 찔 때 아버지는 경희의 손을 꼭 잡고 흥분한 어조로 말했다.

《장하다. 내 딸아!》

이날부터 경희네 집 대문가의 딸랭이는 《소휴식》을 하게 되었다. 중매군들의 발길이 뜸해진 것이다.

집에서는 누구도 혼사말을 비추지 않았다.

경희는 그 어느때보다 집에서 명랑한 응석받이 《역》을 놀았고 직장에 나가서는 발랄한 웃음을 뿌리며 일에 직심스러웠다.

처녀의 수심을 본 사람은 없었다.

하나 고요한 저녁 외롭게 있을 때면 가슴속에 싸늘히 스며드는 고독과 힘겹게 싸우며 기다림의 피로움을 맞보는 경희였다.

그날 저녁도 비가 부슬부슬 내렸다.

추석거리는 비소리로 하여서인지 그 어느때보다 마음이 허전하고 쓸쓸했다. 그는 창가로 다가가 밖의 풍경을 하염없이 보고있었다.

길건너편의 새로 짓기 시작한 아파트의 2층벽체에서 용접불꽃이 섬광을 일으켰다.

불빛은 밤어둠을 수시로 동강내며 그 푸르고 창백한 빛으로 부연 비발과 번들거리는 가로수며 달려가는 행인들을 비추었다.

그런데 가로수밑에서 한사람만은 유독 움직일 줄 몰랐다.

경희는 비를 맞으며 우두커니 서있는 그 사람이 측은하여 한참이나 보았다.

그 역시 경희쪽을 보았다.

경희는 불견 방이라 그의 눈에 뜨이는것이 싫어 전등을 켰다.

그때도 그 남자는 여전히 서있었다.

평곳!

푸른 섬광이 뻗치자 홀연 그 사람의 자태가 명료히 드러났다. 군복을 입은 후리후리한 키의 그 사람의 가슴에는 훈장이 그득했다.

(제대병사인가. 요즈음 몇만명씩 제대된다고 했지. 저 사람은 집이 없는게구나. 아니면 여기 어디에 자기의 옛 추억이 있어 서있는것일가?)

또한번 평곳!

창백한 빛에 조명된 얼굴이 확 드러났다. 그 얼굴을 바라보던 경희는 《아!-》 하고 소리쳤다. 잊혀졌던 화력부관의 얼굴이 그 모습에 생생히 재현되어있지 않는가.

(내가 환각에 빠졌나? 요전번에도 그랬지.)

머리를 흔들어보았다. 그리고 다시 보았다.

그때는 캄캄한 어둠이다.

좁아터 다시 푸른 빛이 번쩍했으나 그 남자는 보이지 않았다.

(그래, 착각이다.)

하지만 그 얼굴은 지워지지 않는다.

잊을수 없는 모습이다.

하나 생각할수록 가슴은 저미는듯 아프고 괴롭다.

경희는 그 아픔을 덜려는듯 고개를 흔들었다.

앞에 길로 석톤짜리 짐차가 련결차를 끌고 천천히 굴러오고있었다.

전조등빛이 이리저리 헤엄치다가 길을 건느는 한사람의 형체를 붙잡았다.

그 사람은 강한 불빛을 막노라 왼손을 쳐들고 덤비지 않으며 도로를 넘어섰다.

경희는 눈을 비비었다.

심장이 가빠오르며 눈앞이 핑글핑글 도는것을 느꼈다. 그는 신음하듯 뇌였다.

《그다! 그다! 그다!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경희는 낮이 흰도자기처럼 질러 사이문을 열었다. 만사가 뒤범벅이 되었다.

그는 어머니의 놀란 웨침도 방문옆에 세워둔 탁자가 넘어져 그가 애용하던 꽃병이 깨어지는것도 모르고 문을 세차게 떠밀었다.

눈에 뜨이는 신발을 신다가 그것이 아버지의 신발인것을 알자 훌 벗어던지고 달려나갔다.

무엇엔가 걸려 휘곳 넘어질듯하던 그는 다시 몸을 곧추 펴며 그대로 달렸다.

《조성진동무!》

환희에 차 부르는 처녀의 랑랑한 웨침이 울렸다.

대문이 요란스럽게 열리였고 딸랭이가 딸랑거렸다. 그 어느때보다 급히, 소란스럽게!

바람같이 달려나간 경희는 자기를 향해 뛰어오는 화력부관에게 쓰러질듯 다가섰다.

대문에 달린 딸랭이는 그때까지 딸랑딸랑하며 긴 여음을 남겼다.

# 꽃다발

김정남

하얗게 된서리가 내린 이른아침이다.

아빠트충계를 쿵쿵 뛰어내려온 채순은 마당앞에 있는 작은 공원을 돌러보았다. 그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두손을 마주잡으며 탄성을 올렸다.

공원의 나무우듬지들에 마치 은세공을 한듯한 상고대가 흰꽃처럼 뽀족뽀족 돋쳐있어 볼수록 신비스럽고 아름답기만했다. 저도모르게 은행나무 밑으로 다가간 처녀는 가지 하나를 살짝 흔들어 놓았다. 흰가루가 그의 파란 외투어깨며 목덜미로 이슬비 내리듯 차분차분 날아들었다. 채순은 목을 움츠리며 생긋 웃었다. 이번에는 키돋움을 하여 또 한가지를 잡는다.

그때 갑자기 어디선가 아슴프레 음악소리가 들려왔다. 순간 채순의 입가에 새물거리던 미소가 사라졌다. 분명 그리 멀지 않은 자기네 공장에서 들려오는것이였다.

공장예술소조원들이 출근길에 들어선 노동자들을 고무하여 아침마다 울려주는 취주악소리다.

(어마나, 벌써 모두들...) 살머시 나무가지를 놓아준 처녀는 공장을 향해 중중걸음을 놓았다.

사람들의 가슴을 울렁거리주며 흥겹게 해주는 음악소리가 점점 크게 들려온다.

무엇때문에 가지고 가는지 처녀의 한쪽어깨에 걸려있는 빈 배낭도 함께 춤을 춘다.

공장정문에는 사람들이 물밀듯 흘러들어가고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올해 신년사과업 관철을 위해 부글부글 들끓고있는 공장이였다.

오늘은 월생산을 마무리하는 날이여서 모두 일찍 출근한 모양같았다.

채순이는 사람들 사이로 헤엄치듯 날쌔게 뚫고 들어갔다.

예술소조원들은 사람들속에서 혁신자들을 찾아내어 꽃목걸이를 걸어주고 목마를 태워주고있다.

그들의 나팔소리, 북소리, 징소리는 사람들의 가슴을 뜨겁게 울려준다. 꽃다발을 받아안으며 활짝 웃음을 피우는 혁신자들을 부러운 눈매로 바라보는 채순의 가슴이 느닷없이 설레였다.

(난 언제면 혁신자가 되어 저런 꽃다발을 받아볼가!)

머리위로 오색테프가 무지개처럼 반원을 그리며 날고 꽃보라가 함박눈처럼 쏟아져내렸다. 채순은 공장의 독창가수로 소문이 자자한 창숙이를

알아보았다.

창숙이가 꽃다발을 흔들며 채순이쪽으로 가볍게 달려왔다.

《채순이, 오늘 꼭 기증기를 몰아!》

그는 채순의 오동통한 손을 꼭 잡아주었다.

《앤...》 말끝을 얼버무리며 몇걸음 떠밀리어나가던 채순은 그만 얼굴을 활짝 붉혔다.

《아이 꽃다발이...》

처녀의 가슴에로 꽃다발이 날아든것이다. 몇사람의 어깨너머로 창숙이가 손을 들어 훑어보인다.

그가 꽃다발을 던져준 모양이다. 채순은 잠시 멍하니 섰다.

혁신자도 아닌 내가 꽃다발을 받다니...

가슴이 울렁거렸다. 그러나 다음순간 가슴속에 기쁨이 내려쳐올랐다.

오늘 나는 복실언니 대신 기증기를 몰게 됐거든, 혁신자들과 손발을 맞춰 일하자면 나부터 혁신자가 돼야 해...

지금껏 견습을 주던 복실이가 지난밤 등교수업을 떠났다. 그래서 채순은 오늘부터 기증기운전을 혼자 감당한다는 기쁨과 자랑으로 설레는 가슴을 안고 출근하는길이었던것이다.

채순은 꽃다발을 한손에 옮겨쥐고 탄력이 넘치는 걸음을 옮겼다.

얼마쯤 걸어나가던 처녀는 문득 앞쪽에서 싱글싱글 웃으며 다가오는 성팔이와 마주쳤다.

(아이 어쩔가...) 채순은 얼굴을 돌리며 옆사람 틈새로 황급히 빠져나가려 했다. 그러나 빠져나갈수 없었다.

(또 놀러대려구 저렇게 히죽히죽 웃으며 다가오는게지.)

아닌게아니라 성팔은 채순이앞에 우뚝 멈춰섰다.

《채순동무, 축하하오! 우리의 견습생이 꽃다발을 받은건 우리 작업반의 자랑이요!》

성팔이는 별스레 눈을 깜벅거리며 시물시물 웃는다. 견습생이란 말이 딱 질색인 처녀는 입술을 꼭 다물고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했건만 그러는 채순이가 더 재미있다는듯 성팔이는 눈웃음을 치며 말을 이었다.

《동무가 꽃다발을 안고 환하게 웃던 모습! 한장 찍었으면 멋있는 기념사진이 됐을걸...》

처녀는 들은순만송 머리를 다소곳이 숙이고 다



복다복 걷기만했다.

(글쎄 이런 동무와 오늘 어떻게 일을 같이 할가. 기중기가 조금만 늦어도 눈을 부라리며 소리치겠지.)

억대우같이 일하는 기대공 성팔은 기중기에 대한 요구성도 무섭게 높았다.

복실이가 운전할 때도 기중기가 조금만 늦어도 고수머리우에 삐뚜름하게 눌러쓴 모자채양을 밀어올리며 《곰뽕이야!》 하고 울러메기가 일쑤였다.

《아니 그런데 이젠 뭘 배낭이요?…》

성팔은 싱긋이 웃으며 채순의 등에 찰싹 들어붙은 빈 배낭을 흔들어놓았다. 채순은 한해 먼저 공장에 들어왔다고 우쭐렁거리기 잘하는 성팔이가 밍살스러웠다.

《남의 일에 참견 말아요.》

채순은 이 말을 남기고 버성겨진 사람들 틈새를 비집고 나갔다. 성팔이는 처녀가 자기네 직장으로부터가 아니라 한창 건설중인 새 직장쪽으로 뿔뿔히 달러가는것을 의아스러운 눈길로 바라보았다.

빈 배낭을 메고 건설장으로 뛰어가는것이 아무래도 수수께끼처럼 생각되었다.

그는 머리를 기웃거리며 처녀를 지켜보았다.

배낭을 벗어든 처녀가 모래더미로 다가선다.

(그렇다! 모래…)

채순이가 반쯤 불룩한 배낭을 추슬러올리며 뒤늦게 직장안으로 들어섰을 때에는 벌써 대렬을 정돈하는 직일반장의 구령이 지령지령 울렸다. 그는 황급히 걸음을 멈추고 대형불반뒤에 엉겨주춤 붙어섰다. 작업장안이 물을 뿌린듯 조용해졌다.

문득 채순의 앞쪽에서 석싹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기대사이로 내다보니 키가 흰칠한 부직장장대호가 반장과 이야기를 하면서 걸어오고있었다. 전에없이 큰 목소리로 말하는 부직장장의 철색얼굴은 무엇때문인지 엄해보였다.

《반장동무, 채순이한테 운전대를 맡겨 일없겠소?》

두근거리는 가슴을 달랠길없어 처녀는 입술을 감물고 대호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얼마나 인정이 후더분하게 느껴지던 부직장장이었던가. 성팔이 으름장에 주눅이 들 김새가 조금만 보여도 기중기운전칸에 올라와 어깨를 가볍게 다독여주며 힘을 내라고 고무해주던 그가 아니었던가. 그런데 웬일인가?

성이 난것 같은 그의 얼굴, 너무죽한 입가에 웃음이 떠도는것 같기도 하고…

처녀는 아리송하여 머리를 가웃거렸다.

작업반장은 열성스럽게 채순이를 두둔해나섰다. 《견습기간을 채 마치지 못했지만 채순동무는 누구보다 열성이 높지 않습니까.》

《열성?… 그런데 채순동무는 왜 아직 보이지도 않소?》

채순은 용수철에서 튕겨나듯 두사람 앞으로 불쑥 뛰어나갔다.

《부직장장동지, 여기 있어요!》

입술을 굳게 다물고 대호의 얼굴을 원망과 반발에 가득찬 눈매로 바라보는 채순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그래 제가 못해낼것 같습니까? 얼마든지 할수 있습니다!》

너무도 뜻밖의 일이란듯 대호는 어쭙은 눈으로 채순의 깔금한 눈이며 고집스럽게 꼭 다문 입술을 바라보았다.

어리둥절한 반원들의 못시선이 자기에게 쏠리고 있음을 눈치챈 채순은 입술을 꼭 깨물며 몸을 꺾 돌렸다.

《저의 힘을 왜 믿지 못하세요?》

이렇게 련달아 쏘아붙이지 못한것이 후회스러웠다. 돌아선 채순의 등에 드리워진 배낭뒤주머니에 꽂혀진 꽃다발을 본 대호의 입가에는 느슨한 웃음이 피어올랐다.

(응! 마음차비가 그럴듯해. 복실이를 대신해서 해내겠단말이지?!)

대호는 채순의 곁에 다가서자 배낭을 어루만지며 말했다.

《벌써 꽃다발까지 받았군, 그럴듯해. 그런데 이젠 뭘 쌀을 이렇게 많이 가지고 나왔소? 후방파에 신청만 하면 더운밥을 해다주지 않으리.》

남의 속은 모르면서…

채순은 대호의 얼굴을 곧바로 쳐다보며 항의하였다.

《저도 할수 있습니다.》

외톨밤알처럼 당돌하게 돌려뻗힌 처녀를 내려다보던 대호는 사정하듯 말하였다.

《채순동무, 오늘은 한달전투를 계속짓는 결정적순간이 아니요. 오늘은 그대로 견습공으로 일하면 더 많은것을 배울수 있을것 같은데…》

술진눈섭을 쫓기거리며 마주선 반장에게 의미깊은 눈짓을 보내는 대호의 입가에 미소가 어려있다는것을 처녀는 미처 느끼지 못했다.

《부직장장동지는 저에게 전쟁때 이야기를 해주셨지요. 중기사수가 부상당하자 부사수인 부직장장동지가 사수를 대신해서 달려드는 미국놈들을 죽었다고…》

《그때는 어떻게 할수 없는 전투마당이였소.》

《오늘 우리의 하루도 전투가 아닙니까? 저도 그 부사수처럼 복실언니를 대신하겠어요.》

대호는 머리를 가로 저으며 뒤집을 지며 반원들쪽으로 눈길을 돌렸다.

《어떻소? 기대공동무들! 기중기운전이란 가공자들과 손발이 맞아야만 혁신을 할수 있지? 그 어느날보다도 혁신을 요구하는 오늘 채순동무가 꽤 손발을 맞출것 같소?》

대호는 반원들을 일별하였다.

반원들을 쳐다보던 채순은 성팔이와 눈길이 마주치자 고개를 숙이고말았다.

(성팔동무두 날 애송이라고 밀어내치겠지?!...)

채순은 입술을 꼭 깨물었다.

얼마전 일이 눈앞에 확 밟혀왔다.

채순은 공중에 둥둥 떠서 기울거리는 조립기판 본체를 달고 성팔이 기대쪽으로 기중기를 조심스럽게 밀어갔다.

허리에 손을 지르고 기중기를 쏘아보던 성팔이가 모자채양을 쑥 밀어올리며 무섭게 눈을 부라리며 소리쳤다.

《굼벵이야! 굼벵이!》

손을 앞으로 내뻗치며 기관총을 쏘듯 또 내뻗는다.

《그렇게도 무서워, 겁쟁이같은거 씽씽 내몰란말이야!》

처녀는 입술을 옥문채 그를 민망스럽게 내려다보며 기중기를 몰아갔다.

제품이 기대우에 떠있건만 성팔이는 손을 들어 맞춤신호를 보내지 않고 여전히 통방울눈을 뒤쫓구며 쏘아본다.

《아이 어찌면 좋아요? 복순언니.》

채순은 울먹거리며 뒤에 선 복순에게 구원을 바라듯 말했다.

《어떻게 하긴 고분고분 휘어들면 기중기를 못배워.》

복순이가 뽀로통해서 쏘아붙였다.

채순은 용수철처럼 긴장해졌다. 처녀는 원망과 항의에 찬 눈길로 성팔의 험상궂은 얼굴을 쏘아보았다. 해서인지 성팔은 그제서야 손을 들어 맞춤신호를 보냈다. 채순은 펄 조심스럽게 기대사이로 살며시 제품을 내려보냈다. 살래살래 손을 흔들던 성팔이가 불시에 얼굴을 들며 두손을 어깨높이로 쳐들었다.

채순은 가슴이 텅텅 내려앉는것 같았다.

(사고?) 처녀는 지구 사이로 내려앉던 제품을 공중 들어올렸다.

《차, 이거, 쑥 내려보내지 못하겠어, 답답해죽

졌군.》

성팔이가 발을 탕 구르며 아까보다 더 큰소리로 뇌까렸다. 채순은 숨이 호 나갔다. 사고는 아닌 모양이었다. 그는 신호를 기다렸다.

손을 들어 신호를 보내는 성팔이는 지구 사이를 가늠해보는것이 아니라 왕청같은곳으로 눈길을 보내고있었다.

(무엇때문일가?)

그러나 채순은 그의 신호대로 제품을 내려보냈다. 제품이 지구사이로 거의 내려갔을 때 성팔은 또 손을 쳐들었다.

채순은 제품을 들어올렸다. 놀림을 받는것 같았다.

(내가 못마땅해서 저럴가?)

채순은 성팔이가 요구하는대로 몇번씩이나 제품을 들어올리고 내리고 하였다.

제품을 기대에 물리고난 성팔이는 떠나가는 채순이를 올려다보며

《어때? 혼났지? 다음번에 또 몽개면 열번 반복이야. 하하! 동무한텐 그런 반복훈련이 필요한거야.》 하고 손채주를 부리는 명랑한 교예배우처럼 나사틀개를 공중으로 뒤여뿌렸다가 받아쥐며 호탕하게 웃어제꼈다.

《그것 봐! 운전공을 제손안에 틀어쥐자고 하는걸. 넌 그것도 모르고 순종했어.》

《언니, 그럼 어떻게 해요. 반복동작을 하면서라도 배워야 하지 않나요.》

처녀는 물기가 핑 도는 눈으로 가공작업에 여념이 없는 성팔이를 바라보았다.

《전 채순동무가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뜻밖에도 성팔의 웅글은 목소리였다. 채순은 너무도 의외로운 일이어서 종잡을수 없는 눈매로 성팔이를 여겨보았다.

(정말 그게 동무의 진심이예요?)

처녀의 눈길은 이렇게 말하고있었다.

《아니 성팔동무는 채순동무가 운전대를 잡기만 하면 성차지 않아 통을 주곤하지 않았소.》

미간을 찌프린 대호가 무뚝뚝한 목소리로 말했다.

《채순동문 이악쟁이입니다.》

흐하! 웃음이 터져나왔다.

《웃을 일이 아닙니다!》

큰소리로 웃음을 날려보낸 성팔이는 두릿두릿한 눈으로 사람들을 휘둘러보며 말했다.

《길고 짧은건 대박야 알게 아닙니까. 시켜봅시다.》

모두 어리뻑뻑한 눈으로 채순이와 성팔이를 번갈아 바라보았다.

그도그렇것이 채순이가 운전대를 잡기만하면 무섭게 눈을 부라리며 반복동작을 요구하던 성팔이가 그런 아량을 보이리라고 어찌 생각을 할수 있으랴.

채순은 획 몸을 돌려 대호를 향해

《부직장장동지, 기중기주인은 오늘부터 저예요!》 하고 야무지게 말하더니 기중기쪽으로 총알처럼 뛰어나갔다.

(허 댔어, 마음의 준비가 그만하면 됐거든... 무슨 일이든 마음먹기탓이지.)

대호는 그제서야 얼굴에 숨기었던 웃음을 피우며 날렵하게 사다리로 치달아올라가는 채순이를 바라보았다.

(해낼거야! 말썽이던 성팔이까지도 그를 지지해나섰으니...)

대호는 소리내어 웃고있는 반원들쪽으로 시선을 옮기며

《기대공동무들! 합심된 마음으로 서로 도우면서 잘해야 하오!》 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타이르듯 말하였다.

이때 작업시작을 알리는 고동소리가 눈부신 햇빛을 안고 반짝이는 채광창너머에서 길게 울려 퍼졌다.

기중기운전칸에 올라온 채순은 배낭을 한쪽구석에 내려놓고 꽃다발을 뽑아들었다.

(흥! 보라지, 우리 앞에 부과된 오늘 생산을 무조건 해내고야말테야!)

작업장이 한눈에 안겨온다.

기계들이 숲을 이룬 직장의 《하늘》을 제비처럼 날아가는 채순이!

가슴이 한껏 부풀어오르며 기쁨이 샘솟듯 솟구쳐오른다. 직장의 《하늘》을 자기 힘으로 마음껏 날고싶던 오늘이 아니었던가!

채순의 마음인양 기중기는 주행로우로 사르르 미끄러지며 내닫는다. 기중기가 날고있는 작업장 밑에서 기계들이 웅!-요란한 동음을 내지르며 돌아가기 시작했다. 채순은 운반차들이 나들게 되어있는 통로쪽으로 기중기를 몰아갔다.

름름한 체구를 뒤로 제끼고 무표정한 얼굴로 기중기운전칸을 올려다보던 성팔이가 손을 쳐들었다. 채순의 입가에 피어났던 미소가 가뭇없이 사라졌다.

(성팔동무가 또 애를 먹일거야. 하지만 나는 해낼테야.)

채순은 재빨리 권양갈구리를 제품들이 덧쌓인 밑으로 내려보냈다. 돌맹이처럼 떨어지는 권양갈구리를 공다루듯 덤석 거머잡은 성팔은 그것을 차축고리에 철거덕 걸어놓았다. 기계바다우로 등

등 떠가는 차축을 앞질러 쟁걸음으로 달려가던 성팔이가 대형볼반 발판우에 훌쩍 뛰어오르며 손을 들었다.

역시 무표정한 얼굴이다. 그래서 더욱 긴장해졌다. 전갈으면 발판우에 올라선 성팔이가 모아채양을 손등으로 짚 밀어올리며 기중기가 늦다고 룡을 퍼부었을것이였다.

그렇게 실어온 제품을 기대의 지구가 설치된 인물대사이로 살며서 내려앉히는 운전조작은 무척 까다롭다. 기대공은 제품을 자기 기대에 몰릴때 손이 아니라 머리짓으로 신호를 보낸다. 기중기운전공은 더없이 긴장해서 기대공의 신호에 따라 재빨리 운전대를 돌려야 한다.

이런 작업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운전공과 기대공의 손발이 맞는다는것은 이런 작업을 한미리의 공차없이 척척 해내는것을 두고 이르는 말이다. 한두명의 기대공도 아닌 수십명이나 되는 작업반 매 사람과 기중기운전공은 눈으로 말하고 심장으로 느끼면서 일해야 한다.

지금 채순의 눈아래 펼쳐진 기계바다에는 선반이며 볼반, 후라이스, 보링 등 수많은 기대들이 주련이 늘어서서 제품을 가공하고있다.

채순은 팽팽히 켜기여진 기중기의 쇠바줄처럼 긴장해서 성팔이를 내려다보았다. 긴장한 순간의 한초, 한초!...

육중한 물체가 움찔움찔 지구사이로 접근한다. 기대 사이로 살며시 내려앉는 제품을 새매처럼 노려보던 성팔이가 머리를 끄덕인다. 맞춤을 요구하는 신호다. 간격이 좁아진다. 사소한 충격도 여기서 허용하지 않는다.

성팔이가 드디어 손을 번쩍 쳐들었다. 기다렸다는듯 채순은 제격 올림스위치를 꾀싸게 눌렀다.

성공이다! 그의 입가에 알릴듯 말듯 미소가 피어났다. 쇠바줄이 감겨올라가며 권양갈구리가 공중에서 뚱뚱 땀땀했다.

채순은 기중기를 살짝 밀어갔다.

(정말 이상해. 어제만 해도 애를 먹이더니... 출근할 때도 이죽거렸는데...)

채순은 멀리 바라보이는 성팔이쪽으로 눈길을 보냈다. 불바람이 일고있는 기계바다우로 우르릉거리며 내닫고있는 기중기가름보우에 나붙은 《모두다 속도전 앞으로!》라는 구호가 더욱더 가슴을 들끓게 한다.

오후작업은 더없이 바빴다. 줄곧 기계바다우로 내려치듯 기중기를 가로세로 몰아가는 채순의 상기된 얼굴에는 구슬같은 땀방울이 송골송골 내뿜었다.

어깨에 메고 온 절삭공구들이 가득 들어있는

작은 나무상자를 작업대 위에 올려놓은 대호는 기중기를 채치있게 몰아가고있는 채순이를 놀랍게 쳐다보며 머리를 끄덕거렸다. 그는 이마의 땀을 손등으로 씻으며 가공작업에 여념이 없는 성팔이를 힐끔 바라보았다.

(허 그 친구, 채순이가 운전대를 잡기만 하면 말썽이더니...아버이수령님의 현지교시를 관철하기 위한 결기모임에서 토론을 하더니 일본새가 핵 달라졌어...)

채순이를 올려놓지 않으면 다행일거라고 생각했는데 그와 합심된 마음으로 일하는것이 여느때없이 의젓하고 침착했다. 대호는 기중기창문너머로 머리를 빠끔히 내밀고 생글생글 웃으며 기중기를 쏘살같이 몰아가고있는 채순이를 다시 쳐다보았다.

새둥지처럼 아슬하게 바라보이는 기중기운전칸도, 좌우상하로 기동하며 제품을 물어오고 날라가는 기중기 손과 같은 권양갈구리도 직장의 《하늘》을 육중하게 가로건너간 대차에 매달려있다. 그 육중한 대차가 량쪽벽 주행선 레루를 따라 쏘살같이 달려가는 모습은 마치 하늘을 썰며 날으는 제비처럼 기세차다. 대차한복판, 권양갈구리를 달고 활차에 쉬임없이 사르르 감겨돌기도 하고 풀리기도 하면서 언제나 뽕뽕하게 켜기여있는 쇠바줄은 운전공의 마음속 탕개를 더욱 조이게 한다.

뽕그르 활자로 감겨올라가던 쇠바줄이 갑자기 《뽕!》 아츠러운 소리를 내며 활차에서 벗어나 구불구불 풀려나가는것을 발견한 순간 대호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앗차, 저 애순이가 어찌다가...》

대호의 등골로 식은땀이 주르르 흘러내렸다.

그는 맥이 탁 풀려 어망중에 들었던 손으로 허공을 내리그었다.

기중기밑 가까이에서 일하던 기대공들이 놀라 기중기위로 시선을 겨누었다.

한순간도 멈출수 없는 시간이 아닌가, 긴장해진 공기가 직장안을 숨가쁘게 떠돌았다.

대호는 기중기사다리로 부리나케 올라갔다. 헉헉 가쁜 숨을 토티쉬며 기중기 운전칸앞에 이른 대호는 두눈을 치뜨며 대차우로 눈길을 쏘아박았다. 채순이가 대차우로 나는데 달리고있었던 것이다.

《아니 저애가 어찌러는걸가?!》

활차에서 스르르 풀려나오는 쇠바줄을 덩석 잡아챈 채순이가 두발을 뻗디디며 힘겹게 몸을 제졌다. 그는 누구의 손을 빌리려고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대형볼반 발판우에서 몸을 허공 날려 뛰

여온 성팔이가 쇠바줄을 잡고 내려다보는 채순이를 불안한 시선으로 쳐다보며 소리쳤다.

《채순동무, 쇠바줄을 놓소! 내가 올라갈테니...》

《일없어요. 스위치만 넣어주면 되겠는데...》

채순은 말끝을 맺지 못했다. 운전칸쪽에서 귀익은 목소리가 들려온것이다.

《채순동무, 돌아오우. 내가 고칠테니.》

무뚝뚝하나 은정이 수더분하게 느껴지는 부직장장의 목소리였다.

《일없어요. 스위치만 내 신호대로 넣어주세요.》

《정말 해낼것 같소?》

《해낸다니까요.》

《그럼!...》

기대와 믿음으로 얼굴이 환해진 대호는 마음의 안정을 느끼며 스위치를 넣었다. 우르릉! 기중기가 움썩거리더니 권양갈구리가 밑으로 내려간다. 찰나 채순은 쇠바줄을 천천히 놔주며 소리쳤다.

《됐어요. 권양!》

쇠바줄이 활차에 감겨올라간다.

《좀 더 빨리요!... 좋아요.》

채순은 이마우에 함치르 내뿜은 땀방울을 손등으로 살짝 훔쳐내며 돌아섰다.

《수고했어요!》

채순은 뜨거워지는 가슴우에 두손을 얹으며 흐려진 눈으로 사다리를 내려가는 대호와 제긴 고수머리를 끄덕이며 벌썩 웃어보이는 성팔이를 내려다보았다.

통 잘 주던 성팔동무, 날 채찍질해주던 부직장장동지! 고마와요! 모두 도와주니 더 힘이 나요!- 그런데 왜 그랬을가. 아침에 부직장장동지는 여느때없이 큰소리였으니...

처녀는 먼곳에서 들려오는 종소리처럼 아늑하게 들려오는 목소리를 듣고있다.

한순간이라도 긴장을 늦추지 말라. 기적과 혁신도 그 한순간으로부터 시작되고, 그 한순간이 모여서 비약이 이룩되고 기적이 창조되는것이라. 귀중히 여길줄 알라. 그 한순간이 모여서 이루어진 그 뭉친 힘들...

기중기가 작업장 한끝으로 우르릉거리며 또다시 내달린다. 오늘 마지막 전투의 지탱점으로 육박하듯 채순이는 기중기를 쏘살같이 몰아가고있다.

가공작업이 끝난 고래처럼 둔하고 우악스럽게 생긴 가공제품을 통로쪽으로 부리나케 운반해가야 한다.

조립직장 흐름선우에 이 제품을 교대전까지 맞물려주어야 공장 월생산이 지난달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달릴수 있다. 한초도 어길수 없는 긴장한 순간들이다.

대호는 자기도모르게 긴장해지는것을 느끼며 기증기운전칸을 올려다보았다.

중발머리에 반물색 작업모를 사뿐히 눌러쓰고 작업장을 굽어보는 채순이는 어찌보면 인형아기 처럼 예쁘게만 바라보인다. 창가에 꽂아놓은 꽃다발로 해서 그렇게 보이는지 모른다.

(저 애순이가 마지막 고비를 순탄하게 넘겨줘야겠는데...)

드바쁜 기대공들의 일손을 덜어줄 양으로 신호수를 대신하여 손을 들어 기증기를 지휘하고있는 대호는 조바심때문에 가슴이 납덩이처럼 무겁고 불안하였다. 그는 초조한 시선으로 채순이를 지켜보며 마른침을 꿀꺽 삼켰다.

(채순아, 이제 마지막 고비다. 네 손에 오늘 우리의 혁신이 달려있다. 잘해주려마!)

고래같은 가공제품이 기계바다우로 런달아 헤엄치듯 뚝뚝 떠간다.

대호의 눈짐작으로 가늠해보아도 기증기는 최속도로 달리고있었다. 대호는 기증기가 머리로 지나갈 때마다 고개를 끄덕거리며 입속으로 뇌었다.

(벌써 스무번째지... 이제 열번만 더...)

그의 시선은 줄곧 기증기에서 떠나지 않았다.

《앗!》 쏜살같이 달려가던 기증기가 갑자기 맥없이 속도를 늦추며 주춤주춤거리는데것이 아닌가. 아슬한 천정 량벽에 평행을 이루어 일매지게 뻗은 주행선 레루우로 불이 일도록 굴러가던 기증기바퀴가 과부하로 더는 미끄러지지 않는것이였다.

검은 눈썹이 붓초리처럼 곤두선 대호의 얼굴은 철색으로 변했다. 채순의 어깨가 툭동적으로 움직이건만 기증기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을 한다. 운전칸문을 열고 나오는 채순이를 바라본 순간 대호는 손뭉이 짹 풀렸다.

(마지막 고비에서 이게 무슨 일이람...)

대호는 목젓이 타올랐다.

월계획생산의 이 마감고비에서 걸음을 멈춰야 하는가. 흐름선을 타고 굴러내리는 이웃 조립직장의 장쾌한 생산물결도 멈추게 될게 아닌가...

가슴은 바위에 눌리운듯 무겁고 답답했다. 순간 기증기사다리쪽으로 총알같이 뛰어가는 청년!

성팔임을 알아보았을 때 대호는 애타게 가슴을 태우고있을 어린 채순이를 도와나설 생각을 못하고 걱정만 했던 자신을 책잡았다.

머리우 대차꼭대기에서 《채순동무!》라고 부르는 성팔의 웅글은 목소리!

《모래를 준비시켰어야 할걸...》

대호는 다급하게 씹어뱉듯 중얼거리며 모래를 가지러 달려나가기 시작했다.

《아니?!》 달려나가는 대호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배낭을 어깨에 걸머지고 대차우로 채순이가 오편오편 뛰어나가고있다. 성팔이가 그를 뒤쫓아가고있다.

이윽고 주행선우에 올라선 채순이가 배낭에서 무엇인가 한웅큼 꺼내서 레루우에 찹싸게 뿌려나간다. 싸락눈처럼 떨어지는것은 모래였다.

(아! 모래!) 주먹같은것이 가슴의 안벽을 마구 두드린다.

《그렇지 모래!》

하고 되뇌이는 대호는 발길을 돌렸다.

가슴은 소용돌이치듯 설레인다.

(과부하로 열을 받은 레루우에 모래를 뿌려야 한다는것을 저 애순이 견습공이 어떻게 생각했을까.)

기특하고 대견만 하여 대호의 온몸은 날듯이 사다리를 타고 올랐다.

어느새 배낭의 모래를 모자에 퍼담아가지고 대차를 되집어 건너온 성팔이가 이쪽 주행선우에 모래를 뿌려나가고있는것이 아닌가. 레루를 따라 달려나가는 그의 귀밑으로 고무머리가 가볍게 날리고있었다.

대호는 코등이 찡해올랐다.

(혁명임무에 대한 높은 자각과 책임성을 가슴에 지닌 우리의 미더운 새세대들! 얼마나 주인답고 슬기로운 우리의 새세대들인가!)

이순간 대호는 전진을 멈춘 기증기에서 자기를 보고있었다.

그는 오늘 운전공 복순이를 대신해서 견습생인 채순이가 월말전투를 훌륭히 결속해주기만을 바랐을뿐 성팔이들처럼 그가 혁신자의 앞장에서 달려나가도록 도와줄 생각을 못했던것이 아닌가.

전진을 멈춘 기증기주행로우에 채순이나 성팔이가 아니라 자신이 모래를 뿌려야 했을것이다. 기증기의 전진을 위해 뿌리는 《모래》가 되여, 기적과 혁신의 보이지 않는 《주추들》이 되여...

아슬한 공중높이 두갈래로 뻗은 주행선을 따라 레루우에 채빨리 모래를 뿌려나가는 채순이와 성팔이를 사랑과 미더운 눈길로 바라보던 대호는 그답지 않게 두팔을 옆구리에 올리고 비호처럼 대차를 뛰어넘어 채순이를 따라잡았다.

《채순동무, 배낭을 이리 주오.》

《아이, 부직장장동지, 제가 해요.》

대호는 채순에게서 배낭을 빼앗다싶이 잡아당겼다. 성큼성큼 발자국을 옮기며 모래를 뿌려나가는 대호를 말끄러미 바라보던 채순은 맞은편 주행선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영채어린 그의 두 눈이 별처럼 빛났다.

《성팔동무!》

그는 뜨거운 가슴속에서 우러나오는 티없이 맑고 부드러운 미소로 성팔이를 바라보았다.

(성팔동무! 내가 운전대를 잡기만 하면 반복동작을 요구하며 통을 준건 기증기운전조작을 알심 있게 익혀주자는것이였지요! 고마와요!)

처녀의 눈은 이렇게 말하고있었다.

성팔이도 손을 들어 채순에게 싱긋 웃어보이고는 고수머리우에 모자를 꼭 눌러쓰고 기증기사다리쪽으로 자취를 감추어버렸다.

채순은 운전칸쪽으로 넘어왔다. 훌쩍해진 배낭을 움켜쥐고 운전칸으로 들어온 대호가 은근한 목소리로 말을 꺼냈다.

《좀 쉬오. 내가 운전하지.》

《아니예요. 아직 나는 전투중에 있어요. 전투원이 어떻게 초소를 떠나겠어요. 넘려마세요.》

채순은 까만, 말려오른 긴 속눈썹을 치뜨며 밝은 목소리로 말했다. 믿음과 사랑이 가득찬 눈매로 채순이를 내려다보는 대호의 가슴은 뜨겁기만 하였다.

《채순동무, 정말 오늘 장하게 일을 했소!》

대호는 채순의 어깨를 가볍게 다독여주었다.

《전 아직 복실언니를 따라잡자면 멀었어요.》

대호의 얼굴을 빠금히 쳐다보는 채순의 상기된 얼굴에는 희망과 열정이 노을처럼 붉게 타오르고 있었다.

가사

## 간석지에 노을이 타네

최원근

갈매기 춤을 추는 서해앞바다

물결도 반기며 설레이는가

섬과 섬을 이으며 굽이쳐가는

저멀리 제방우엔 노을이 타네

버바다를 펼쳐가는 보람찬 길에

하나로 이어진 우리의 마음

채순이는 기증기를 가볍게 밀어갔다.

기계바다위로 기증기가 제비처럼 내닫고있는 그밑, 동음소리로 가득찬 작업장을 굽어보는 처녀의 가슴은 바다처럼 넓어지고 뒤설레었다.

(오늘 그렇게도 벅찬던 기증기운전공임무를 끝내 해냈어...)

처녀는 잠시 생각에 잠긴다.

(내가 푹푹해서 일을 잘했을까...)

그러나 처녀는 머리를 흔들었다. 그는 자신이 아니라 집단의 힘을 보았다. 서로 제일처럼 도와주고 이끌어주고 넘려해주는 집단의 거대한 힘을 ...

(이것이 없었으면 난 아무것도 못했을거야.)

채순의 마음은 마냥 즐겁기만하다.

기증기를 부르며 손을 들고있는 성팔이쪽으로 기증기를 쏜살같이 몰아가던 채순은 입가에 방싯 미소를 그리며 창가에 꽂아놓은 꽃다발을 뽑아들었다.

《성팔동무! 꽃다발!...》

창문너머로 상반신을 내밀고 기쁨과 감격에 젖은 목소리로 처녀는 소리치며 꽃다발을 내려던졌다. 그것은 채순이가 성팔이에게, 아니 온 작업반, 온 직장에 보내는 축하의 꽃다발이었다. 훌쩍 뛰어오르며 가슴으로 날아드는 꽃다발을 받아친 성팔이는 씩긋 웃으며 고수머리를 쓸어들렸다. 처녀는 무엇이 그리도 즐거운지 까르르 웃으며 한손을 까닥까닥 흔들며 기증기고리를 내려보냈다.

기대공들의 신호에 따라 드넓은 직장의 끝에서 끝으로 제비처럼 달려가고 달려오는 천정기증기운전공 채순의 얼굴에 저녁해살이 비껴 한결 더 슬기와 아름다움을 복돋아주고있었다.

물결푸른 바다우엔 꿈도 푸르러

조국땅 넓혀가는 자랑 끝없네

새땅 찾는 배길우엔 기쁨이 천리

이어놓은 제방길엔 희망이 천리

수령님 높이신 뜻 꽃피워가는

청춘의 가슴에도 노을이 타네

## 위대한 래양을 받들어 힘차게 전진하여온 우리의 주체문학

리수립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개척하시고 이끄시는 우리의 주체문학은 승리와 영광으로 빛나는 자랑찬 길을 걸어왔다.

백두밀림에서 태어난 항일혁명문학으로부터 영광스러운 첫자욱을 땀 우리의 주체문학은 반세기를 훨씬 넘는 기나긴 나날 오로지 위대한 수령님의 탁월한 령도를 받들어 수천년 민족문학사에 일찌기 없었던 위대한 전변을 수놓아왔으며 오늘은 문학의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하는 가장 높은 발전단계에 올라섰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항상 우리 당이 걸어온 길을 회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당중앙에 대한 신임이 두려워 질것이며 로동당원이 된 자부심이 더욱 높아질것이며 또 우리 당이 지도한 모든 일이 다 인민들을 승리로 이끌고있다는것을 더욱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혁명문학사는 로동계급의 참다운 혁명문학을 건설하는데서 자랑찬 승리를 이룩하고 빛나는 업적을 쌓아올릴수 있는것은 전적으로 우리 인민이 수천년력사에서 처음으로 맞이하고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탁월한 사상과 현명한 령도가 있었기때문이라는것을 뚜렷이 보여준다.

우리의 주체문학은 자기의 빛나는 로정과 찬란한 성과를 통하여 이 고귀한 진리를 힘있게 확증하여준다.

× ×

문학의 운명은 무엇보다먼저 그것이 어떻게 개척되는가 하는것과 중요하게 관련된다.

그것은 해당한 문학의 뿌리가 어디에 어떻게 내려지는가에 따라 문학의 성격과 전도가 좌우되기때문이다.

우리의 혁명문학은 혁명과 예술의 영재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개척하여주신 영광스러운 문학이다.

이것으로 하여 우리 문학은 시대의 요구를 체현한 주체의 문학으로, 공산주의문학건설을 빛나게 실현할수 있는 만년초석을 가진 위력한 문학으로 되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캄캄한 누리를 태양같이 밝히시며 이미 혁명활동의 첫 시기에 천

명하신 조선혁명의 진로, 바로 그것은 지난 세기의 온갖 낡고 반인민적인 문학과 결별하고 조선의 문학이 나아가야 할 참다운 길을 밝혀준 주체문학의 진로이기도 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조국의 광복을 위한 그 간고한 싸움의 나날에 주체의 문예사상을 창시하시고 그를 구현하여 실한풍 휘몰아치는 백두밀림에서 항일혁명문학예술을 창조발전시키심으로써 이 땅위에 주체의 혁명위업에 참답게 이바지하는 새형의 혁명문학이 탄생하였다.

주체적문예사상, 그것은 모든것을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사람을 위하여 복무하게 할데 대한 주체사상의 요구를 문학창조에 구현함으로써 문학을 인민대중의 요구와 리해, 민족적 감정과 정서에 맞게 발전시켜 조선혁명수행의 참다운 무기로 전환시킬데 대한 투철한 혁명적 관점과 립장을 세워준다.

주체적문예사상의 창시야말로 진정으로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학에 대한 로동계급의 리념을 완벽하게 구현한 위대한 문예사상의 탄생이었으며 반동적이며 반인민적인 문학을 철저히 청산하고 로동계급의 새 문학 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갈수 있게 한 문학발전에서의 거대한 전환점이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를 모시여 혁명문학이 개척되던 첫시기에 벌써 시대와 계급의 지향과 요구를 전면적으로 반영한 탁월한 문예사상을 받아안게 되였고 혁명문학건설의 첫걸음부터 백전백승의 지도사상을 가지고 발전하게 된 여기에 주체문학의 영광이 있으며 중요한 특징이 있다.

위대한 주체적문예사상의 빛발아래 우리의 주체문학은 가렬치절한 혈전의 나날에 그 깊고 억센 뿌리를 내렸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혁명문학을 원쑤의 심장을 꿰뚫는 총창보다도 더 위력한 무기로 간주하시고 걸음걸음 혈로를 헤쳐야 하는 피어린 싸움길에서도 혁명사업의 땀수 없는 한고리로 틀어쥐시고 혁명적문학예술창조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가시였으며 풍찬로숙하시는 어려운 조건에서도 몸소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을 한자한자 친필하시여 주체문학의 빛나는 본보기를 마련하시였다.

이리하여 우리의 주체문학은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을 본보기로 하여 고요한 서재에서가 아니라 실한풍 몰아치는 백두밀림에서 총을 잡은 투사들

의 전투적이며 대중적인 창조활동에 의하여 항일혁명전쟁의 강력한 정치선전수단으로 발전하였다.

《조선의 노래》, 《성향당》, 《안중근 이등박문을 쏜다》, 《조국광복회 10대강령가》, 《피바다》, 《한 자위단원의 운명》 등을 비롯한 불후의 고전적명작들 그리고 《조선의 별》을 비롯하여 항일혁명투사들이 창작한 수많은 작품들에는 주체의 사상체계가 관통되어있으며 우리 문학이 대를 두고 이어받아야 할 사상미학적내용들이 풍부히 담겨져있다.

불후의 고전적명작 《피바다》의 어머니 순녀와 《꽃피는 처녀》의 꽃분이 그리고 불멸의 혁명송가 《조선의 별》의 서정적주인공 등 항일혁명문학이 창조한 전형들은 한결같이 인간의 생명인 자주성에 대한 높은 자각에 기초하여 위대한 수령님과 혁명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을 성격의 핵으로 하는 자주적인간의 참다운 전형들이며 주체의 혁명위업을 완수하기 위한 투쟁속에서 정치적생명을 빛내여나가는 주체형의 새로운 시대적 성격들이다.

항일혁명문학은 이 빛나는 전형들을 통하여 자주성을 지향하는 우리 시대의 정신을 뚜렷이 밝혔으며 사상의식의 장성과정, 혁명적세계관형성과정에 대한 진실한 묘사를 기본으로 성격을 천명하고 투쟁속에서 펼쳐지는 혁명적인 생활을 다양하고 깊이있게 반영하는데 모를 막아 생활을 전형화함으로써 산 인간을 그리며 생활을 그릴데 대한 인간학의 요구를 새로운 높이에서 구현하였으며 주체의 인간학의 시원으로, 그 역사적뿌리로 되었다.

우리는 장구한 역사를 헤아리는 인류문학사의 그 어느 갈피에서도 혁명의 수령이 혁명과 문학의 호상관계를 심오히 통찰한데 기초하여 혁명과 건설에서 차지하는 문학의 지위를 것처럼 높이 세우고 혁명에 관한 지도사상과 더불어 문학예술에 관한 독창적인 지도사상을 창시한 사실을 알지 못하며 혁명을 령도하는 나날에 몸소 혁명적인 문예사상을 완벽하게 구현한 명작들을 친필하여 그 실천적모범을 통하여 문학운동을 가장 올바르게, 구체적으로 이끌어준 사실을 알지 못한다.

이것은 오직 혁명의 위대한 수령을 모신 우리의 문학에서만 찾을수 있는 빛나는 사적이다.

그리하여 우리의 혁명문학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존함과만 결부시켜 부를수 있는 영광의 문학으로, 양양한 미래를 향하여 기백있게 전진할수 있는 깊고 억센 역사적뿌리를 가진 강유력한 문학으로 태어나게 되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에 의하여 새시대의 문학을 승리로 이끄는 위대한 지도사상이 창시되

고 혁명의 불길속에서 주체문학의 뿌리가 튼튼히 내려진것으로 하여 우리 문학은 그가 개척되던 첫 시기에 벌써 자기의 전도를 좌우하는 근본문제를 빛나게 해결하였다.

우리의 주체문학은 또한 혁명과 예술의 영재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의 령도따라 성장한 문학이며 그 위대한 품에서 대바르게, 억세게 자라난 건실한 문학이다.

경애하는 **김일성** 동지의 위대한 령도따라 달려왔기에 우리 문학은 해방후의 그 어렵고 복잡한 환경속에서도 사소한 편향과 우여곡절을 모르고 오직 승리와 영광의 자욱만을 수놓을수 있었다.

해방된 조선에서 새 문학이 발전하여온 길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다.

일제가 뿌려놓은 부르조아반동사상이 우리 문학의 발전을 음으로 양으로 저해하고있었으며 남반부를 강점한 미제국주의자들은 썩어빠진 양키식 《문화》와 부르조아반동문학을 각방으로 퍼뜨리기에 광분하였다.

혁명이 심화되고 장기성, 복잡성을 띠에 따라 국제적으로 대두한 기회주의는 문학분야에도 심각한 해독을 미치게 되었다.

이러한 조건에서 어느 길로 어떻게 문학을 발전시켜나가는가 하는것은 그 운명을 좌우하는 심각한 문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혁명의 참모부, 조선로동당을 창건하시고 문학을 당사상사업의 한 고리로 발전시켜나가도록 하여주시고 주체적인 민족문화건설로선을 밝히시여 해방후 우리 문학의 발전방향을 주체의 궤도우에 확고히 올려세우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또한 주체적문예사상을 심오히 구현한 당의 문학건설방침을 새롭게 밝히시고 그것을 철저히 관철하도록 힘있게 이끌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우리 당의 문학건설방침, 그것은 무엇보다도 문학건설에서 주체를 철저히 세우며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구현함으로써 문학을 조선혁명수행에 이바지하는 당의 강력한 사상적무기로 되게 하는것이다.

그것은 또한 사회주의적사실주의의 기치를 높이 들고 문학을 사회주의적내용과 민족적형식이 결합되고 높은 사상성과 고상한 예술성이 유기적으로 통일된 사회주의적사실주의문학으로 발전시켜나가는것이다.

우리 당의 문학건설방침은 이와 함께 문학창작의 주인인 작가들을 혁명화하고 광범한 근로인민대중을 문학창작에 적극 인입함으로써 우리 문학의 주체적력량을 끊임없이 강화해나가는것이다.

우리 당의 문예방침은 위대한 주체적문예사상을 인민대중이 사회의 주인이 되고 당이 새 문학



건설을 령도하게 된 새로운 환경과 조건에 맞게 구현한 독창적인 방침이며 문학발전을 승리에로 이끄는 전투적기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이 문예방침을 시종일관 견지하도록 하심으로써 문학발전을 저해하는 온갖 낡고 반동적인것을 짓부시고 우리 문학을 주체의 한길로 이끌어나가시였다.

그리하여 문학의 무계급성을 지껄이던 악명높은 《문화로선》의 제창자들, 반동시집 《응향》을 들고 예술지상주의를 부식시키려던 시대착오적인 쓰레기들, 미제의 침략에 발맞추어 부르쵸아반동사상을 부식시키려 꾀하던 문학대렬내의 음흉한 반혁명분자들 그리고 국제기회주의사조에 편승하여 우리 문학에 사대주의, 수정주의를 퍼뜨리려던 반당종파분자들을 비롯한 온갖 낡고 반동적인것들은 모두가 당의 문예방침을 받들고나선 우리 문학의 힘찬 전진앞에 여지없이 격파되고말았다.

반동적이며 기회주의적인 문예조류의 침습을 반대하여 우리가 벌린 계급투쟁, 사상투쟁은 복잡하고 심각한것이였다.

그러나 우리 주체문학의 발전로정에서는 결코 서로 다른 문학 조류나 류파가 존재한적이 없었다.

해방후 우리 문학은 언제나 주체적문예사상의 가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적사실주의창작방법을 고수하였으며 그것을 일관하게 발전시켜왔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 시대의 요구와 인민의 지향에 맞는 높은 사상에술성을 사회주의사실주의창작방법의 근본요구의 하나로 틀어쥐고나갈데 대하여 밝히시고 현명하게 이끌어주심으로써 우리 문학은 높은 사상성과 고상한 예술성의 유기적인 통일을 확고히 견지하였으며 사회주의적사실주의의 진정한 면모와 높이를 과시할수 있었다.

당의 문예 로선과 방침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사회주의적사실주의를 유일한 창작방법으로 하여 승리적으로 전진한 여기에 우리 혁명문학의 또한 하나의 중요한 특징이 있으며 자랑이 있다.

우리의 주체문학은 해방후 혁명의 심화발전과 더불어 즐기차게 성장발전하여왔다.

언제나 혁명과 함께 숨쉬며 자라온 문학, 이것이 또한 우리 문학의 자랑스러운 면모이다.

흔히 생활이 문학을 낳는다고 하며 문학은 해당하는 사회를 반영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문학발전은 결코 스스로 이루어지는 과정이 아니다.

생활의 발전이 문학의 발전을 기계적으로 동반하는것이 아니며 혁명의 발전단계에 문학의 발전단계가 자연적으로 조응하는것도 아니다.

혁명이 아무리 심화되고 생활이 발전한다 하여도 그것을 반영해야 할 주체적인 문학력량이 미

숙할 때 문학은 생활을 따라가지도, 앞서가지도 못하게 되며 담보와 침체를 면할수 없게 된다.

그러나 우리의 주체문학은 이러한 담보와 침체를 모른다.

심화되는 혁명의 요구를 제때에 받아들이고 끊임없이 성장하여 생활의 교과서로, 투쟁의 기치로 되는 문학, 여기에 또한 우리 문학발전의 특징적인 면모가 있으며 위대한 수령님의 이끄심속에 발전하는 우리 문학의 긍지와 행복이 있다.

나라가 처한 역사적조건으로 하여 해방후 우리 앞에 나선 혁명임무는 심각하고 방대한것이였다.

우리 인민은 초행길을 헤쳐가며 혁명을 끊임없이 전진시켜야 하였으며 부닥치는 난관과 애로를 이겨내며 새롭고 어려운 시대적과제들을 련이어 자체의 힘으로 해결해야만 하였다.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따라 일제가 파괴한 빈터우에서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부터 수행해야 하였고 미제의 침공으로부터 혁명의 전취물을 수호하는 반제혁명전쟁을 이겨내야 하였으며 전후의 재더미우에서 복구건설을 거쳐 사회주의혁명을 수행하고 사회주의공업화의 거창한 과업을 해결해야 하였다.

실로 인류력사는 한세대에 우리가 겪은것처럼 혁명과 건설의 수많은 과정들을 련이어 해결하고 시대적규모에서 제기되는 각이한 혁명단계의 과업들을 전면적으로, 집중적으로 감당해나선 그러한 례를 알지 못한다.

우리의 주체문학은 이처럼 심각하고 복잡한 우리 혁명의 각이한 단계를 언제나 민감하게 반영하였으며 혁명의 요구를 제때에 구현하여 우리 당의 강력한 사상적무기로, 전투적이며 고무적인 기치로 발전하여왔다.

이것은 문학사상에 류례를 모르는 일이다.

비상한 속도로 전진하는 혁명에 언제나 발맞춰나간 우리 문학의 이 면모는 결코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혁명과 더불어 발전하는 우리 문학앞에는 언제나 위대한 령도와 자애로운 사랑의 손길이 닿아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해방직후 조국땅 여기저기에 흩어져있는 작가들을 일일이 찾아주시고 그들을 당의 령도밑에 작가동맹에 조직적으로 결속시켜주시였으며 력사적인 로작 **《문화인들은 문화전선의 투사로 되여야 한다》**를 발표하시여 새 문학건설을 말아나선 영예로운 투사의 자리에 세워주시였으며 민주개혁의 주인공을 그릴데 대한 시대적임무를 주시므로써 우리 문학을 민주주의 혁명과 새 조국 건설에 힘있게 이바지할수 있도록 하여주시였다.

미제의 무력침공으로부터 혁명을 수호해야 할

그 긴장한 시각에도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새로 조성된 전쟁현실에 맞게 문학사업을 전투적으로 개편하도록 가르쳐주시고 친히 불후의 고전적으로 작 **《우리 문학예술의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를 발표하시어 우리 문학을 전사-애국자의 영웅적 성격창조에도 힘있게 이끌어주시었다.

전후의 폐허를 헤치고 사회주의에로의 변혁을 수행한 우리앞에는 확립된 사회주의제도를 공고히 하고 혁명을 계속 전진시켜야 할 새로운 역사적과업이 나섰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조성된 환경으로부터 문학앞에 나서는 새로운 임무를 깊이 통찰하시고 불후의 고전적으로작들인 **《천리마시대에 맞는 문학예술을 창조하자》**, **《혁명적문학예술을 창작할데 대하여》**를 비롯한 여러 로작들을 발표하시어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사회주의현실을 진실하게 반영하며 근로자들의 사상개조에 적극 이바지하여야 할 우리 문학의 사명과 임무, 그 해결방도들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밝혀주시으로써 천리마기수의 새로운 시대적전형을 창조하며 문학이 사상혁명수행에 앞장서나가도록 세심히 보살펴주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심화되는 혁명의 요구에 맞게 문학발전을 명도하시면서 문학이 현실에서 태어나는 새것을 제때에 포착하고 예술적으로 일반화하는 문제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었다.

문학이 혁명의 발전과 자기의 운명을 함께 하려면 생활속에서 미래를 체현한 새것을 옳게 포착하여야 하며 그것을 제때에 일반화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작가들이 현실속에 깊이 들어가 당의 로선과 정책을 심장으로 받들고 나선 시대의 선구자들을 찾아내며 시대의 본보기인 그 원형들에 튼튼히 의거하여 전형화할데 대하여 가르쳐주시으로써 문학이 담보와 침체를 모르고 혁명과 더불어 끊임없이 발전할수 있는 기본고리를 쥐여주시었다.

우리 문학은 심화되는 혁명과 더불어 더욱 높이 앙양되는 인민들의 흠모와 충성의 열정을 담아 불멸의 혁명송가 **《김일성장군의 노래》**, 장편서사시 **《백두산》**을 비롯하여 위대한 수령님을 우러러 노래한 작품들을 일관하게 창작하였다.

민주건설시기에 창작된 장편소설 **《땅》**을 비롯한 성과작들과 조국해방전쟁시기에 창작된 서정시 **《조선은 싸운다》**, 단편소설 **《불타는 섬》**, 중편소설 **《싸우는 마을사람들》**, 전후사회주의건설시기에 창작된 서정시 **《새들은 숲으로 간다》**, 시조 **《평남관개시조》**, 단편소설 **《길동무들》**, **《백일홍》**, 장편소설 **《용광로는 숨는다》**, 희곡 **《해바라기》**, **《붉은 선동원》**, **《산울림》**을 비롯한 수많은 성과작들은 해당 시대

를 진실하게 반영하고 혁명에 적극 이바지한 우리 문학의 빛나는 자옥들이다.

우리 문학이 광바위와 같은 민주개혁의 주인공으로부터 리대훈 등 전사-애국자의 전형으로 그리고 또다시 현우혁, 리상범, 리선자와 같은 천리마기수의 전형으로 그리고 3대혁명의 전위들과 숨은 영웅들의 전형으로 끊임없이 발전하여온 로정은 우리의 주체문학이 혁명과 더불어 하나로 숨쉬어왔으며 혁명의 발전과 함께 성장하였음을 뚜렷이 보여준다.

이 과정에 우리 문학은 시대가 제기하는 수많은 실천적문제들을 전면적으로 해결함으로써 풍부한 업적과 경험을 쌓았으며 인류문학의 보물고에 크게 기여할수 있었다.

우리 문학이 주체의 한걸을 따라 혁명의 요구에 대답하면서 끊임없이 성장하고 빛나는 업적을 이룩하게 된것은 전적으로 주체적민족문화건설로선을 확고히 견지하시고 혁명발전의 매 시기 정확한 문예방침을 제시하시어 우리 문학을 시대의 앞장에 내세워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명도가 있었기때문이다.

줄기차게 자라나 무성한 숲을 이룬 로동계급의 문학이 공산주의문학의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때 근로인민대중의 사상미학적요구를 가장 원만히 충족시킬수 있으며 자기의 역사적사명을 다할수 있다.

공산주의문학의 건설, 그것은 문학을 주체의 요구대로 개조하여 주체의 인간학의 높은 경지에로 끌어올리는 투쟁속에서 이루어진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시고 이끄시는 우리의 주체문학은 영광스러운 당중앙의 향도따라 더욱 높은 단계에로 발전하였다.

우리 문학은 거창한 혁명적변혁에로 나아갔으며 문학발전에서는 선행한 시기에 일찌기 없었던 위대한 전환이 일어났다.

공산주의문학을 건설하는데서 영광스러운 당중앙이 이룩한 커다란 공헌은 주체의 인간학에 관한 사상과 혁명적문예전통을 계승발전시킬데 대한 사상을 제시한것이다.

영광스러운 당중앙은 문학의 본성이 인간학에 있다는 독창적인 해명을 주고 우리가 요구하는 인간학은 자주성에 대한 문제, 자주적인 인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주체가 선 새시대의 인간전형을 창조함으로써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데 이바지하는 주체의 인간학, 공산주의 새 인간학이라는 탁월한 사상을 내놓았으며 종자론을 기본으로 하는 독창적인 창작실천론을 전면적으로 밝혀주었다.

영광스러운 당중앙은 이와 함께 항일의 혁명적 문학예술전통을 견결히 옹호하고 빛나게 계승발

전시킬데 대한 위대한 사상을 제시함으로써 우리 문학이 백두밀림에서 개척된 길을 따라 대를 이어 영원히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충성다하는 참다운 혁명문학으로 발전해나가도록 힘있게 이끌어주었다.

영광스러운 당중앙은 혁명적문예전통에 관한 사상을 통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 백두산에서 싸우시던 때에 몸소 구상하시고 실천적모범으로 보여주시는 문학창작의 그 모든 업적과 경험들을 그 모습 그대로 꽃피우고 이어나감으로써만 참다운 혁명문학, 공산주의문학을 끝까지 건설할수 있다는 혁명적사상을 내놓았다.

이것은 문학의 력사가 흐르고 창작가들의 세대가 바뀔지라도 드림없이, 흔들림없이 관철되어야 할 공산주의문학건설의 근본원칙이다.

영광스러운 당중앙은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이 우리 시대에 더욱 빛을 뿌리게 하고 그것을 본보기로 하여 문학건설의 제 과업을 해결해나가도록 함으로써 우리 문학의 혁명화와 그 완성을 힘있게 다그쳤다.

주체의 인간학과 혁명적문예전통계승에 관한 우리 당의 위대한 사상 그리고 우리 당이 새롭게 내놓은 문학건설의 위력한 방법론은 우리 문학을 새로운 진군으로 불러일으켰으며 주체문학의 오늘의 대전성기를 꽃피운 근본요인으로 되었다.

우리 당의 령도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로동계급의 수령형상 창조에서 나서는 제반 원칙적 요구와 방도들을 과학적으로 밝혀주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형상을 문학작품에 정중히 모시도록 하는 사업을 현명하게 이끌어준 것이다.

이것은 로동계급의 혁명적문학예술발전에서 획기적전환으로 된다.

당의 숭고한 뜻을 구현하기 위한 투쟁속에서 우리 문학은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정치적생명을 안겨주시고 자주성을 옹호하는 투쟁의 승리를 마련하여주시는 아버지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고매한 덕성, 수령님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를 격동적으로 노래하는 훌륭한 문학작품들을 수많은 내놓을수 있게 되었다.

총서 《불멸의 력사》중의 장편소설들인 《혁명의 려명》, 《백두산기슭》, 《준엄한 전구》, 《1932년》, 《고난의 행군》, 《두만강지구》, 《근거지의 봄》을 비롯한 수많은 문학작품들을 창작하여 내놓은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와 불멸의 업적을 숭고한 높이에서 빛나게 형상하는데서 우리 문학이 이룩한 가장 커다란 성과이다.

우리의 주체문학은 또한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확고한 혁명적세계관으로 삼고 위대한 수령

에 대한 충실성을 제일생명으로 체현한 주체형의 인간전형들을 새로운 높이에서 전면적으로 창조하는 길에 들어섰다.

장편소설 《무성하는 해바라기들》의 주인공 유철, 《평양시간》의 주인공 리상철, 《생명수》의 주인공 김대성, 《새봄》의 주인공 최명진 등은 위대한 수령님을 충성으로 우러러받들고 수령님께서 의도하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모든것을 다바쳐 투쟁하는 충성심이 높은 인간, 자신의 명예나 공명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경애하는 수령님과 당을 위하여,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성실히 일하는 참다운 혁명적인간의 빛나는 전형들이다.

이러한 전형적성격들은 주체의 세계관, 인생관을 숭고하고 아름답게 펼쳐주는것으로 하여 주체형의 인간전형창조에서 우리 문학의 새로운 발전을 보여주는 리징표로 된다.

우리 문학은 참다운 자주적인간의 전형을 내세우고 그들의 사상의식의 성장과정, 혁명적세계관의 형성과정을 깊이있게 밝혀냄으로써 우리 시대의 인간은 무엇때문에 살며 그 삶은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삶의 참다운 보람과 의의는 어디에서 찾아야 하며 진정으로 가치있는 삶이란 어떤것인가에 대하여 해답을 주는 생활의 참다운 교과서이며 혁명화의 무기이다.

주체의 세계관에 기초하여 생활의 목적과 방향에 대하여, 생활의 가치와 의의에 대하여 산 인간의 생활으로써 해답한다는 여기에 우리의 혁명문학의 자랑이 있으며 주체문학으로 불러우는 우리 문학의 뚜렷한 모습이 있다.

이 특성과 우월성은 문학예술이 사람들의 혁명적세계관을 세우는데 이바지하여야 한다고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독창적인 문예사상을 빛나게 구현하여 영광스러운 당중앙이 문학작품의 철학적 깊이를 그 정치사상적풍격과 예술적가치를 규정하는 근본조건으로 내세우고 정력적으로 이끌어준 결과이다.

× ×

위대한 태양을 받들어 우리 문학이 달려온 반세기, 그것은 참으로 빛나는 승리와 세기적인 변혁들로 아로새겨진 자랑찬 로정이였다.

오늘 우리의 주체문학은 위대한 전환기에 놓여있으며 우리 문학의 앞길에는 끝없이 밝은 전망이 펼쳐져 있다.

우리의 모든 작가들은 혁명선열들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높이 우러러모시고 혁명문학을 창조하던 그 열화같은 충성의 열정으로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중앙을 높이 받들어 문학을 주체사상화하는 보람찬 진군길을 더욱 힘차게 다그쳐나가야 할것이다.

# 한끝에서 한끝을 생각하는 마음

-함경북도 온성군 풍서리에 세워진 조국의 최북단 표식점앞에서-

오영재

여기는 조국의 최북단  
꺾어져 흐르는 두만강 저편은  
낮설은 타국의 산천  
나라길이 끊어진 강변 버들숲밑에선  
살찐 소가 한가로이 풀을 뜯고있다.

화강암을 다듬어 세워놓은  
삼각표식비에 새겨진 수자를  
나는 읽는다  
북위 43도 00분 36초  
동경 129도 52분 10초

동해안을 따라, 두만강을 거슬러  
걸어온 수백리 답사의 길  
몇해만에 다시 보는 새 모습에 취해  
나를 잊은 북단의 즐거웠던 행로

말없는 삼각점에 손을 얹고  
내 서있노라니  
층운에 덮인 아득한 저 산발너머  
생각하는 조국의 다른 한끝

그 한끝  
다도해의 바다가에는  
나의 고향이 있다  
내가 열여섯해 자라며 바라본 동산과  
해저몰어 어머니가 찾아나올 때까지  
동생들과 함께  
모래성을 쌓고 허물던 그 언덕이

최북단의 삼각점은 나에게 묻는다  
어디에 가 있어야 할 몸이

지금 여기에 와 있는가고  
나만이 안긴 이 복된 땅에서  
얼마나 값있게 나이 들고  
머리가 희어져가고있는가를

스물도 못되던 그 시절에  
잘 싸우고 다시 돌아오라고  
나의 등을 떠밀어준 조국의 최남단  
얼마나 부끄러움 없이 이날까지  
마음의 그 길을 가고왔던가

조국의 최북단은 말하고있구나  
파쑈의 총검아래  
혈육들의 몸에서 피흐르는 고향땅에  
민주를 주고 자유를 주고 통일의 봄을 줄  
그 길로 더 억세게 나아가라고

30여년전  
파도 높은 남해의 기슭에서  
고향이 북으로 나를 떠밀어준 어린 잔등  
이제는 50이 다 되어오는  
오늘에 이 몸의 등에 닿는  
다른 손길을 이 시각 느끼나니

고향의 당부를 잊지 말고  
어서 가라고  
통일 위해 한몸 바쳐가라고  
나를 힘있게 남으로 떠밀어주는  
조국의 최북단  
조국의 최북단 삼각점에서  
바라보는 남쪽의 뿌연 하늘에  
초롱초롱 맺혀있는 아, 그리운 눈망울들.

# 청춘이여!

김병두

청춘이여!

그것은 너의것이더라  
꽃들이 만발하는 대지  
손풍금소리 울려가는  
가없이 푸르른 하늘

너의것이더라  
산악같이 치솟는 열정  
바다같이 일어번지는  
랑만의 노래

그렇더라  
날으며 솟구치며  
끓으며 내달으며  
산악도 떠메고싶은 마음  
그것이 너의 열정  
너의 타고난 성미더라

노래 없인 날을줄 모르고  
위훈 없인 오를줄 모르는  
그것이 너의 생각  
네가 바라는것이더라

당이 부르는곳에  
너는 선참으로 달려가고  
불꽃 날리는 투쟁속에  
미래를 열어가는  
그것이 너의 행복  
네가 가는 영광의 길이더라

그때문에  
너의 기쁨  
개발지의 벼랑길에 꽃피고

너의 노래  
건설장의 소낙비속에 울리더라

그때문에  
너는 서있어라  
관문의 첫기둥 세우는 바다우에  
간석지의 밤하늘에 타오르는 우등불앞에  
프락또르 첫바퀴 자욱 남기는 새땅에

설자리 스스로 택한 초소에서  
당의 뜻을 안았기에  
청춘! 네 이름은 돌격의 함성같이 울리고  
청춘! 네 이름과 함께 조국은 빛나거니

천리간석지  
구름길에 솟는 언제건설장  
당이 부르는 그 지점을 떠나  
그 무슨 위훈이 있고  
그 무슨 청춘이 있으랴

당이 한번 결정 내리면  
돌격대의 기발이 되어 나아가고  
당이 한번 부르면  
이제는 버릇이 되어  
첫걸음 먼저 내딛는 너는 청춘!

그렇더라  
번영하는 오늘과 함께  
마중가는 미래와 함께  
수령님 높이 모시고  
당중앙의 뜻을 받드는 한길에  
청춘! 네 이름은  
영원한 충성의 꽃으로 만발하더라

## 언제건설장에서

장선진

이곳은 나의 출장지가 아니었다. 하지만 나는 열차가 ㄷ역구내에 서서히 벗어나자 급히 흠으로 내려섰다.

출장에서 일을 보고 돌아오는길에 얼마간 시간적여유가 있어 며칠후에 다시 들리자고 했던 생각을 고쳐하게 되었다. 열차가 발전소건설이 한창 진행되고있는 ㄷ군을 가까이 하면서부터 나는 꼭 이곳에 들렀다 가야 한다는 강렬한 충격을 이겨내지 못했던것이였다.

자정도 켜 기운 밤인데다가 보이는건 앞뒤의 눈덮인 우중충한 산발뿐이어서인지 산간벽촌의 간이역은 여간만 적막하지 않았다.

《봉-》

열차가 산굽이를 돌아서면서 남긴 기적소리의 긴 여운이 잦아들자 어디선가 선잠을 깬듯한 까투리의 거친 울음소리가 들려올뿐이였다. 열차에서 내린 사람도 몇이 되지 않았다.

도시에 사는 자식네 집에 다녀오는듯한 짐보따리 많은 로인이 서넛... 이것이 전부였다.

나는 차표 받는곳을 나와서 자그마한 단층역앞 마당에서 잠시 서성거렸다. 이곳이 처음이다보니 갈길을 알수가 없었다. 마침 뒤에서 저벅저벅 진눈 밟는 소리가 들려왔다.

돌아보니 보통키에 목이 발고 앞배가 볼록한 몸집의 한 사나이가 나의 옆을 지나치려 했다.

《동무!》

나는 무작정 그를 불러세웠다. 그 사람을 놓치면 이 밤중에 다시 길을 물을물만한 사람을 만날것 같지 않았던것이였다.

《왜 그러시우?》

그는 대답지 않게 물었다.

《ㄷ수력발전소건설장으로 가자면 어디로 가야합니까?》

《아, 거기말입니다. 저하구 같이 갑시다. 전 그곳 자재과장입니다. 김영도라구 부릅니다.》

그는 몸집에 비해 너무 험두다 할 정도로 자기 이름까지 소개하며 짹짹하게 대해주었다.

(아니, 그럼 이 사람이 바로 그 자재과장인가?)

얼마전에 나는 한 지도원한테서 도에 출장왔던 우리 도련대자재과장이 서준상부총국장의 사업방법과 작품 문제에 대하여 의견을 제기하더라는 말을 들었다.

도건설총국 총국장으로 일하고있는 나로서는 스쳐보낼수 없는 일이었던것이였다.

(...지난 기간 관료주의적요소가 있어서 비판을

받았었는데 또 나타나는데가 아닌가?)

나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으나 그런 기색을 표출만치도 나타내지 않았다.

《고맙습니다.》

나는 생각을 돌려 영도에게 진심으로 사의를 표했다. 인적이드문 이 한밤중에 길안내자까지 만나게 된것은 정말 다행이였다.

《혹시 누굴 만나러 가는길입니까? 아니면...》

앞서 걸던 영도가 걸음을 늦추어 나와 어깨를 나란히 하며 물었다.

《네, 전 발전소건설에 나와있는 교도건설총국 서준상부총국장을 만나러 오는길입니다.》

나는 사실대로 용건을 말해주었다.

《아, 그렇습니까? 그와 매우 가까운 사인가요? 이를테면 친구라두...》 하며 그는 웬일인지 슬쩍 나를 결눈질해보는것이였다. (밤중이지만 나는 그것을 넉넉히 알아차릴수 있었다.)

《그렇다면 그렇다구두 할수 있지요.》

나는 그가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묻는지 알수 없어 좀 애매한 대답을 했다.

《좋겠습니다. 훌륭한 친구를 가지고있으니말입니다.》

문득 가는 한숨을 내쉬며 내뱉는 영도의 목소리에는 진정이 어려있는듯도 하고 또 비양조가 흐르는듯도 하여 그의 속내를 가늠할수 없었다.

《그건 무슨 소리입니까?》

나는 첫대면에 그럴수 있겠는가 하여 기분이 잡쳐졌으나 그런 티를 안내고 영도의 살오른 목덜미를 쳐다보았다.

《아니 아닙니다. 그저 그렇단말이지요.》

나의 기분을 순식간에 일별한 그는 좀 당황한 기색을 숨기지 못하더니 《먼길에 몹시 피곤하겠습시다.》 하고 판전을 부렸다.

《아니, 괜찮습시다.》

나는 그에게 더 미안한감을 주지 않으려고 일부러 활달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나의 심중은 복잡해졌다. 영도는 그의 밑에서 일하는 사람이 아닌가. 한때 왜 그를 이렇게도 고깝게 여기는지 모를 일이였다.

혹시 둘사이에 어떤 불신임이 흐르고있는것이 아닐가? 아니다, 그것이 개인감정이라면 아무에게나 쉽게 터놓지 못할것이다. 그렇다면?

(그것때문인가?)

나는 그것을 지금 그를 찾아오게 되는 리유에 귀착시키지 않을수가 없었다.

사실 내가 한가하지 않는 출장길에 이렇게 중

간역에 내린 리유는 서준상부총국장을 만나기 위해서였고 급기야 그를 만나자고 하는것은 바로 그가 일군다운 품모를 지니지 못하고있다는 의견 때문이었다.

그가 날로 늘어나는 나라의 전력수요를 충족시키는데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이곳 수력발전소건설을 책임지고 나온지는 이제 두석달 되나마나하였다.

발전소건설에 대중을 힘있게 조직동원하여 이끌고나갈 기관차가 될 대신에 호령과 욕설로 자기 사업을 대치한다면 큰 파오가 아닐수 없었다.

낮에는 사무실에 앉아있지 않을것이 뻔하여 나는 재밤중에 몇번씩이나 시외전화를 걸어 그를 찾았다. 그때마다 서준상부총국장은 현장에 나갔다고 하여 만날수가 없었다. 나는 마음의 조급성을 금할수가 없었다. 한 행정책임일군의 문제를 시급히 바로잡아주어야 한다는 단위책임자의 의무감도 의무감이었지만 그보다 먼저 한 일군이 당에서 것처럼 경계하고 것처럼 가지 못하게 하는 길로 간다는것이 더 가슴이 아렸다.

우리는 어느새 집 몇채가 놓인 오붓한 마을의 십자길을 지나 큰길에 나섰다. 길 좌우편에 희끗 희끗 눈을 이고 무겁게 서있는 잣나무들이 밤바람에 철썩철썩 진눈덩이들을 떨구었다.

《이쪽으로 갑시다. 좀 험하긴 하지만 지름길입니다.》

영도가 동복우에 떨어진 눈덩이를 털며 먼저 강냉이밭머리로 난 오솔길로 접어들었다. 눈이 녹기 시작하여 길바닥도 질작질작하였다.

나는 군말없이 그를 따라섰다. 그를 놓쳐버리면 안될것만 같았다. 아니, 그보다도 서준상부총국장을 빨리 만날수 있는 지름길이라니 좀 험해도 나에게는 그 길이 좋았다. 그를 만나 충고를 주는 시간이 빠르면 빠를수록 그만큼 그는 자기 파오를 빨리 뉘우치게 될것이었다.

산으로 잇닿은 오솔길의 경사반이는 점점 심해지기 시작했다. 그의 말대로 길은 험했다. 뺨꼭이 들어찬 잡관목우에 온통 하얗게 덮인 눈때문에 한치의 앞도 가려볼수 없었고 이따금 눈우에 회초리처럼 솟아난 가시나무아지들이 사정없이 얼굴을 때리기도 했다.

숨이 차오르고 등골에선 땀이 줄줄 흘러내렸다. 하지만 나는 힘든체를 안하고 부지런히 그의 뒤를 따랐다.

《참, 손님에게… 미리… 말… 말해둡시다. 련대장동무에게 이 길로 질러왔다는 말은 하지… 마시우!》

앞이 훤히 내다보이는 고개마루에 올라섰을 때 영도가 숨을 헐떡거리며 떠뚝거렸다.

《…?!》

나는 대꾸를 하지 않았다. 꼬치꼬치 캐어묻는 것보다 가만있어야 그 뒤말을 얻어들을수 있을것

같았기때문이었다. 나의 속단은 틀리지 않았다.

아닌게아니라 영도는 내가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는것이 매우 못마땅하다는 투로 물었다.

《련대장이 누군지 압니까?》

《글쎄…》

나는 일부러 모르는체했다. ㄹ수력발전소건설은 기본수력발전소건설사업소외에 전국 각지에서 지원하여 달려온 수천명의 돌격대가 맡아하고있었다. 이 력량을 도를 단위로 련대를 못하고 그아래 대대, 중대, 소대를 두었던것이었다. 그러니 그 련대장이란 바로 다름아닌 서준상부총국장일것이다.

영도는 고개마루를 내리면서 이것을 구구하게 설명하고나서 말을 계속했다.

《글쎄 저는 얼마전에 련대장동무로부터 1개 소대를 데리고 역으로 나가 철강재하차작업을 하라는 지시를 받았었습니다. 그때 나는 대원들의 의견도 그렇고 해서 바로 이 길로 소대를 데리고 역으로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차를 타고 먼저 역에 나와있던 련대장동무가 그것을 알고 당장 되돌아갔다가 큰길로 오라는것이 아니겠습니까. 처음 나는 그러다 말했거니 했는데 시꺼먼 눈섭을 곤두세우는 품이 무슨 마른 벼락이라도 떨어것 같더라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짝소리 못하고 소대를 데리고 큰길로 되돌아갔다가 다시 역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그가 제 혼자서 한차판의 강재를 절반이나 부러놓지 않았겠습니까. 처음엔 강재를 부리는 사람이 누군지 몰라 웬 사람이 남의 강재에 손을 대는가구 소리를 쳤지요. 그러자 <나요, 나.> 하는것이 아니겠습니까. <나가 누구요?> 우리가 재차 소리치니 그는 돌아보며 <련대장의 목소리도 모르겠소.> 하고 눈을 부릅떴습니다. 련대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정말 된욕을 먹었구나 하고 목을 움츠려뜨리고있는데 <수고했소.> 하고 왕청같은 소리를 한마디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한마디뿐이었지요.》

영도는 말을 끝내고 어이가 없다는듯 허허… 웃음을 터뜨렸다.

어린이들이 동화세계에 이끌려가듯 고담같은 그의 이야기를 정신없이 듣고있던 나도 허거픈 웃음을 웃다가

《련대장동문 이미 이 길로 다니지 말라는 지시를 주었겠소?》하고 물었다.

《네, 여러번 지시를 한것은 사실입니다.》

《이 길로 다니지 못하게 하는 리유는 뭘니까?》

《뭘 별루… 그의 말에 의하면 돌격대가 위신없이 길이나 몇백미터 지르겠다고 오솔길이나 타고 다녀서야 되겠는가. 이것이 하나의 리유이고 다른하나는 사고가 난다는거지요. 허참.》

영도는 그게 무슨 큰문제가 될 일인가고 동의를 구하듯 나를 돌아보았다.

《으흠-》

나는 낮이 뜨거워올라 얼른 얼굴을 돌리며 신음비슷한 소리를 냈다. 정말 흥미있는 일이었다. 설마 이 길로 다니면 안된다고 치자. 하지만 이미 온 길이야 무엇때문에 돌려보냈다가 다시 오게 한단말인가. 잘 타일러줄수도 있고 또 필요하다면 강하게 비판을 주어 다시는 그런 일이 없게 하면 될 일이 아니겠는가.

(꼭 그렇게 처리해야 한단말인가? 이런 방법도 있고 저런 방법도 있을수 있지 않는가.)

하지만 나는 아직 실패에 대하여 단언할수 없었다. 어쨌든 심사숙고해야 할 문제라는것만은 느꼈다.

얼마후에 우리들은 ㄷ강기슭에 이르렀다. 나는 동쪽우에 걸음을 세웠다.

몇걸음 앞서 걷던 영도도 건설장의 전경을 보고 싶어하는 나의 심중을 헤아린듯 눈우에 서슴없이 두다리를 쭉 펴고 앉아버렸다. 건설자의 독특한 기질이 보이였다.

건설장은 말그대로 불야경을 이루고있었다. 사위는 촛수높은 전등불빛으로 대낮처럼 환하였다.

불꽃튀는 푸른 용접광, 건너편 강기슭에 자리잡은 몰탈혼합장에서 들려오는 대형혼합기의 둔중한 소음, 강물우로 끈게 뻗은 철다리우로 련속 꼬리를 물고 달려와 물속에 혼합물을 쏟아붓는 자동적재차들, 무엇을 물어올리고 내리우는 거물같은 기중기팔들의 쉬임없는 움직임, ㄷ강의 유유한 물결속에서 튀어오르는듯한 선전차 처너방 송원의 정력적이고도 다기찬 목소리... 거창하면서도 황홀한 정경이었다.

아!- 하고 소리치고싶도록 나의 가슴은 부풀어 올랐다. 대자연을 정복하는 일이란 얼마나 보람찬것인가. 보람찬 일 치고 쉬운 일이 없듯이 강을 막아 전력을 얻어내는 일이란 또 얼마나 힘겨운 일인가. 대단한 작전, 능숙한 지휘력을 가진 일꾼들이 없이는 도저히 이끌어나갈수 없는 거대한 사업이었다.

(그런데 서준상부총국장은...)

혁명군대의 지휘관들처럼 건설자들을 위훈의 한길로 이끌고나가야 할 그가 제구실을 못한다고 생각하니 나는 속이 철렁 내려앉는듯했다.

《갑시다.》

영도가 자리에서 일어나 영덩이에 묻은 눈을 툭툭 털며 말했으니 망정이지 나는 그만 《당기대를 저버리다니?》 하고 분격을 터뜨릴뻔했다. 나는 말없이 그를 향해 돌아섰다.

그러나 영도는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서 움직일줄 몰랐다. 무슨 속구구일가?

하지만 나는 묻지 않고 묵묵히 서서 건설장만 바라보았다.

한참후에야 그는 손목시계를 들여다보고나서 결심이 선다는듯

《사무실로 갑시다. 분명 지금 련대장동문 사무실에 있을겁니다. 시계같이 규칙적인 사람이니까요.》 하며 벌췌 웃어보였다. 과연 그의 예견은 틀리지 않았다. 우리가 저쪽 동쪽너머에 주련이 늘어선 돌격대원들의 침실앞을 지나 익측에 놓인 문이 활짝 열려진 서준상부총국장의 방에 들어섰을 때 그는 설계도면이 놓인 책상우에 손 짚고 구부정하고 서서 깊은 사색에 잠겨있었다.

《련대장동무, 손님이 오셨습니다.》

영도가 웨치듯 목소리를 높여서야 그는 머리를 들었다.

《아니 총국장동무가 웬일이요?!》

그는 천만뜻밖이라는듯 깜짝 놀라는것이였다.

《보고싶어 왔소.》

나는 걸어들린 팔소매를 내리우며 달려나오는 그의 오른손을 굳게 잡았다.

《이거 정말... 고맙습니다.》

《추운 겨울에 수고합니다.》

방금 현장에서 들어왔는지 젖은 세멘물탈이 튕겨올라 구슬알처럼 얼어붙은 얼음방울들이 녹기 시작한 그의 바지가랭이에 시선을 던지고있던 나는 시답지 않은 대답을 하며 그의 얼굴을 눈여겨보기 시작하였다.

50줄에 넘어선 몸으로 건설현장에서 밤을 꽤우다싶이 하고있을 그였으나 얼굴엔 조금도 피곤해 보이는 기색이 없었다. 뻘뻘하게 면도질을 해서인지 오히려 40줄의 사나이 못지않게 젊어보였다. 게다가 부리부리한 눈에선 정력이 불타고있었다. 다만 기름한 얼굴의 이마에 깊숙이 패워들어간 주름살이며 희숙희숙한 귀밑머리만은 그의 나이를 속일수 없게 했다.

《부총국장동무.》

그와 마주앉으며 나는 공식적인 태도를 취했다. 직성이 풀리기전에 한바탕 조겨덜 판이었다. 원래 나는 무슨 문제든 흥분되었을 때 말을 해야지 시간이 흘러 흥분이 사그라진 다음에는 할 말을 다 못하는 성미였다. 나는 그의 문제를 놓고 결코 이런 약점을 보일수가 없었다. 그렇게만 되면 서준상부총국장은 큰 자극을 받지 못하게 될것이며 따라서 결함도 인차 고치지 못할것이었다.

《사실...》

내가 예까지 찾아온 이유를 밝히려는데 그가 《잠깐만...》 하고 문밖으로 나가는 영도를 불러세웠다.

《영도동무, 세멘트를 실러 갔던 차들은 다 도착했소?》

《네, 저... 운전사들이 너무 피곤해하는것 같아서 좀 쉬고 래일아침에 세멘트를 실고 떠나도록 하였습니다.》

《뭐라구?!》

서준상부총국장은 어성을 높이며 반쯤 몸을 일으켰다가 다시 주저앉았다. 내가 옆에 있으니 기



분을 좀 삼가하는것이 틀림없었다. 그러나 나는 그의 일거일동을 놓침없이 주시했다. 당장 큰 벼락이라도 떨어듯한 기상으로 영도를 쏘아보던 서준상부총국장은 주머니를 뒤져 담배팩을 꺼내 한 대 붙여물었다. 연거퍼 몇모금 들이빨던 그는 성급히 그것을 재떨이에 비벼끄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총국장동무, 열방으로 갑시다.》

나는 그를 따라 열방으로 갔다. 간소하게 꾸린 침실이였다.

《피곤할텐데 좀 쉬시우. 내 하던 일을 마저 끝내고 인차 오겠수다.》

서준상부총국장은 미안해하며 한켠 구석에 놓인 침대를 가리켰다.

《인차 오시우.》

나는 그가 나가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 있었으나 하는수 없이 이렇게 대답했다. 분명 영도를 닦아세우려는 모양이였다.

그가 밖으로 나가자 나는 침대우에 걸터앉아 꾸역꾸역 담배연기를 피워올리며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그러나 피워문 담배 한대가 다 타도록 그는 돌아오지 않았다. 나는 피로를 느끼며 침대우에 반쯤 몸을 높이고 눈을 감았다.

어지간히 시간이 흐른 모양이였다… 혼곤히 잠들었던 나는 껍- 하는 소리에 눈을 번쩍 떴다.

《동무, 누가 동무에게 그런 자의적인 행동을 하라고 했는가말이요.》

열방에서 들려오는 서준상부총국장의 목소리였다. 무엇이라고 두런두런하는 상대방의 대답이 들려왔다. 말귀는 알아들을수 없었으나 나는 그가 김영도임을 인차 알아차렸다.

《지금 곧 역으로 나가시오. 빨리 세멘트를 실어들여보내야겠소, 적어도 아침 8시까지… 알겠소?》

목소리는 좀 낮아졌으나 여전히 사정이 없었다.

《창고에 세멘트가 많은데 몇시간 늦어진다구 큰일날게 있습니까.》

이번엔 영도의 음성이 푹푹하게 들려왔다.

《무슨 구실이 그렇게 많소!》

그는 무슨 말인가 더 했으나 지나치게 흥분된 목소리여서 가려들올수가 없었다.

나는 서준상부총국장이 왜 오늘밤중으로 세멘트를 실어들이라고 과업을 주었는지, 또 운전사들을 생각한다면 창고에 세멘트가 있는데도 당장 다시 역으로 나가 세멘트를 실어들이라고 하는지 그 이유를 알수 없었다. 하지만 저렇게 무가내로 영도를 억누르려고 하는것은 잘하는 일같지 않게 느껴졌다. 실태를 료해하면 다 알게 되리라는 충동으로 나는 침대우에서 일어섰다. 그러나 나는 자신이 너무도 경망하게 구는것이 아닌가 하여 원탁앞에 놓인 결상우에 주저앉아버렸다. 그의 의도를 잘 모르는것도 모르는것이지만

아래일군인 영도가 아직 방에 있는 조건에서 그것은 삼가해야 할 일이기도 했던것이였다.

《운전사대기실에 대주우… 종권동무요? 지금 나한테로 와주우.》

한참후에 다시 서준상부총국장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런데 전화로 자기 승용차운전사를 찾는것이 아닌가.

나는 저으기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그러면 그렇겠지.)

영도를 자기 차에 태워 역으로 내보낼 모양이였다. 아무리 물인정한 사람이라도 재밤중에 10여리길을, 그것도 길새 사나운 눈길을 걸어온 그를 다시 돌려세우면서 왜 다른 생각이 없겠는가. 그것은 영도를 다시 역으로 나가라고 할 때부터 그렇게 했으면 하고 바라던 일이기도 했다. 나는 순식간에 쌓이고쌓였던 그에 대한 불감이 아침안개처럼 사라져버리는 홀가분한 마음으로 그가 있는 방으로 갔다. 어깨목을 축 늘어뜨리고 문가에 맥없이 서있던 영도가 방으로 들어서는 나를 힐긋 쳐다보더니 후- 한숨을 몰아쉬었다. 맞갖지 않아하는 태도가 력연하였다.

《아니, 쉬지 않구…》

전화로 어딘가를 찾고있던 서준상부총국장이 송수화기를 놓고나서 결상을 당겨주었다. 이때 한 청년이 방에 들어섰다. 나는 그가 서준상부총국장의 승용차운전사임을 알아보았다. 그도 나를 알아보고 머리숙여 인사를 했다.

《종권동무,지금 급히 어디에 좀 갔다와야겠소.》

영도가 얼핏 나를 돌아보다가 눈길이 마주치자 황망히 얼굴을 돌리는것이였다.

그 역시 욕을 먹긴 했어도 승용차에 기대를 걸고 있는것이 틀림없었다.

《3대대 1중대에 있는 서천에서 올라온 동무 있지 않소, 이름이 뭐라더라…?》

《리준삼입니다. 래일 결혼식을 하는…》

종권이 재빨리 일깨워주었다.

《그렇지, 바로 그 동무요. 그 동무가 결혼식을 미루겠다면서 아직 떠나지 않았다는데 그를 데려다주고 와야겠소.》

《네.》

종권은 군대식으로 차렷자세를 취하더니 돌아서 나갔다.

《가만, 종권동무.》

서준상부총국장이 문턱을 넘어서려는 그를 불렀다.

《후방부에 뭘 좀 준비해놓은것이 있을거요. 그것을 가지고 가오. 그리고 잘 도와주지 못해 미안하다구 전해주우.》

《알겠습니다.》

종권은 벌쭉 웃고 나가버렸다.

(…?!)

나는 그만 아연해져 화석이 되어버릴 지경이었다. 영도의 문제와는 정 상반되는 결혼식문제가 튀어나올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한 것이었다. 한동안 입을 딱 벌리고 앉아있던 나는 변화무쌍하기 그지없어보이는 그가 분명 서준상이나 맞긴 맞는가 하는 의심까지 들어 멍청히 그를 지켜보았다. 하지만 그는 태연스레 책상위의 도면이며 책들을 거두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문득

《영도동무, 왜 아직 그러구 쏘소. 왜 떠나지 않는가말이요.》 하며 긴 두눈썹을 곳곳이 세우고 그를 무섭게 노려보았다. 숙였던 머리를 들어 힐끗 그를 쳐다보던 영도는 서준상의 기세에 위압당했는지 황망히 눈길을 돌리며 문밖으로 나가버렸다.

이날 새벽에도 나는 종시 그와 이야기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창문으로 푸름푸름 밝아오는 하늘이 내다보였다. 벌써 새날이 밝아오고있었으므로 나는 그가 조금이라도 눈을 붙이도록 해야 하였다. 그래서 그와 가지런히 침대우에 누웠다. 그는 인차 푹아 떨어졌다.

그러나 나는 역에 내려 영도를 만난 순간부터 지금까지 벌어진 종잡을수 없는 아리송한 일들이 자꾸만 되살아올라 잠을 당기지 못하고 뒤치락거렸다.

(사람이 환경과 조건에 따라 그렇게도 달라질 수 있는가!)

생각에 잠겨 한동안 모태기던 나는 어렴풋이 잠들어버렸다. 몇분이나 흘렀던지... 나는 밖에서 창문을 두드리는 바람소리에 화닥닥 놀라 자리에서 일어나앉았다.

그런데 웬일인가? 옆에 누웠던 서준상부총국장은 보이지 않았다. 그가 누웠던 머리말에 차곡차곡 침구가 포개져있었다. 얼핏 손목시계를 보니 신통히도 정각 7시가 되었다. 너무 잤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나는 서둘러 옷을 입고 문을 열어보았다.

진눈까비가 골짜기를 뽕얇게 메우며 사정없이 쏟아져내렸다.

췌- 찬바람이 문안으로 몰려들었다. 급히 문을 닫으려는 때였다. 불쑥 한 처녀가 나타났다. 우산은 썼으나 작업복을 입은 그의 양어깨와 바지가 랭이는 흠뻑 젖어있었다. 처녀는 비바람에 우산이 뒤집힐번하는것을 가까스로 유지하면서 나에게 가벼운 인사를 하였다.

《아침식사를 하십시오.》

《고맙소. 어서 들어오우.》

《괜찮습니다.》

《어서 들어오라는데두. 비맞지 말구...》

몇번이나 독촉을 해서야 처녀는 우산을 거두고 문턱을 넘어섰다.

《기요원동무, 부총국장동문 어데 갔소?》

내가 이렇게 묻자 처녀는 두눈을 동그랗게 뜨고 나를 올려다보며 방긋 웃었다.

《전 기요원이 아닙니다. 자재계산원 리수옥입니다.》

《그렇소? 그런걸 난 또...》

나는 제나름의 속단을 미안스럽게 여기면서 다시 물었다.

《부총국장동문 어데 갔소?》

《련대장동지말입니까?》

《그렇지. 여기서 련대장이지.》

《세멘트창고에 나갔습니다. 어제 밤중으로 세멘트를 실어들었으면 일없을텐데... 우리 과장동지가...》

수옥은 마치 자기 잘못을 뉘우치기라도 하듯 고개를 떨구며 말끝을 맺지 못했다.

《...?!》

순간에 나의 머리속에는 번쩍 스쳐지나는 것이 있었다. 서준상부총국장이 밤중으로 세멘트를 실어들이도록 한것은 그리고 준 파업을 제대로 집행하지 않은 그를 되돌려세운것은 오늘아침에 이렇게 비가 쏟아질것을 예견하고 조직한 사업이 아니겠는가.

《수옥동무, 세멘트창고로 갑시다.》

나는 웬일인지 더 앉아있을수가 없어 밖으로 나갔다.

《식사도 안하시구...》

수옥의 목소리엔 아버지나 맘오빠를 생각하는 진정이 넘치고있었다.

《일없소, 련대장동무도 식사를 안했을텐데?》

《네.》

《그럼 같이 먹지뵤.》

《총국장동지, 이걸...》

수옥이가 우산을 내밀었다.

《일없소.》

나는 그에게 우산을 도로 밀어주고 걸음을 다그쳤다.

나는 단번에 물주머니가 되었으나 전혀 그것이 싫지 않았다. 간밤의 초조하던 마음이 시원해지고 뻥하던 머리가 더없이 상쾌해지는듯했던 것이었다.

부총국장에게서 내가 바라던 좋은 점을 보았기 때문이었다.

《총국장동지, 저...》

수옥이가 내걸로 붙어섰다. 하지만 그는 웬일인지 나와 눈길이 마주치자 더 말을 잇지 못하며 슬며시 얼굴을 돌렸다.

《왜 말하오.》

나는 걸음을 늦추어주며 그에게 다정한 미소를 지어보였다.

그제서야 수옥이는 입을 열었다.

《전 사회생활에 대하여 깊이있게는 알지 못함

니다. 그러나 한가지 문제가 있는것 같습니다.》

《제대군인이요?》

《네, 작년에 제대되었습니다. 그런데 군대에선 상급의 명령지시에 리유가 없지 않습니다. 그것이 당정책과 어긋나지 않는 이상...》

《그렇지.》

나는 가식없이 수옥이를 긍정해주었다.

그것은 누구도 부정할수 없는 문제가 아니라.

《현대 여기 돌격대생활에서 제가 절실하게 느낀것은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할 일을 다하지 못하고서도 응당한 가책을 받지 않고있습니다. 또 그에 대한 지휘관들의 요구성을 정당하게 받아들이야 하겠으나 너무하다느니 뭐니 하면서 걸고드는 현상이 적지 않습니다.》

수옥은 점점 흥분되고있었고 그만큼 그의 주장은 절절하였다.

《레하면?》

어린 처녀의 말을 듣고있는것이 아니라 상급일군에게서 타이름을 받고있는 때처럼 나는 마음이 긴장해지는데를 어쩔수 없었다.

《어제밤 우리 자재과장동지의 일만 놓고보아도 그렇지 않습니까. 런대장동진 그 전날 군기상관측소에서 일기에보를 알아보고 급히 세멘트를 실어들이도록 하였는데 그는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고 행동하였습니다. 얼마나 잘못된 일입니까. 그러고도 자재과장동지는 찍하면 런대장동지가 작풍이 나쁘다고 합니다.》

《음...》

무심히 들을수 없는 말이였다.

처녀의 말이 진실이라면 얼마나 신중한 문제인가?

수옥의 생각은 옳았었다. 우리가 몰탈혼합장엿에 있는 세멘트창고로 달려갔을 때 자동차들이 꼬리를 물고 들어서고있었다. 술한 돌격대원들이 자동차에서 세멘트포대를 메여날라다 창고에 들어쌓고있었다. 물참봉이 된 서준상부총국장도 그들과 함께 세멘트포대를 메어나르고있었다.

물론 수옥이와 나도 그들속에 뛰어들었다. 내가 세번째 세멘트포대를 메려 할 때였다.

《이거 안됐습니다. 손님까지...》 하며 누군가 나의 어깨를 건드리는데것이였다. 영도였다. 그는 작업복도 입지 않은 외출복차림에 우산까지 받쳐졌었다.

불시에 나는 머리에 그에 대한 좋지 않은 기분이 갈마드는것을 가까스로 억제하였다.

《빨리 세멘트를 창고에 넣어야겠소. 그러다간...》

《일없습니다. 돌격대 일이란 늘 이런거랍니다. 하긴 우리 런대장동무가... 다 그 방법과 작풍 문 제때문이지요.》

영도는 투덜거렸다.

(뭐라구?!)

나는 그의 행동을 보고 깜짝 놀랐다. ,

마침 한 돌격대원이 나의 어깨우에 세멘트포대를 올려놔주어 그를 다시 쳐다볼수 없었다.

나는 세멘트포대를 메어나르며 줄곧 수옥이가 하던 말을 더듬었다. 제가 할일을 톡톡히 하지 않으면서도 그에 대하여 응당한 요구를 하는 지휘관들에게는 사업방법이 어쩔소, 사업작풍이 어쩔소 하고 걸고들리는 김영도와 같은 사람들이 혁명에 주는 해독이란 얼마나 큰것인가.

문득 어제밤에 보았던 건설장의 거창한 정경이 되살아올라 나는 걸음을 세웠다. 진눈까비가 몰아치는속에서도 대자연과의 싸움은 계속되고있었다.

철다리우에 꼬리를 문 자동적재차들이며 거물같은 팔을 휘두르는 기중기...

대자연을 정복하는 일은 정말 어려운 전투였다.

이 어려운 싸움을 잘 벌리자면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첫째도 둘째도 혁명군대내에서처럼 철저한 명령지휘체제를 세워야 할것이다.

얼마후에 세멘트포대부림작업은 끝났다.

요행 큰 피해는 없었다. 몇개의 세멘트포대가 젖었을뿐... 억수로 내려붓던 진눈까비도 즘즈름했다.

《동무들, 모두 이리로 오시오.》

서준상부총국장이 돌격대원들을 불렀다.

그들이 자기 주위에 빙 둘러서자 서준상부총국장은

《동무들, 아침부터 고생시켜 안됐습니다. 제가 일조직을 잘못하다보니 이렇게 됐습니다. 량해하여주시오.》 하고 사죄하는것이였다.

《괜찮습니다!》

돌격대원들은 일제히 화답했다. 그것은 돌격대원들이 자기 지휘관에게 보내는 뜨거운 신뢰의 목소리로 들렸다.

그러나 한사람 영도만은 후줄근한 자세로 돌격대원들의 뒤에 서서 그를 마뜩지 않은 눈길로 바라보고있었다.

나는 서준상부총국장방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도경제지도위원회에 전화를 걸었다.

도경제지도위원회에서는 출장일정을 보고받고 이 문제를 바로잡는데 대한 나의 의견을 적극 지지해주었다...

## 넓어지는 고향벌

윤승흠

사람들은 어디 가나 자기가 나서자랐고 유년시절의 가지가지 추억들이 깃들어있는 고향땅을 잊지 못해한다.

나 역시 얼마전에 평북도 운전지방에 출장갔다가 기회가 있어 나의 어린시절이 흘러간 고향마을을 찾았다.

어렸을 때 나는 거의 모든 시간을 소꿉시절동무들과 함께 바다가에서 보냈다.

내가 살던 마을에서 바다쪽으로 뻗어나간 나지막한 산등성이를 따라 한참 걸어나가면 밋밋한 언덕이 나지고 언덕이 끝나는곳에서부터는 무연한 간석지가 펼쳐져있었다.

바다가에서 동북쪽을 바라보면 서해에 흘러드는 대령강의 물결이 해빛에 반짝이었고 서남쪽을 바라보면 멀리 칠학산과 그앞에 솟아있는 제비산이 보였다.

밀물때면 물에 잠기고 썰물때면 땅이 드러나는 개펄에 나가서 해종일 감탕판에 덩굴고 물속에 미끄러져내리며 얼마나 웃고 떠들었던가.

그러면 영명하신 **김일성**장군님께서 분여해주신 논밭에서 일하던 아버지 어머니들이 행복의 미소를 짓고 바라보곤하였다.

나의 작은 발자국이 찍힌 즐거웠던 동요시절의 그 나날들을 다시한번 안아보고싶어 나는 어릴적의 송아지친구였던 박동무(지금은 농산반 반장이였다.)와 함께 바다가로 나갔다.

바다!

언제 보아도 시원하고 아름다운 바다!

우리는 변모된 고향의 산천과 그간의 회포를 나누며 천천히 바다가습을 걸었다.

《자네 생각나나? 조개를 불에 구워먹다가 밀물에 포위되어 엉엉 울던 그때가.》 박동무가 웃으며 넌지시 물었다.

《암, 생각나구말구, 한데 박동무, 그 형제바위가 왜 보이지 않나?》

《보이지 않는다구. 허허허... 이제는 그 바위가 저쪽에 있다네.》 하며 뒤쪽을 가리켰다.

돌아보니 다정한 형제바위가 논배미 웃쪽 큰길가에 틀고앉았는데 거기에는 《전당, 전국, 전민이 달라붙어 새로운 <간석지개간속도>를 창조하자!》라는 구호가 나붙어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올해 신년사에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올해에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우리앞에 나서는 가장 중요한 과업은 대자연개조사업을 힘있게 벌리는것입니다.》**

여기서도 그사이 적지 않은 간석지를 개간하여 기름진 논으로 풀었는데 대자연을 정복하는 그 전변의 나날에 바다물에 솟아있던 바위가 땅우에 올라앉은 바위로 변하였던것이다.

밀려나가는 바다!

넓어지는 고향벌! 이 얼마나 거창하고 량만적인가!

더우기 형제바위를 오래간만에 대하고보니 실로 감개무량함을 금할수 없었다.

원래 간석지에서 보기 드문것이 돌이다.

무릎까지 빠지는 감탕을 왁새걸음으로 걷다도 발밑에 탄탄한것이 밟히면 그것은 돌이 아니라 조개다.

그런데, 어떻게 되어 여기에 크지 않은 두개의 바위가 솟아났는지 아무튼 장난이 심했던 그때의 우리에게 있어서 이 평퍼짐한 바위는 돌도 없는 우리의 《친구》였고 간석지의 《의자》였다.

바다가에 나오면 우리는 옷을 훨훨 벗어 바위우에 던지고 물오리처럼 거품내기로 물속에 뛰어들곤했다.

옷뿐만아니라 반두와 낚시, 그물망태기와 소꿉이따위도 바위틈에 숨겨두었고 여기서 게와 조개도 구워먹곤했다.

한번은 이런 일도 있었다.

그날도 마을 조무래기들은 제비산에 올라 싱아며 산딸기를 뜯어먹다가 그것도 싫증이 나서 바다가로 또 나갔다.

따가운 햇빛아래 번들거리는 간석지가 아득히 드러누웠는데 갈게들이 오구구 게바라다니고 미처 빠지지 못한 물고기들이 물웅덩이에서 철버덕거렸다.

바위우에 올라 개굴을 내려다보던 우리들은 환성을 올렸다.

보기 드물게 큰 칼치 한마리가 등때기와 옆구리를 드러내고 얇은 물속에서 푸들쩍거리고있었던것이다.

한발나마보이는 어지간히 큰놈이었다.

우리는 앞다투어 바위우에서 뛰어내리며 칼치를 덮쳐 눌렀다.

어찌나 힘이 세고 미끄러운지 엉치밑으로 빠져

나가기도 하고 꼬리에 맞아 뒤로 벌렁 넘어지기도 하였다.

그것이 재미나서 또 한참 웃군하였다.

싱겁이질은 좀 하였지만 여하튼 그놈을 잡고야 말았다.

우리는 기진하여 아가미를 넘적거리는 물고기를 바위우에 끌어올렸다.

우리도 숨이 차서 헐떡거렸다.

몇아이들이 갈숲에 가서 마른 풀덤불을 가져다가 불을 피웠다.

조개며 새우, 뱀어를 구워먹고나서 우리는 다시 칼치를 둘러싸고 한바탕 법석대었다.

물고기에 대한 이야기가 뜸해지자 이번에는 개펄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갔다.

어떤 아이는 저 넓은 개펄을 다 논으로 풀면 우리 나라는 쌀풍년이 마련될 것이라고 하였고 또 어떤 아이는 개펄밑에 석탄과 철이 묻혀있다고도 했다.

그때 말없이 앉아있던 박동무가 사람의 힘으로는 바다를 도저히 밀어내지 못할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제법 어른들처럼 한숨을 내쉬며 시무룩해하였다.

그렇게 되자 말씨름에 열이 올랐던 아이들이 하나, 둘 입을 다물었다.

문제는 그다음에 있었다.

어디선가 쇠아- 하는 소리가 나면서 밀물이 갑자기 들이닥치기 시작했던 것이다.

빠른 속도로 밀려드는 물살이 이미 허리노리를 쳤다.

우리들은 다시 바위우로 기여올랐다.

처녀애들은 엉엉 울기 시작했다.

해가 지자 밤바다는 우우 소리를 냈다. 우리는 산에 가리워 보이지 않는 마을쪽을 향하여 법석고아댔다.

얼마후에 배 한척이 나타났다.

마을에서 아이들이 없어진것을 뒤늦게야 알고 급히 배를 저어왔던 것이다.

바로 그러루한 일들이 몇번 있었던 형제바위가 이제는 큰길가에 솟은 바위로 변하였고 배가 오가던 그 길로는 빠스와 프락프르들이 오가게 되었다.

《그런데 박동무, 저 형제바위는 왜 없애지 않았나?》라고 묻는 말에 그는 대답하였다.

《논으로 개간할 때 없애자는 말도 있었지. 그러나 이다음 세대들에게 여기가 한때는 바다였다

는 생생한 표상을 주기 위하여 그리고 우리 시대의 새 전설을 남기기 위하여 기념으로 놔두기로 하였나네.》

우리는 건설중에 있는 제방을 넘어 계속 걸어들었다.

우리의 눈앞에는 저 멀리 준철선들과 기중기들, 자동차들이 분주히 오가는 간석지건설장이 펼쳐졌다

박동무는 지금까지의 간석지개간은 첫시작에 불과하다는것, 본격적인 전투는 앞에 놓여있으며 그 전망이 휘황하다는데 대하여 자못 긍지를 가지고 설명하였다.

어렸을 때 사람의 힘으로는 바다를 도저히 밀어내지 못할것이라고 하던 그 박동무이고보면 사실 흥분할만도 했다.

그는 최근에 진행된 당중앙위원회 제6기 제4차 전원회의와 관련하여 이야기하면서 농장의 간석지건설계획에 대하여 자세히 들려주었다.

특히 우리 당이 독창적으로 내놓은 새로운 태천발전소건설은 고향사람들에게 크나큰 감동과 환희를 불러일으켰다.

그렇다.

우리 나라 내륙산간지대의 넓은 구간에서 새로운 개발방식으로 진행될 태천발전소가 건설되면 이곳 간석지개간에서의 물문제는 완전히 풀릴것이며 방대한 면적의 간석지가 옥토로 전변될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 형제바위도 더 멀리 내륙쪽으로 옮겨질것이며 저 수평선도 지평선으로 될것이다.

번영하는 이 땅의 오늘도 좋지만 조국의 지도가 변하고 간석지 새 마을이 생겨날 래일의 우리 생활은 또 얼마나 보람차고 즐거울것이나!

바로 그날을 앞당겨오기 위하여 전당, 전국, 전민이 간석지개간과 새땅찾기, 남포갑문과 태천발전소건설을 비롯한 대자연개조사업에 힘차게 떨쳐나선것이 아닌가.

새로운 《간석지개간속도》, 《남포갑문건설속도》, 《태천발전소건설속도》를 창조하며 전진하는 조국의 앞길에는 가슴벅찬 래일이 펼쳐져있거니, 왜 대자연개조사업에 우리 분발하여나서지 않을것이나!

나는 끝없이 넓어질 고향벌을 그려보며 잔물결이 구슬로 아롱지는 바다기슭을 오래도록 걷고 또 걸었다.

# 사랑의 지평선 외1편

권태여

금산포 금산포는  
서해의 한끝-  
금모래 은모래 뜨거운 바다가에서  
포구마을 총각은 섬치녀를 만났네

고기배 가고 올 때  
미역 뜨며 반기던 섬치녀  
저도 물이 그리워 물에 오곤하지만  
어로반장 그 총각이 막아설제면  
불우물에 손가락 고이고 가슴만 설레는데

-물로 오라구  
총각의 더듬는 말에  
-아이참, 풍년든 미역발은 어떡하구요  
한마디 남기고 처녀는 돌아갔네

이렇게 처녀와 총각은  
섬과 물에서 그리움 깊어갔건만  
서로 제 보금자리 더 아꼈네  
출렁이는 파도 사이에 두고

그러나 그 뒤 알았으랴  
바다를 밀어내며  
물이 섬으로 뻗어가고

무쇠기둥이 걸음을 옮기며  
아득한 창파우에 콘베아를 돌릴줄이야

세상이 열리어 긴긴세월  
그 언제 수평선을 지평선으로 만들어보았더냐  
그 언제 땅이 바다로 흐르게 했더냐

섬과 섬을 합치고  
섬과 물을 합치며  
사랑의 지평선을 펼쳐준  
당의 해빛이 하도 고마와  
환희로 끓던 감격의 그날  
처녀와 총각은 큰잔치 차렸다네

정녕 꿈같은 세상 행복에 겨워  
총각은 싱글벙글 말했네  
-보라구  
제발로 나한테 오고야만걸

-아이참, 내가 시집을 왔나요  
물이 섬으로 왔지  
처녀의 귀여운 대답에 하늘도 반기는가  
꽃피는 지평선 사랑의 지평선을  
아득히 바라보며 기쁨에 겨웠네

## 미루고원

싸리나무 꽃그늘에  
매미 우는 한여름  
젓소떼 양떼 개울가에 내리는  
내 고향 미루고원이여

꽃다운 삶을 가락에 담아  
풀피리 불어불면  
애송아지 달음박질 배우는

아득한 초원

양떼무리 풀 뜯는 저곳이  
사양공 내 어머니  
수령님 만나뵈온  
민들레등성이란다.

거기서 내 꿈을 키워

어머니의 버들초리 물려받은지 그 몇해  
사철 방목 비우지 말고  
고향의 초원을 살피우라신  
수령님의 그 말씀 꽃피운 보람

천이라 만이라 수자를 넘어  
평방으로 재이는 젖소무리 양무리  
내 손으로 키워낸 기쁨이  
조국의 재부로 설레이는 초원이여

고원의 흰구름 수건삼아  
머리에 두르고  
발밑을 바라보면  
누런 보리밭에 종다리 헤엄치는가

관개수 은띠처럼 휘감긴 내 고향  
논이라 밭이라 초원이라  
한아름에 꺼안은 풍요한 땅이여

네 품에 넋을 잃고 소리쳐 웃으며  
애송아지 꺼안고 해종일 덩굴고싶구나  
하늘도 땅도 기름진 초원도  
노래속에 어울린  
조선의 새땅-미루고원이여

하늘가까운 해밭고우에  
내 삶의 기쁨이 높아가는 대지여  
모든것이 우리의 몫으로 설레이는  
미루고원의 가없는 초원이여

## 나는 왔노라, 고향을 지나

김휘조

풀내 배인 제대배낭 가뜰히 메고  
나는 왔노라  
거친 물결 들고나는 서해에도 한결

봄이면 뿌린듯 그윽한 꽃향기  
가을이면 벼바다 설레는 소리  
노래로 정다운 고향을 지나

내앞에는 뒤척이는 끝 모를 바다  
감탕에 첫 자욱 찍으며 들어섰던  
아득한 간석지

굴착선 몰아가는 나의 앞으로  
제방은 한치한치 뻗어나가도  
헐치 않아라 바다와의 싸움은

파도는 물머리 높이 추켜들고  
순간에 모든것을 삼켜버릴듯  
횡포한 성미 드러내며 울부짖더라-

내 힘을 당할자 누구냐고  
너희들은 어이하여 태어난 고향땅  
멀리 두고 예 왔느냐고

그때면 더 세차게 굴착선을 몰았다  
채석장엔 발파소리 불도젤의 거센 동음

노호하는 파도를 밀어냈나니...

아, 둥근달 저기 앞섬우에 솟아  
별무리 출렁이는 물우에 은빛다리 놓을 때면  
그 한끝까지 제방을 쌓고싶은 마음

그 마음 설레여 그려보는 미래가  
눈앞에 펼쳐지누나, 벼꽃 피는 들  
풍년학 너울너울 날으는 벌이

내 만일 고향의 노래속에 아득히 잠겨  
안겨주는 사랑을 받을줄만 안다면  
그 무슨 자랑찬 삶이라

내 흘린 더운 땀이 습배인  
저 제방과 함께 삶은 궁지 높고  
끝 모를 바다처럼 보람은 끝없거니

아, 나는 말하리라, 이 땅에 벼바다 아득히  
설레일 때  
설레이는 내 고향의 금나락  
서해바다 한끝까지 나는 이어놓았다고

나서자란고장이여서 고향이더냐  
나의 참된 삶이 빛나는 이곳  
여기가 진정 내 고향이라고.

## 서정시 《어머니》를 읽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습니다.

**《실생활을 생동하게, 심도있게 그려낸 사실주의적문예작품만이 사람들의 심금을 울릴수 있습니다.》**

인민들의 축적된 생활감정과 변함없는 혁명적 신념을 고도로 승화된 정서로 일반화하는것이 우리 시문학의 본도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서정시 《어머니》(《조선문학》, 1981년 10호)는 우리 인민들의 높은 정신세계와 티없이 맑고 깨끗한 생활감정을 사소한 추상도, 강요도 없이 소박한 시어로 진실하게 노래한 참으로 시속에서 찾아낸 시라고 볼수 있습니다.

기쁠 때도 어머니  
피로울 때도 어머니  
반기여도 꾸짖어도 달려가 안기며  
천백가지 소원을 다 아뢰고  
잊을번한 잘못까지 다 말하는  
이 어머니 없이 나는 못살아

이 어머니란 과연 어떤 어머니입니까. 철부지 유치원생으로부터 다 자란 아이들을 거느린 백발의 로인에 이르기까지 잠결에도 조용히 더듬어찾는 고마운 당의 품!

이 땅위의 수천만 아들딸들을 어엿한 혁명가로 안아키우는 이 위대한 어머니를 한 시골아낙네의 이름과 나란히 부르게 된것은 무엇때문입니까? 바로 그것은 이 땅의 모든 어머니들이 수천년 지나간 역사를 두고 자식들의 운명과 미래를 애절히 기원하여온 그 숙망이 이 위대한 어머니에 의하여 실현되었기때문입니다.

피도 숨결도 다 나누어주고 운명도 미래도 다 말아안아주며 바람도 비도 죽음까지도 다 막아나서주는 여기에 우리 당을 위대한 어머니로 되게 하는 근본요인이 있습니다.

잊을번한 잘못까지도 다 아뢰는 이 어머니는 하나의 뒤떨어진 자식을 위하여 천리길 만리길도

마다하지 않고 달려가 붉은기에 휩싸안아 대오에 세워주는 그러한 혁명의 어머니인것입니다.

이런 어머니품에 안겨 찬란한 미래를 향하여 한생을 혁명가로 살아간다는것은 얼마나 보람차고 긍지높은 일입니까.

그렇기때문에 놓치면 잃을듯 떨어지면 숨질듯 한것이 바로 당의 품이며 응석과 어리광만으로는 받을수 없는것이 어머니의 사랑인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어머니가 우리들을 위하여 마음 기울인 그 모든 낮과 밤을 다 안고 서슴도 아낌도 없이 싸워나갈 결의-그것은 곧 우리들의 맹세입니다.

진정 어머니당을 위해서라면 불붙는 석탄이 되어 화력발전소의 타빈을 돌려도 좋고 한줌 거름이 되어 푸른 모 한포기를 살지워 당의 은정 노래한들 한이 없는 우리들입니다.

아 나의 생명의 시작도 끝도  
그 품에만 있는 조선로동당이여  
하늘가에 흩어지고 땅에 묻혔다가도  
나는 다시 그대 품에 돌아올 그대의 아들!  
그대 정겨운 시선, 살뜰한 손길에 몸을 맡기고  
나는 영원히 아이적 목소리로 부르고 부르리라  
어머니! 어머니 없이 나는 못살아!

비록 11련에 여든넉줄로 끝나는 짝막한 서정시이지만 큰 소설을 읽은것 못지않게 생각이 깊어지고 가르침이 많아지는 생활의 교과서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어머니 없이 우리들은 못살니다.

저는 서정시 《어머니》를 읽고 외우는 과정을 통하여 당을 받들고 따르는 마음에 작은 티라도 섞일세라 주옥같은 결정체를 더욱 굳건히 다져넣었습니다.

앞으로 시를 그리 즐기지 않던 저와 같은 독자들도 읽지 않고 외우지 않고서는 견딜수 없는 《어머니》와 같은 서정시들을 더 많이 실어주기를 바랍니다.

평남도 덕천군 제남구 113반 한창린